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8월 23일(음력 7월 30일) 수요일 (주간) 제 592 호

원로 임기 '10년 단임'

조계종 원로회의, 명예원로제 도입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8월 16일 청주 보살사에서 제26차 원로회의를 개최했다.

원로회의법 개정을 중심으로 논의한 이날 원로회의는 종헌 제26조 원로의원의 세납을 65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원로회의 정원을 17인 이상 25인 이내이던 것을 21인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또 원로의원 임기는 10년에 중임이 가능하던 것을 10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임기를 마친 원로는 명예원로의원에 추대하기로 했다.

원로의원의 추대 방식도 기존 중앙종회 추천에서, 원로회의가 직접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종법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적이 인정되는 중창사찰의 경우 중창주의 권한을 인정하고, 매년 조계사 영산재를 주관해온 원명(동주) 스님을 종단 공식 어장으로 추천할 것을 총무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사찰음식, 대중 속으로…

조계종 '韓 브랜드화' 사업 동참
산업화 · 세계화 방안 연구 맡아

25일 세미나 개최, 사찰음식협의체 구성 등 본격 행보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방부제와 식품첨가물이 든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가 우리 식탁을 점령한지 오래다. 비만과 당뇨, 고혈압 등의 각종 질병이 이 같은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현대 식단의 대안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사찰음식이다.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재료를 이용해 조리하는 사찰음식이 현대인의 건강 파수꾼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한(韓)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찰음식을 한국 대표 상품으로 개발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한 브랜드화'는 한식 한지 한옥 한복 한국학 한국어 등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를 생활화하고 산업화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

이 중 한식 분야에 포함된 '사찰음식 대중화 · 세계화 방안 연구'를 조계종이 맡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이미 지난해 12월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동국대 가정학과에 의뢰했다. 사찰음식 조리 현황과 사찰음식 원형을 살피기 위해서다.

동국대 가정학과는 3개월에 걸쳐 사찰 후원 관리 담당자 인터뷰와 설문 등을 통해 사찰음식 현황과 전수 실태를 파악하고, 템플스테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찰음식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점검했다.

조계종은 조사 자료를 토대로 사찰음식 표준 조리법을 만드는 한편, 이를 단체급식 · 호텔식 · 대중음식점 등에 보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8월 25일에는 '사찰음식의 우수성 및 대중화 방안' 주제 세미나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국내의 내로라하는 사찰음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찰음식 대중화 방안을 모색한다.

적문 스님(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이 '사찰음식의 정신'을,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이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이심열 교수(동국대 가정학과)가 '사찰음식의 대중화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심열 교수는 "실태조사 결과 일반인들이 사찰음식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사찰음식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찰음식에 대한 개념을 알리고 다양한 사찰음식을 보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전망한다.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은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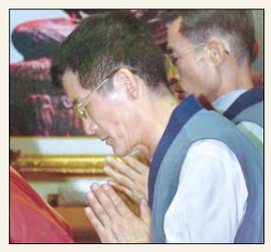
조계종 문화부 박종학 문화팀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불교계 내에서는 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사찰음식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찰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찰음식은 불가(佛家)의 식문화를 넘어 현대인들을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방향타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에 우리음식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재곤 스님 군산 관음사 회주



시방세계 9면
간화선 지도인력…입제현장
도반의 향기 17면
신아출판사 서정환 대표
원각사 재가논강 중계 7면
CEO, 사찰서 만나다 10면
열대과일 잘못 먹으면 27면



더위도 산통도 두렵지 않다

봉선사 능엄학림 공개특강, 월운 스님 직접 지도에 60여 학인 '학구열'



남양주 봉선사 능엄학림 하계 단기공개특강 입제식이 8월 13일 청풍루에서 봉행됐다. 사진 왼쪽부터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회주 밀운 스님, 조실 월운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14일 오전 7시 남양주 봉선사 청풍루. 이른 아침인데도 60여 스님들이 <화엄경>을 들고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17일까지 4일간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봉선사 능엄학림 하계 단기 공개특강을 듣기 위해 모인 수강생들이다.

이번 특강은 동국역경원장이며 봉선사 능엄학림 학장인 대강백 월운 스님이 경학발전을 위해 경학 공부에 뜻을 둔 스님들에게 전통방식의 수업을 체험케 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공개특강은 두개 반(화엄반, 선요반)으로 나눠 매일 오전 7시1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첫날 강의는 월운 스님이 오전 7시10분쯤 강단에 앉자 시작됐다. 월운 스님은 "경학은 20년 이상은 해야 뭔가를 조금 알게 될 정도로 어려운 길"이라며 "앞으로 불교를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서는 분명 경학에 능통한 스님들이 많아야 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큰 원을 세워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고 경학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수강생들의 눈빛이 자못 진지해졌다.

수업은 전통방식인 대나무 산통을 이용해 일종의 제비뽑기로, 수업시작전 뽑힌 학인스님이 전날 미리 예습한 <화엄경> 현토를 쭉쭉 읽고 풀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운청법(海雲聽法) 선주의승(善住依僧)…"스님의 강독에는 막힘이 없었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비구인 덕운 스님의 법문을 듣는 장면이다. "홀륭하구나, 선남자여, 남쪽의 해문국에 해운 비구가 계시니 보살도를 여쭈면 광대한 선근을 내는 인연을 분별해 설할 것이다."

중간에 월운 스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잠시 학인 스님의 강독이 끊겼다.

"잠깐, 네 번째줄에 '당문표석(當文標石)'이란 말이 나오는데 무슨뜻인지 아는 스님? 이 글자는 자주 나오는 것이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월운 스님은 "대답이 없다는 것은 모두 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전혀 몰라서 무슨 질문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까?" 부드러운 힐난(?)에 학인스님들이 박장대소하자 엄숙했던 분위기에 여유가 생겼다. 월운 스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당문표석'에서 '당문'이란 그 문장에서란 의미로 이 네글자를 풀이해보면 한문장 한문장에서 지표와 초석이 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자 학인 스님들은 그제서야 놓치고 있는걸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월운 스님은 이렇게 중간중간 경구해석은 물론 경전의 맥과 흐름을 짚어주었다.

이번 특강에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사기(私記)'도 가르쳤다. '사기'란 선배 학인들이 경전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주석을 단 일종의 '학습 해설서'다. 선배 수행자들이 경학을 공부할 때 흘린 땀방울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문헌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기는 초서로 필사돼 읽기조차 힘들지만 오랜세월동안 쌓아온 경학의 지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진귀한 자료다. 전통방식의 강의에서 핵심이 되는 교재이다. 또한 이번 강의에서는 사기와 함께 경전의 주제별 목차인 과도(科圖)도 강의했다.

<선요반> 수강생인 대정 스님은 "학림에서 경전 공부를 할때에는 교과서인 원전뿐만 아니라 3~4개의 사기를 함께 배우기 때문에 학습할 양이 엄청많다"며 "오전 강의가 끝나면 곧바로 오후 7시에 있을 논강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부처님 말씀을 한자 한자 새기며 깨달아가는 그 기쁨은 환희심이 날만큼 크다"고 즐거워 했다.

무더운 여름날 무한한 인내를 요구하는 능엄학림 공개특강은 어느덧 4일이 지나 수료식을 맞게 되었다. 60여 수강생들은, 엄격한 전통방식으로 경학을 공부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을 선배 수행자들의 서릿발 같은 수행 정신을 듬뿍 배웠다고 회향식때 입을 모았다. 또한 이번 공개수업에 참여한 스님들 대다수는 이런 공개특강이 매년 열렸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쳤다.

봉선사/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미륵성지 용화종찰 미륵전(국보62호)

국내최대 소조불 법화림보살,대묘상보살 복원 불사 모연문

삼보님께 지심정례 하옵니다.

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서기599년) 왕실 자복사찰로 창건된 이후 통일신라 혜공왕 2년 해동제일율사 진표율사께서 미륵장육상을 봉안하고 십선계법과 유식법상의 종지를 개창하여 용화종찰로서 미륵성지가 되었으며 고려 때에는 혜덕왕사와 도생승통 등이 주석하였습니다.

임진 · 정유 양란 때에는 처영 뇌묵대사께서 수천의 승병들과 함께 호남 승병장으로서 구국 삼화상이 되어 왜적들에게 최후까지 항전하시다 분사 하셨고, 80여동의 당우와 40여 암자가 전소되는 법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수문대사께서 35년에 걸쳐 금산사 복원불사를 추진하고, 인조대왕의 내탕금등으로 현재의 대사구지역을 재건하였으며, 이때 미륵전 삼존불도 토불로서 국내 최대의 소조불로 조성되어 400여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심과 원력이 부족한 탓으로 금번 장마와 폭우의 영향과 세월의 무게를 이기시지 못하고 협시보살인 법화림보살님께서 손괴되어 제행이 무상함을 느끼는 동시에 불보살님을 제대로 시봉하지 못했음을 금산사 대중과 더불어 진심으로 사부대중께 참회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법화림보살님과 동시대에 조성된 대묘상보살님도 함께 복원불사를 하여 하루빨리 옛 모습을 되찾는데 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해 올립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널리 불사를 하셨던 소조불은 다른 불사에 비하여 몇 배 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함으로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도 받아 자자손손 만대에 물려 줄 복원불사를 하고자 하오니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라마지 않으며 인연 맺으신 공덕으로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하시기를 두 손 모아 앙축합니다.
성 불 하 십 시 오.

불기 2550년 음 7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증명 : 회주 태공 월주 대종사
주지 벽산 원행 계 수

복원불사 추진위원회

• 증 명 : 태공 월주 대종사
• 자문위원 : 도영, 도원, 도법, 도일, 평상, 평중, 이상무, 홍종길, 이강령, 이동호, 권희선, 채규수, 문석순, 김태진, 권태진, 권두삼, 김진수
• 추진위원장 : 벽산 원행
• 부 위 원 장 : 원광,영진, 김백호, 김해수, 임규래, 채규수, 김경자
• 추 진 위 원 : 제17교구 사암 주지스님 및 신도회장 전북지역 신도, 신행단체장 및 임원
• 집행위원 : 원혜, 덕산, 도안, 석문, 대명, 덕림, 원성, 보순, 이근재, 이정휘, 하유호, 김영효, 홍대법성, 강평등심, 조대원행, 곽인순, 한광수, 송영효
• 화 주 : 태공 월주 대종사 문도
유관음행, 이인례, 오옥남, 정순례, 주정기, 서백련심, 도인기, 문화자, 박현용, 오종근, 고귀월, 김기운, 이두연, 송명자, 고정관, 박상석, 박동창, 한광수, 이재홍, 우용호, 박경순, 김영애, 이정자, 박병남, 김동현, 이태환, 이동원, 유재민, 정희숙, 이치영, 신웅기, 송명성, 김진태, 양현섭, 송의정, 장명옥, 김수월화, 손석기, 전용주, 이정상
• 사무국장 : 이원일, 총무과장 : 김종렬, 종무원 :권선오, 학예사 : 김미란

동참문의 접수 : 063)548-4440~2(금산사 종무소)
동참 계좌번호 : 농협 525133-51-001880

행자교육원 '문턱의 힘' 대단하네

조계종 40代 41% · 대졸 학력자 42% … 출가 제한연령 50세 조정 영향

태고종 입교자격 · 소양시험 강화 … 신청자 43% 탈락시켜 '자정 의지'

조계종 직지사 행자교육원 입교식에서 40대 이상 출가자가 40%이상을 차지하고, 태고종도 입교희망자중 절반정도를 서류심사에서 엄격하게 걸러내는 등 예전과 다른 행자교육원의 신풍속도가 펼쳐져 주목되고 있다.

또한 두 종단 모두 입교희망자의 고학력 현상이 지난해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도 눈길을 끈다.

출가연령이 40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상향조정된 후 이 같은 규정이 처음 적용된 조계종 제31기 행자교육원. 8월 11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개원한 행자교육원에는 예년에 비해 중년의 모습의 많이 눈에 띄었다.

조계종 교육원에 따르면 제31기 행자교육원에 남행자 57명, 여행자 39명 등 40세 이상 출가자 96명(40대 81명, 50대 15명)이 지원했다. 이는 총 232명(남행자 149명, 여행자 83명) 중 41.4%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체 입교생 수도 증가했다. 출가연령이 40세 이하였을 때는 지원자가 150명 정도였지만, 50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자 80여명으로 늘어났다.

'늦깎이 발심자' 뿐만 아니라 '고학력자'도 대거 지원했다. 제31기 행자교육원 지원자 중 전문대 졸업자가 17명, 대학교 졸업자 76명, 대학원 졸업자 5명 등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가 98명으로 전체 42%를 차지했다.

고령 · 고학력 출가라는 시대적 추세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조계종 교육부장 법장 스님은 "행자교육기간 중 이들의 교육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성실한 대중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말하고 "이후에라도 부적적자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9월 5일부터 실시하는 제30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수계산림인 점과 최근 종단 내에서 일고 있는 자정 움직임과 관련 입교에 앞서 치뤄진 행자 소양시험을 여느 때보다 더 엄격하게 진행했다.

8월 10일 소양시험 및 면접, 신체검사가 진행된 신촌 봉원사 시험장 내에는 시종 긴장감이 흘렀다. 시험 전 행자복과 흰고무신 등 기본적인 복장을 갖추지 않은 행자는 입실조차 금지시켰다. 또한 면접 때도 수험생들이 불교기초교리를 잘 숙지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테스트했다.

또한 신체검사에서도 난치병 환자나 전염성 있는 질병 보유자는 엄정히 걸러냈으며, 문신이 있는 등 스님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철저히 선별해 불합격 처리시켰다. 아울러 금치산자나 파렴치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 배우자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는 여행자 등도 시험자격을 주지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수계 신청에는 남자 248명, 여자 94명 등 모두 342명이 신청했지만, 서류전형 결과 57%인 195명(남자 144명, 여자 51명)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으며, 이중 180명(남자 131명, 여자 49명)이 합격했다.

태고종 교무국장 법륜 스님은 "서류심사에서 자격기준을 강화해 절반정도의 응시자를 탈락시킨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수준높은 스님을 배출하는 것만이 종단 자정과 개혁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는 믿음으로 수계산림 중이라도 교육기준에 미달되는 행자는 과감히 탈락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태고종은 행자 소양시험 응시자의 학력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졸 이상이 48명(25%), 고졸 92명(47%), 중졸 39명(20%), 초등졸 16명(8%) 등으로 나타났다

김주일 · 남동우 기자



8월 16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전산원에서 실시된 제9회 전산교육 실습에서 조계종 스님들이 진지한 눈빛으로 참여하고 있다.

"디카로 찍은 사진 CD로 구워요" 조계종 스님 대상 전산교육 실시

조계종 교육원은 제9회 전산교육을 8월 16~19일 4일간 동국대(서울 · 경주)에서 실시했다.

교육기간동안 초급반 스님들은 컴퓨터 기초, 한글 기초, 인터넷 기초 등을, 중급반 스님들은 한글 활용, 오피스 활용, 인터넷 활용, 홈페이지 활용 등을 배웠다. 이밖에 포교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시디 굽기, MP3 파일 관리, 디지털카메라 편집 등도 익혔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종무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스님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기위해 매년 실시해온 조계종 전산교육은 동국대 총 70명(서울 26명, 경주 44명)의 스님이 이수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전국선원수좌회 '종법기구' 추진

하안거 선림위원회의서 검토, 내년에 확정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혜국 · 함주 · 현산)는 8월 13일 수덕사에서 '불기 2550년 병술년 하안거 전국선원선림위원회의'를 열고 선원법 개정을 통해 전국선원수좌회를 종법기구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능인선원 선원장 설정 스님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선림위원회의에서 선원대표들은 올해 동안거 기간 동안 제방 선원의 여론을 모아 차기(2007년 2월) 선림위에서 최종 확정키로 뜻을 같이 했다.

선림위원회의는 또 교육원이 추진하고 있는 '간화선 지도자'의 명칭을 '선(禪)포교사'로 변경할 것을 결의했다.

최근 포교원이 간화선을 지도하는 재가자에 대해 '간화선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이 명칭이 선원의 '명안종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포교사'로 변경 하도록 했다. 이 날 회의에는 설정, 동춘, 정천, 의정, 함주, 혜국 스님 등 27명이 참석했다.

조용수 기자

공원입장료 기획예산처만 '반대' 입장

환경부에 공문 '국민부담가중' 이유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기획예산처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장료 폐지 입장을 고수해 왔던 조계종 등 불교계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공문을 통해 환경부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달 환경부로 보낸 기획예산처 공문에는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없앤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도 · 군립 공원과 궁능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폐지로 확산되면서 국민부담을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이처럼 강경한데 반해, 이미 환경부는 입장료 폐지에 따른 내년 예산 300억원 증액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히 국회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나 불교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도 한목소리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찬성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국민여론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모아지고 있는데도 기획예산처가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속한 환경부, 정치권 등과 연계해 기획예산처에 대한 설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고침 본지 지난호(591호) 1면 '율사들이…' 기사 중 미국 서부 남가주사원연합회장을 '현철' 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또 9면 '사찰게시판…' 기사 상단 왼쪽 사진 설명 가운데 봉원사는 봉선사의 오기임으로 바로잡습니다.

고운사 주지 직대에 호성스님

조계종 제16교구 고운사 주지 직무대행으로 현 고운사 선원장 호성스님(사진)이 8월 14일 임명됐다.



호성 스님의 임기는 전임 혜승 스님의 임기가 끝나는 8월 17일 부터 3개월간이다.

호성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87년 9월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했다.

1986년 봉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선안거 이래 15안거 성만했다.

조용수 기자

불입종 '종정 추대' 놓고 내홍

대한불교 불입종이 차기 종정 선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번 내홍의 발단은 지난 7월 19일 충북 보은 화광사에서 열린 '불입종 종조 태허 흥선 대법사 27주기 대재' 행사장에서 2대 종정 경조 스님이 "건강이 안좋아 혹시 급작스럽게 큰일이 닥칠지 몰라 미리 생각하게 됐다"며 "종정 유고(有故)시에는 차기인 3대 종정으로 종정 사서실장을 역임한 도명 스님을 위촉한다"고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이를 전해들은 총무원장 경암 스님 등 종단 간부들은 "불입종 승적이 없는 도명 스님을 종정 으로 위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경암 스님측은 7월 21일 부산 보명사에서 비상회의를 열고 2대 종정 경조 스님이 차기 종정 위촉 즉시 종정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 총무원장 경암 스님을 종정권한대행으로 추대했다.

또한 경암 스님측은 8월 16일 충북 제천 총무원에서 제3차 임시종회를 개최해 종회의원 재적 28명 중 23명의 동의를 얻어 제3대 종정으로 부산 금강암 조실 면철 스님을 추대했다.

경암 스님 측의 조치에 대해 종정 경조 스님은 "불입종에 입문한지 5년도 채 안 되는 면철 스님이야말로 종정 부적격자이며 현 종정이 버젓이 살아 있는 데도 종헌종법을 임의로 해석해 종정 자격을 박탈하고 종단의 내홍을 일으킨 것은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무원장과 그 측근 간부들에게 8월 11일부로 모두 해임시킨다는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행 불기2550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헌종법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종도수련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50년 9월 1일 – 9월 3일(음 윤 7월 9일 – 11일)
◆ 입 재 : 불기 2550년 9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단, 당일 오후 2시까지 입소등록 완료요망)
◆ 준 비 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세면도구
◆ 장 소 : 다보수련원 043) 833-7789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 접수 및 안내 :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02) 951-1074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51) 638-4088
총무부장 010-3136-4115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 대한불교대승종 각지방종무원
대한불교대승종 중앙종의회 · 대한불교대승종 전국신도회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진 도일 합장

봉행 대한불교대승종 종단수륙제 및 방생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조국 대한민국의 국운 융성과 경제 발전을 발원하고 모든 국민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안락하고 보리심을 발하기 위하여 전국 대승종 종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단 단체 수륙제 및 방생법회를 봉행코져 합니다.

금차 수륙방생은 모든 불성 생명을 존중하고 전생의 악업으로 이류중생의 몸을 받았거나 아직 택처를 찾지 못해 구천을 떠도는 고혼 애혼 영가를 천도함으로서 자타가 둘 아닌 동체대비심을 고취하며 생명존중사상을 앙양코자 함이오니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와 각 사암 주지스님들께서는 무루 동참하시어 법좌를 빛내주시옵고 이차 인연 공덕으로 이나라 이땅이 불국정토를 이룩하여 일체중생이 이고득락하고 수명장수하며 가문이 창성하고 뜻하는바 모든 사업 크게 이루어 부처님의 크신 은덕 보답코자 함에 그 뜻이 있사오니 전 종도들은 부디 함께 하옵소서.

다 음

◆ 일 시 : 불기 2550년 10월 29일 일요일(음 9월 8일) 10시 30분
◆ 장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산34번지 뿌리공원 042) 581-4445
◆ 접수 및 안내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51) 638-4088
총무부장 031) 763-4115
◆ 주 최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중앙종의회 · 각지방종무원 · 전국신도회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천 청화 합장

7대 종교인 '아름다운 걷기'

9월 16일 '이웃종교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수익 · 후원금 전액 장애인 휠체어 지원

장애인 후원을 위해 불교 개신교 등 7대 종교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종교인평화봉사단은 9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올림픽공원 88마당에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 성직자와 신자들이 참여하는 '2006 이웃종교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걷기대회는 7대종교 성직자들을 선두로 88마당 인근 4km 구간을 걸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로 진행된다.

풍물패 길놀이와 페이스페인팅 등 이벤트와 종교화합 퍼포먼스, 걷기 코스 구간별 건강검진 · 발마사지 부스 설치, 가족 및 청소년을 위한 캐릭터 퍼포먼스 등 부대행사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운다.

또 장애인 발언대, 장애인 머리손질 코너, 장애인 안경 맞춰주기 등 장애인을 위한 행사와 어린이 에어바운스, 가족포토존, 함께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이 행사의 수익금과 후원금은 전액 장애인 휠체어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기관별 참가 신청은 물론 종교와 무관한 단체, 가족, 개인별 참가 신청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1000원이며, 참가 학생에게는 봉사활동확인서가 발부된다.

종교인평화봉사단 관계자는 "7대 종교인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함께 호흡하며 공동선을 실천하는 의미 깊은 자리"라며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종교간 화해를 위해 행사를 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02)782-5700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종교간 화합 이끈 큰어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18일 오후 서울대 병원 영안실에 마련된 강원용 목사 빈소를 찾아 분향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사상 · 철학에 조예 깊어
2002년 만해평화상 수상
불교계 추모 열기 뜨거워

강원용 목사 타계

종교화해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종교인으로 꼽히는 강원용 목사가 8월 17일 오후 12시 5분 별세했다. 향년 89세.

함경남도 이원에서 출생한 강원용 목사는 열린 마음으로 종교간 대화와 화해를 주도하는데 평생을 헌신했다. 특히 강목사는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과 함께 종교간 대화를 여는 등 불교계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불교사상과 철학에 조예가 깊은 그는 생명과 환경의 대안으로 가장 적합한 종교로 불교를 꼽기도 했다. 또 2002년 민주화와 인간화운동에 힘쓴 공로로 불교계가 주는 만해평화상을 수상했다.

강원용 목사의 타계 소식을 접한 불교계는 이례적으로 추모하는 열기가 높다. 이웃종교 지도자인 강원용 목사가 그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 등은 각각 17일과 18일 강원용 목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지관 스님은 "종교 간의 화합과 사회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강원용 목사님의 타계를 애도한다"며 "육신은 사대(四大)로 돌아가더라도 고인의 높은 얼과 뜻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다하지 못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남(指南)이 되고 표상(表象)이 되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에 비뚤어진 종교적 아집과 독선, 과도한 종교적 표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종교적 강요 등을 치유하고자 한 강원용 목사님의 뜻은 무한한 격려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강원용 목사는 크리스찬아카데미와 평화포럼을 설립해 종교간 대화운동과 평화운동을 주도했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의장 등을 역임했다. 박봉영 기자

■강원용 목사님의 타계를 애도하며

이 땅의 산천초목도 강원용 목사님의 떠나심을 함께 애도하는 것 같습니다. 강목사님은 민족의 선지자로서 1959년 '크리스찬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열린 자세로 종교간 폭넓은 대화를 주진하고, 아울러 도농간, 계층간, 지역간, 정파간 대화와 만남을 주선하여 상호 간극을 좁히고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이끌어내는 일에 항상 앞에 서셨습니다.

또한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종교의 교조적 신념과 배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종교간 대화를 통한 공존과 협력을 이룩하는데 헌신한 큰 스승이셨습니다. 특히 불교를 여타 종교 보다 원융한 철학과 포용력을 가진 종교라고 칭찬했고, 생명을 살리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철학이라고 인정할 만큼 넓은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산승은 30여년 동안 강목사님과 함께 많은 종교지도자, 그리고 각계 인사들과 대화하였고,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90년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끌어낸 일이나 IMF 위기때 실업극복운동본부를 조직해 함께 활동하며 종교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강목사님은 문질(文質)을 함께 갖추신 인격과 지도력으로 만인을 이끄셨으며 성경 자구(字句)에 구애받지 않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안목을 가진 목자로서 민중과 민족장래에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때로는 개신교계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도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고 포용하면서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고 공동체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하신 분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 오셨습니다.

수십년간 국내 뿐 아니라 국제간의 평화 실현을 위하여 큰 족적을 남기신 강원용 목사님의 명복을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월주 스님(지구촌공생회 이사장 · 前 조계종 총무원장)



한명숙 국무총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기 위해 8월 14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한명숙 국무총리 나눔의 집 방문

"하루빨리 日과 협상 마무리 짓겠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8월 14일 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 여성가족부 김창순 차관, 조억동 광주시장 등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원장 원행)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할머니들의 고충을 듣고 나눔의 집 역사관을 둘러본 후 故 박두리 할머니를 추모하며 분향과 묵념을 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9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난 한 총리는 "얼마 전에도 나눔의 집을 방문했는데 해마다 할머니들께서 돌아가셔서 안타깝다"며 "할머니들께서 더 이상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빨리 일본과의 협상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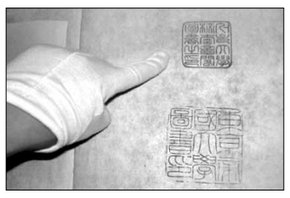
또 '나눔의 집이 건립을 추진 중인 전문노인요양시설이 환경법 때문에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할머니들의 고충을 전해들은 한 총리는 "여성부와 환경부 관련법들을 검토해 할머니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얼마 전 '아름다운 재단'에 5천만 원을 희사한 김군자 할머니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따로 면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방문객들에게 "신사참배와 망언을 일삼는 일본에게 최대한 강경하게 대응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러한 할머니들의 바람도 헛되이,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다.

이은비 기자

조선왕조실록에 규장각 날인?

서울대 "자체 규정 따랐을 뿐" … 훼손 논란



93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조선왕조실록>오대산 사고본 47책. 조선왕조실록환수위와 문화재청 주최로 8월 11일 월정사 사고지에서 열린 환국고유제 직후 <조선왕조실록>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조선왕조실록>에 서울대학교규장각 장서인 '규장각도서지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밝혀져(사진) "서울대 측의 실록 선취취득과 문화재 훼손"이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규장각 자료관리실 관계자는 "장서인 날인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자료관리운영세칙 제5조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며 "장서인은 일시 소장했더라도 등록과 함께 날인해야하고 소장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장서의 이동경로(서책의 내력)를 확인시켜 주는 기록요소며 장서인은 자료의 간지 여백에 날인했기 때문에 본문 내용에 훼손은 일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왕조실록환수위 관계자는 "규장각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장서인을 찍은 것은 실록이 가져다 주는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를 무시한 행동이며 아직까지 소장 처와 소유권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이 장서인을 찍은 것은 차후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나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북 수재민돕기 1억 모금
종단협, 조불련에 전달키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8월 17일 제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해로 고통 받는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종단협은 조계종이 먼저 약정한 5000만원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27개 회원종단이 동참해 1억원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모아진 성금은 구호물품 형태로 정부를 통하지 않고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에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이미 확보해 놓은 5억원 상당의 현물을 함께 전달한다.

한편 종단협은, 앞서 각 종단이 갹출한 2930만원 가운데 우선 1500만원을 불교TV에서 모금한 5800만원과 합쳐 강원도 인제지역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학술원 우수도서에
'중론…' 등 불서 6권 선정

대한민국 학술원이 '2006년 우수학술도서'로 불교서적 6권을 선정했다.

학술원 우수도서는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불교시대사), <혜초의 왕오천축국전>(학고재), <한국시와 불교적 상상력>(역락),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서울대출판부), <고려불화><한국의 불교음악>(운주사)등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봉

제4세 삼장법사 종정 붕해 대종사 취임
및 제7대 총무원장 지공 종사 취임법요식

축

귀의삼보하옵고
항상 본 종단을 애종하시는 전국종도 여러분과 일붕문도 여러분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불사가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하게 회향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산하 본종단에서는 나라의 안정과 인류평화 및 지난 종정추대위원회 및 중앙종회에서 추대된 제4세 붕해 대종사추대 및 제7대 총무원장 지공 종사의 취임법요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이 동참하시어 일붕존자예하의 법통수호와 유지보존 및 종단중흥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단이사진

재단이사장	경 원
재단상무이사	혜 광
재단이사	혜 운, 도 기, 일 명, 지 공, 화 엄, 법 광, 담 화
재단감사	혜 천, 혜 원

다 음

1.일 시 : 2006년 9월 1일(음. 윤 7. 9) 금요일 오후12시
2.장 소 : 인천 라마다(송도비치)호텔
3.복 장 : ①스님은 가사장삼 ②법사는 법복
4.준비사항 : 당일 11시30분까지 입장완료
5.연 락 처 : 총무원/봉행위원회 02)998-8161, 2

봉행위원회

대 법 주	제4세 종정 붕해 대종사
증 명	무찰스님, 금봉스님, 청송스님, 송은스님, 원각스님, 수암스님, 명종스님, 혜운스님, 도기스님 ,동봉스님
대 회 장	총무원장 지공 종사
봉행위원장	종회의장 화엄
봉행부위원장	종회부의장 경원
추진위원장	교육원장 원각
추진부위원장	부산종무원장 대우, 서울종무원장 응천
준비위원장	총무부원장 혜천
준비위부위원장	대구종무원장 석담, 대전종무원장 도안
집행위원장	호계원장 용암
집행부위원장	강원동부종무원장 보해, 강원서부종무원장 동청
기획위원장	포교원장 정수
기획부위원장	울산종무원장 도현, 경기북부종무원장 도혜
진행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진행부위원장	전남종무원장 혜성, 제주종무원장 경운
총무분과위원장	총무부장 영명
교무분과위원장	교무부장 지언
재무분과위원장	재무부장 유정
재무분과위원회	재무국장 일명
섭외분과위원장	경기남부종무원장 윤봉
섭외분과위원회	사회국장 영우
홍보분과위원장	홍보부장 대호
동원분과위원장	포교부장 혜공
봉사분과위원장	교육부장 법해
경호분과위원장	규정부장 지성
감사분과위원장	감사원장 법성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취임대법회 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 종회의장 화 엄 대 회 장 총무원장 지 공

사찰운영 주체 '주지' 아닌 '사부대중' … 인식 바꾸자

사찰운영위法 아십니까?

조계종이 개혁불사를 마무리 하던 1994년 10월, 종법으로 '사찰운영위원회법(이하 사찰운영위법)'을 제정한 사실을 아는 불자는 극히 드물다. 사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부대중이 모두 참여하는 민주적 사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당시로서도 혁신적인 법이었다. 법의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집행된 사항을 사찰 사부대중에게 공개하고 사찰의 재정관리체계를 일원화해 감시 ·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사찰운영위법은 현실성 확보에 실패했다.

그나마 일부에서는 사찰운영위 모범사찰로 조계사 봉은사 삼화사 법장사 능인선원 한마음선원 등을 꼽았지만 "입법취지에 맞게 사찰운영위를 운영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고,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선진적 사찰경영과 포교를 위한 연구가 지상과제로 인식되는 지금, 사실상 '사문화' 되다시피한 사찰운영위법이 왜 뿌리내릴 수 없었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은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1994년 제정된 조계종의 '사찰운영위원회법'이 단위 사찰의 외면과 법의 강제력이 없어 현재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그나마 사찰운영위원회법 제정 취지를 살려 운영하는 몇몇 사찰이 일부 있는 것이 다행스러운 현실이다. 사진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신도회 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사찰운영에 필요한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대구 영남불교대학의 회의 모습. 사진제공=영남불교대학

민주적 사찰운영 목표로 1994년 제정
사부대중에 재정 공개 … 사실상 사문화
주지 중심 구조 속 운영委 설 자리없어

▷종도들 외면…법 강제력 없어

사찰운영위법의 핵심은 출 · 재가의 구분 없이 사찰을 대중공의로 운영한다는 것.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이 공동의 승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이상적인 법이 현실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우선 이를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종도들의 낮은 의식, 일선 사찰 현장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데서 오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계종 법무팀 김봉석 변호사는 "사찰운영위법이 제정이후 한번도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은 이 법이 종단의 관심 밖이었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법이라는 뜻으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의 법으로 볼수 있다"며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중앙신도회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중앙신도회는 신도법 개정과 함께 사찰운영위법 개정 등 재가자들의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해왔지만 출가자 중심의 종단에서 재가신도의 역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도회 임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교구본사나, 일정규모 이상의 도심 사찰이 아니라면 신도회 조직이 제대로 꾸려진 곳조차 드물다. 대부분의 주지(위원장) 스님이 신도들과 마주앉아 사찰 재정업무를 논의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결국 사찰운영위에 대한 스님들의 의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총무원 총무부와 재무부등 실무자들로 구성된 감사반이 사찰운영위 회의록을 요구하면 "감히 어떻게 재가자가 주지와 마주앉아 절 살림에 간섭할 수 있느냐"며 "이런 법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목청을 높여 오히려 실무자를 당황스럽게 한 적도 많다는 것이다.

중앙신도회 최연 사무총장은 "종헌이 밝히고 있는 대로 '사부대중'으로 이뤄진 조계종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풍토가 가장 큰 장애"라고 지적하고 "스님들 스스로 진정한 사부대중 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재가자의 사찰운영 참여는 요원하다"며 비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사찰이 경제적으로 안정적 구조를 갖지 못한 것도 장애요인이다. 최근 종회의원 자격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모 스님은 "신도들의 시주 없이도 혼자 힘으로 납골사업을 벌여 지금의 사찰을 일궜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절의 규모를 늘리는데 신도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다. 이 스님처럼 사찰의 가장 큰 존재이유가 신도 교화를 위한 포교의 장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주지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렇듯 열악한 사찰의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납골사업, 국고보조, 입장료 수입 등에 의지한 사찰운영에만 열을 올리다보니 신도 중심의 사찰운영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법을 이행하지 않아도 종단이 별다른 제제를 가하지 않는 구조에 있다. 사찰운영위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모순된 구조가 지금까지 계속돼 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법의 강제력이 전혀 없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공의적 운영구조 먼저 가동을

사찰운영위법대로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입법취지와 유사한 형태로 대중공의를 모아 사찰을 운영하는 곳은 있다. 사찰운영위법이 제정되기도 전인 1991년 서울 창동에서 작은 포교당으로 시작한 법장사는 처음부터 신도들의 필요에 의해 이와 유사한 체제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각 신행단체 모든 임원이 참여해 의결과 집행을 겸하는 구조로 이들을 사찰 운영의 주체로 만든 것이다. 주지 법장스님은 "사찰운영위는 철저한 신도 교육을 전제로 자발적 조직화를 이뤄야만 진정한 대중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도 1992년 창건 초기부터 매주 화요일 핵심신도회의와 월 1회 기별정기회의, 격월로 열리는 기수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동문 · 신도는 언제든지 사찰의 모든 대소사에 의견을 내고 제안하며 운영에 동참하고 있다. 회주 우학 스님은 "지난해 서문시장에 화재사고가 났을 때 신도들 스스로 임시회의를 열고 영남불교대학이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봉사활동은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논의하고 실천에 옮겼다"며 "참좋은유치원이 들어서는 옥불보전 불사의 공사규모와 자금조달 방법도 이렇게 토의하고 공의를 모아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사찰운영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수국사 주지 토진 스님은 최근 젊은 신도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낸 시주가 사찰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사찰운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사찰운영 과정의 문제점에 스스로 관심을 갖고 신도들이 주지스님과 상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덕분에 종무원은 단 1명만 두고도 기본적으로 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도, 법회, 불사 등에 필요한 모든 인력을 자원봉사 팀장과 팀원체제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됐다. 기존의 하부조직 없이 형식적이었던 사찰운영위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현재 사찰운영위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도참여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신도가 주인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는 그 한계가 뻔하다. 신도들의 의식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가고 있는데도 새로운 제도가 불편하다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찰운영위 운영을 모든 사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면 낮은 수준이라도 사찰대중의 공의를 통한 사찰운영의 큰 틀을 만들어야 사찰운영위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사찰운영위원회법 주요내용

(목적) 이 법은 종헌 제101조에 의하여 본종 소속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공영화하고 합리화함으로써 사찰 운영의 능률화, 공개화, 공정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구성)

① 각 사찰은 실정에 따라 7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중략)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지는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승려 대표 1인으로 한다. 다만, 사찰 형편에 따라 신도대표를 부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단을 구성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찰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찰의 각종 불사와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찰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찰 운영에 관한 사항
5. 당해 사찰과 관련한 신도회 활동에 관한 사항
6. 신도 교육 및 포교에 관한 사항
7. 신도의 자격 심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년4회) 정기적으로 주지가 소집한다.

② 주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부칙(운영위원회 구성기간) ① 각 사찰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찰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를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찰이 제2항의 보고 없이 기한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때는 인사상의 불이익 기타 행정상의 징계에 처한다.**

'언덕교회' 경우는…

서울 충정로 아세아연합신학대 서울캠퍼스 4층 연구실 한 칸을 사용하는 언덕교회(담임목사 박득훈)는 좁고 초라했다. 흔히 '교회 없는 교회'의 대표주자 격인 언덕교회는 2003년 개회개혁네트워크에 소속된 10여개 교회 가운데 가장 새로운 실험적 모델의 하나로 출발했다. 매주 교인들의 예배는 이 대학 강당을 빌려 사용한다. 대신 지난해 언덕교회는 교회 수입의 30%를 사회복지 기금으로 내놓는 등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매달 신도중심 운영위 열어
살림 규모 · 재정 점검, 공개

언덕교회의 이러한 실험은 양적 팽창과 성전 건립에만 매달리는 기존 대형교회들의 폐쇄적인 교회운영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출발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 성직자, 목회자 중심의 교회를 반성하고 민주적 교회정관에 따라 1년 임기의 운영위원들이 교회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운영을 강조한다.

언덕교회는 매달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달간 교회 살림살이의 규모와 재정을 점검한다. 회의내용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철저히 공개되고 헌금은 대부분 봉사와 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조용수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분원

지리산 원각사 선불장 통일대불 조성불사

지리산 원각사 해동선원은 국태민안과 남북통일, 세계평화 그리고 법륜상전을 기원하는 선불장 통일대불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이자 원로의원이신 원각사 해동선원 조실 성수큰스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불사는 22자 높이의 통일대불과 아미타 마애불, 청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중국의 달마상과 18나한님, 신장님 24위 등 세계 여러나라의 부처님 100여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야외법당인 선불장을 조성하는 대작불사입니다.

이번 원각사 선불장 통일대불 조성불사에 모든 불자님들이 수희 동참하시어 난국을 극복하고 선근인연을 맺어 견성성불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원각사 주지 泰應 定岳 합장

원각사 선불장 통일대불 점안 봉불식

• 2006년 8월 28일(음 윤7.5) 월요일 오전 11시

1부 : 9~10시 점안,봉불 10~11시 상공,천일기도 입재 11~12시 봉불식(큰스님 법어)

2부 : 13시 (축하공연 일절)

※매월 지장재일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큰스님을 모시고 정기법회를 봉행합니다

圓覺寺 活山 性壽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분원 지리산 원각사 경남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540번지 전화(055) 973-9554

“불교공부에 빠져 봅시다”

현대불교연구원 개원기념 특별강좌 눈길

1992년부터 15년 동안 꾸준히 불경을 읽고 번역 연구해온 불교 전공자들이 현대불교연구원(원장 김용환)을 개원하고 8월 23일부터 3개월간 이를 기념하는 특별 불교 강좌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현대불교연구원이 문을 연 것은 지난 4월.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활동해 왔던 부산대, 동아대, 위덕대 등의 불교전공자들이 한데 모였다. 부산대 철학과 교수로 불교전공자들을 지도해온 김용환 교수가 원장을, 이진오 부산대 교수, 이찬훈 인제대 교수, 이태승 위덕대 교수가 부원장을 맡았다. 구미숙, 권서용, 김명우, 김준호, 송재근, 윤종갑, 정영식 등 젊은 불교전공자들도 뜻을 합쳤다.

날짜	주제	강사
8월 23일	초기불교의 사상(초기불교)	김용환(부산대)
30일	해석과 새불교의 시대(소승과 대승)	김준호(부산대)
9월 6일	空은 0인가 아니면 無인가(중관사상)	윤종갑(부산대)
13일	우리의 마음 분석하기(유식사상)	김명우(동아대)
20일	우리는 탁자위의 사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불교인식론)	권서용(부산대)
27일	티벳불교와 달라이라마(티벳불교)	이태승(위덕대)
10월 11일	종파불교의 전개와 발전(중국불교)	원필성(위덕대)
18일	화엄사상(화엄)	이찬훈(인제대)
25일	선의 허구와 진실(선사상)	정영식(부산대)
11월 1일	'나무 아미타불'의 가르침(정토사상)	송재근(창원대)
18일	원효의 학문화 미학(한국불교)	이진오(부산대)
15일	마음다스리기와 건강(응용불교)	조순희(위덕대)

불교전공자 12명 3개월간 강좌
경전 현대적 언어로 새롭게 해석
30분 정도 문답토론 형식도 진행

불교경전을 깊이 연구하고 새롭게 해석하여 일상의 언어,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겠다는 의지와 강좌, 강독,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불교학 연구의 성과를 현대인의 생활 속에 녹아들게 하겠다는 당찬 포부로 시작한 일이었다.

그러나 현대불교연구원의 개원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현대불교연구원의 연혁을 따져 들어가면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대학교 불교학 전공자들이 이진오 부산대 교수를 중심으로 부산대불전강독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된 불경 공부 모임이 해를 거듭하면서 비판불교연구회, 새불교연구회를 거쳐 현대불교연구원으로 자리를 잡기에 이르렀다.

현대불교연구원은 오랜 세월 동안 공부모임을 이어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에 전해야한다는 사명 앞에 선 젊은 학자들이 의기투합한 결과물이다. 현재 현대불교연구원 운영위원들인 40대 전후의 젊은 학자들은 연구원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월 회비를 내고 강의는 아예 무료로 진행할 정도로 열정이 뜨겁다.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특별 불교강좌는 현대불교연구원이 여는 첫 대중 강좌다. 이번 강좌는 김용환 부산대 철학과 교수의 초기불교의 사상을 시작으로 소승과 대승, 중관사상, 유식사상, 불교인식론, 티베트불교, 중국불교, 화엄사상, 선사상, 정토사상, 한국불교, 응용불교 등 광범위하게 불교사상의 기초부터 풀어내는 강좌로 마련된다. 12명의 불교학 전공자들이 각자의 전공을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풀어내는 1시간 30분의 강의에 이어 30분 정도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문답과 토론으로 풀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개원이후 매주 월요일 ‘불교인식론 세미나’, 매주 1, 3주 목요일 계룡산 벽수선원장 묘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등을 꾸준히 열어온 현대불교연구원은 앞으로도 10명 남짓의 소규모 공부 모임을 꾸준히 열어 보다 심도 깊은 불교를 대중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포부다. 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답사기행과 각 신행단체 법회 현황파악 및 법회 프로그램 개발, 법사 연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051)581-6320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고정관념 비워내면 지혜 드러나”

반산 스님, 금강경 강의 회향 공개 법회



부산 영축선원(선원장 반산 스님)이 8월 10일 영축선원 법당에서 부산불교방송을 통해 진행해온 금강경 ‘경전 공부’ 강의를 회향하며 공개 법회를 열었다(사진).

5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하안거 기간에 맞춰 진행된 금강경 ‘경전 공부’ 강의는 그동안 서울에서 제작해온 ‘경전 공부’ 강의를 부산불교방송에서 처음으로 직접 제작한 것으로 이날 회향법회에는 청취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방송 형태로 진행됐다. 오명식 부산불교방송 총괄국장을 비롯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그동안 강의에 힘써온 반산 스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오명식 총괄 국장은 “반산 스님의 금강경 강의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았다”며 “방송교재로 반산 스님께서 직접 쓰신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 교재가 불교도서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올라갈 정도였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반산 스님은 ‘생각을 비우면 진리가 보인다’는 주제 법문을 통해 “금강경의 핵심은 생각을 비운 그 자리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라며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비워내면 저절로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불교방송을 통해 금강경 강의를 진행해 온 반산 스님은 2년 동안 법화경, 선요, 초발심자경문 등을 방송을 통해 강의해오기도 했다. 천미희 기자

‘HipHop 愛 빠지다’ 공연

불국토도량



(재)불국토도량은 8월 11일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야외공연장에서 2006 청소년 문화존 ‘HipHop 愛 빠지다’ 거리 공연을 펼쳤다(사진).

국가청소년위원회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연은 부산의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재미난 복수’와 연대해서 진행했다.

힙합댄스과 밴드 공연, 티셔츠 페인팅, 프리마켓 소리 공작소, 힙합스크래치와 같은 부대행사와 더불어, 비보이 퍼포먼스, 밴드공연, MC 공연 등 무대행사가 이뤄져 호응을 얻었다.

50여 명의 청소년이 직접 만들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힙합축제인 거리 공연은 부산대학교 지하철 야외공연장에서 매월 한차례씩 펼쳐질 예정이다.(051)868-0750 천미희 기자

환희불교복지대 호스피스 카운슬링 과정 수강생 모집

환희불교복지대학(학장 지현)은 9월 12일 오후 2시 호스피스 과정을 개강한다.

매주 화, 금 주 2회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호스피스 과정에서는 임종간호와 영적 간호, 치매환자 간호, 건강과 질병, 경락이론 및 마사지, 심신이완요법 등 간병봉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은 물론 가족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함께 교육한다.

특히 환희불교복지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은 동인노인병원, 부산의료원, 효림병원, 보훈병원, 인창노인요양원 등에서 목욕 및 간병 봉사활동을 펼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051)203-9436 천미희 기자

해변서 거리상담 등 실시

부산시 청소년쉼터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2006년 해변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일탈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상담, 이벤트 및 홍보활동, 위기개입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한편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도 8월 9일부터 10일까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노인학대지킴이단, 자원봉사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해변 아웃리치 행사를 실시했다.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비지땀 흘려도 마음은 상쾌

부산여성불자회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삼나무 편백 등 사철 푸른 나무들이 우거진 도심 속의 시민공원인 초읍동의 어린이대공원은 몰려드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흔적이 남기 마련. 어린이대공원을 다녀간 사람들이 남기고 간 흔적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가 팔을 걷고 나선 이유다.

늦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던 8월 17일 부산여성불자회 회원 30여명은 쓰레기를 줍기 위한 긴 집게와 쓰레기를 담을 마대 자루를 들고 어린이대공원으로 출동했다. 한여름 내 푸른 바람과 그늘을 드리워준 자연에 감사하며 사람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하기 위해서 법회 대신 봉사활동에 나선 것이다.



부산여성불자회가 8월 17일 어린이대공원서 쓰레기줍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창립이후 13년 동안 단 한번도 월례법회를 빠뜨리지 않은 부산여성불자회지만 매년 8월이면 정기 법회를 쉬는 대신, 사경, 독경 등 개인수행과 함께 임원 워크샵을 열어왔다. 올해도 개인수행으로 자비도량참법 21독을 실천하기로 약속하고 정기법회를 쉴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공원 이용 인파가 더 몰리고 자연 환경 훼손도 더 심했을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쳐 정기법회를 쉬고 대신 야회법회를 겸해 어린이대공원 자연보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참여한 왕선자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자연 보호활동에 앞서 어린이대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성도암에 들러 부처님전에 예를 갖추고 공원으로 향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구석구석의 쓰레기 줍기 시작하자 금방 비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매미소리를 법문 삼아 들으며 부처님 말씀을 읽던 눈으로는 쓰레기를 찾으며 회원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즐겁다.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공기 맑은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청소도 하니까 보람도 있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08배를 하면서 땀을 흠뻑 흘리고 났을 때 상쾌해지는 기분입니다.”

“무심코 버렸을 담배꽁초가 가장 많네요.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새삼 하게 되네요.”

“너무 구석진 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땅에 묻혀 치우기도 힘드네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삼독심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법회 때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정기법회 대신 어린이대공원 자연보호 나서
“쓰레기 치우며 마음 속 삼독심도 버렸어요”

쓰레기를 줍는 회원들을 향해 공원을 오가던 사람들이 인사를 건넨다. ‘불자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니 고맙다’고. 그리 대단치 않은 일에 불교 전체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한편 이날 자연 보호 활동과 함께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휴대용 장바구니를 나눠주기도 했으며 자연보호 활동이 끝난 뒤 간담회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법인 설립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 [금물] 수의로 하세요

(상표출원번호 0039174)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02)747-1760

전화 주시면 희망 상품 삼베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견본과 상품이 다를 경우 100% 교환 환불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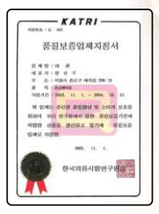
- 상품은 온라인 입금 후 원하시는 일자에 배송시켜 드립니다
-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어떠한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삼배로 한땀한땀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
- 상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국의류시험연구원(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원단 성분분석표를 첨부해드립니다.
- 모든 상품은 오동나무상자에 포장해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상품호칭	제작방법	재질(성분)	원단가공손질	원사생산	판매가격(25%할인가)
안동포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 안동	경북안동	3,800,000
1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 안동	중국(산동)	1,250,000
2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경남 남해	중국(사천)	835,000
3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중국	중국	475,000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2002년 한국의류 시험 연구원
Q마크 획득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 금물 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 02)2279-7450, 02)2275-8075, 02)747-1761 / FAX : 02)2272-6715

지역포교 본말사 스님 다 나섰다

은해사, 포교위원회 설치, 어린이 군부대 등 특성별 9개팀 가동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가 지역포교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은해사는 8월 10일 교구종회에서 모든 본말사 스님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포교에 뛰어들 수 있도록 포교위원회를 설치했다.

은해사 포교위원회(위원장 법타)는 홍보, 특수단체(교도소, 일반 사회단체), 어린이, 중고대학, 군부대, 공무원 일반신도, 경찰, 수림장팀 등 총 9개팀으로 구성되며 은해사의 모든 본 말사 스님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팀에 들어가 포교활동을 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팀별 활동계획 조만간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팀과 중고대학팀은 그간 중단되었던 어린이법회와 중고대학생법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경찰팀은 영천지역을 중심으로 하양 청송 등 은해사 관할 지역의 경찰서에 불자회를 조직하고 법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일반 신도팀은 각 말사에 일요가족법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무원팀은 경산시청 공무원불자회와 인근지역 공무원 불자회 결성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6월 말부터 시범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군부대팀은 그 활동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포교위원회의 활동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은해사 관할지역 군부대는 신령 공군통신부대와 청통 야전공병단, 하양육군통합병원 등 모두 11곳. 두 달 전 은해사가 군포교 현황을 조사할 당시만 해도 매주 법사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는 군부대가 거의 없을 정도였으나 지금은 11개 군부대마다 전담 스님이 정해져 있어 매주 법회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배지선 기자

영천 소방서 은해사에 소방차 기증

조계종 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가 소방차를 보유하게 됐다. 경북지방 소방방재청 영천소방서(서장 강찬영)가 소방차량 1대(5t)를 기증한 것. 이로써 귀중한 불교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은해사는 화재발생시 기증받은 소방차와 연계해 화재를 조기에 진화함으로써 전통사찰 보존과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8월 18일 은해사에서 거행된 소방차량 기증식에서는 소방차량 양여계약서가 체결되고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영천소방서 관계관의 교육이 이어졌다.

배지선 기자

동판대장경 불사 '절반 규모'로 축소

해인사, 사찰봉안용 1질만 … 천도법회는 사경 병행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그동안 추진해 온 '동판팔만대장경 간행사업'과 '1029일 천도법회'의 방향을 새롭게 세웠다.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해 온 '동판팔만대장경 간행사업'은 일부 수정하고 2001년 9월부터 2차에 걸쳐 이어온 1029일 천도법회는 계속 봉행하되 고승초청법회를 통한 수행의 장이 되도록 하기로 했다.

해인사는 애초에 동판 팔만대장경(약9만판) 두질을 제작해 한 질은 해인사에 보관하고, 한 질은 북한에 보낼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이를 보류하고 해인사 봉안용 1질을 간행하는 데만 전력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불사동참금액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동판 대장경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에게 증정해 온 기념경판도 품위 있는 동참 증서(증서에는 동참번호와, 해당목판번호와 사진, 경판원문과 해제, 동참자 이름 등이 수록)로 대체하기로 했다.

해인사는 현재 목판 팔만대장경의 보존을 위해 대중들의 장경판전 출입을 연차적으로 통제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런 방침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도 동판대장경의 간행을 서둘러야 한다.

팔만대장경 보존국장 남일 스님은 "문화재는 직접 만지고 체험하면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데 동판 팔만대장경이 간행되면 누구나 만져보고 인경체험도 할 수 있게 된다"며 동판대장경 간행사업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해인사는 최근 열린 임회를 통해 1029일 천도법회를 계속 봉행하기로 함에 따라 2차 1029일 천도법회를 회향하는 8월 28일에 다시 2009년 6월 22일까지 이어지는 3차 1029일 천도법회를 입재한다.

해인사는 "49재를 21번 지내는 1029일 천도법회는 평소 천도재를 지내기 어려운 불자들에게 천도재를 통해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회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49재 회향일마다 큰스님들의 초청 법문을 들으며 지혜의 완성을 위한 수행의 장이 되고 해인사의 정례화된 중심법회로 자리 잡았다"며 1029일 천도법회를 계속 봉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10회전부터는 법보종찰의 의미를 담아 사경과 독경을 병행하며 신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제2차 1029일 천도법회회향일이며 3차 법회 입제일인 8월 28일 오전 9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대적광전에서 법문한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탄허 스님 유지계승 휘호대회

월정사(주지 정념)는 탄허 스님 선서 함양과 유지계승을 위한 '제2회 전국휘호대회'를 10월 2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열기로 하고 9월 1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학생 및 일반일을 대상으로 한글 한문 문인화 가운데 불교를 주제로 자유롭게 문재를 겨룬다. 참가 희망자는 9월 1~25일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sa.org)와 우편을 통해 참가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입상작은 10월 중순 월정사 경내에 전시된다. 033)333-6667

조용수 기자

대구시 신도회 등 19개 단체 실무자 모임 열어



동화사 포교국장 선용스님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신도회, 맑고 향기롭게 모임, 자비의 전화 등 19개 신도 신행단체 실무자들이 8월 17일 보현사 대구불교대학에서 두 번째 불교단체 실무자모임을 가졌다.

지역불교 신도단체 실무자들은 이날 회의해서 짝수 달 둘째 주 월요일 7시 보현사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9월 23일 오후 4시부터 24일까지 동화사 말사 종무원을 포함한 신도 신행 불교 단체 실무자 연수를 동화사에서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각 단체별 형황보고와 기타 토의가 이어졌다.

신도 신행단체실무자들이 모여 연수를 갖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동화사 포교국장 선용스님은 "실무자들이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숙지할 수 있고, 행사 프로그램 기획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찾아가는 연극놀이 워크숍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은 9월 2일과 3일 양일간 복지관 강당에서 '찾아가는 연극놀이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과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리는 워크숍은 연극놀이에 대한 이해 감각을 통한 극적 체험 유도, 창조적인 움직임과 몸짓 표현, 상황과 역할에 적합한 말하기와 행동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능하다. (054)776-7522

배지선 기자

참좋은어린이집 9월 6일 개원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 복지재단 부설 참좋은어린이집이 오는 9월 6일에 개원된다.

영남불교대학은 원아 80명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을 먼저 개원하고 2007학년도 신학기에 6개 학급 규모의 참 좋은 유치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최첨단 방송스튜디오와 특별활동실 등으로 꾸며져 있고, 옥상에는 어린이들의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자연생태공원과 수영장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053) 474-8228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김 재 원

(사)영남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이순의 나이에 매월 40여명의 지역 불자들과 함께 불교문화유적 답사 길에 오르는 이가 있다. 영남불교문화연구원 김재원 원장이다.

김 원장은 영남대학교 대학원과정에서 한국중세사(통일신라부터 고려말까지)를 전공하고, 한국중세 사원의 창·중건과 불상 탑 부조등의 영조물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재야사학자로 한국중세사학회와 한국 동서철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원장은 1988년부터 약15년 간 영남일보가 주최하는 영남문화유적답사팀을 이끌었던 인물로 유명하다. 1998년에는 1년 동안 영남일보에 '김재원의 불상이야기'를 연재하고, 2003년 4월부터 1년 간은 대구불교방송에서 '우리지역불교문화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성주가 고향인 김 원장은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시절 선석사를 자주 갔다. 그리고 일본인이 한국에서 없어진 서원(書院)을 연구한 것을 보고 한국에서 사라진 사찰의 흔적을 일본인이 먼저 찾기 전에 먼저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처음부터 사학을 공부하진 않았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던 김 원장은 사회에서 조형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영남대학교 김윤곤 교수(한국중세사학회 설립, 목판팔만대장경을 만든 각수 연구로 유명하다)의 권유로 한국중세사를 전공하게 됐다. 도량형 원기(현종 때 조대비가 친정조카에게 준 자)가 일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없이 일본을 방문한 끝에 겨우 그림을 그려올 수 있었던 김윤곤 교수는 조형관련 업을 하고 있던 김 원장에게 의뢰해

도량형 원기를 실물과 똑같이 만들었다. 당시 조형물에 관심이 많았던 김 원장은 갓바위 부처님을 유심히 살펴 약사여래가 아님을 밝히는 기고문을 일간지에 게재하기도 했는데 김교수가 이런 그의 재능을 높이 샀던 것이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희열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 숨겨진 역사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하는 김 원장의 얼굴엔 무한한 충만감이 가득하다.

김 원장은 "불교문화유적을 사랑하면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고 말한다. 그리고 "유적 유물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과거의 삶이 튀어나와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박제된 유적 속에서 과거의 삶과 살아있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꺼내 보여준다.

"내 이야기를 듣고 대중들이 불교문화유적을 사랑의 눈으로 받아들일 때 더없는 보람을 느낀다"는 김 원장은 지난해 6월 불 복장연구를 하는 선진스님과 사단법인 영남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했다.

평소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은 김 원장은 학문이 전문가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재야사학자로 영남문화유적답사팀 이끌기도
조상경 연구서 · 답사기행문 책으로 만들계획

김 원장은 연구차원에서 매주 토요일 연구원들과 함께 <조상경>(조선후기 용허 스님의 주도로 지탁 스님이 찬집한 책)을 번역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의 협조로 유점사본, 능가사본, 김용사본, 필사본을 구해 비교검토하고 있는데 최근 부산에 더 오래된 <조상경>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조만간 꼭 구해 연구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내년 봄까지 <조상경> 연구서를 책으로 엮을 예정이다. 또 불교문화보급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매월 40여명의 불자들과 불교문화유적답사를 다니며 2년에 한번 골로 답사기행문도 만들 계획이다. 또, 차후에는 사경, 명상, 역사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 불자들의 수행공간으로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생각이다.

지난해 영남불교문화원을 설립한 이후 동화사 대웅전 복장물 봉안에 동참하면서 가장 보람됐다는 김 원장은 "불교인구의 저변확대와 불교를 원론적으로 알리는데 약간의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公 告

대한불교 불입종 종헌 제10조의 종정추대법과 종법 제3조에 의거하여 제3차 임시종회에서 제3대종정에 부산 금강암 조실법우당 면철 종법사를 추대 하였기 이에 공고함.

불기2550(2006)년 8월 16일

충북 제천시 청전동 86-4번지 전화 : 043)653-4800.0999

대 한 불 교 불 입 종

- 총 무 원 장 : 경 암
- 원로원 의장 : 정 관

의 원 : 혜경.우성.묘성.성해.인전.
호 법 원 장 : 만호
중앙종회 의 장 : 월정
의 원 : 지철.지학.법진.혜광.상운.효운.법륜.인수.선률.법천.
현각.해월.혜련.연화.석운.성원.원덕.청정화.대덕화.자비심.

公 告

불교재산 관리법 폐지이후 현재까지 19년간 대한불교 불입종에서 사용하고있는 종정직인.총무원장직인.사인.종단계인 등 일체의 종단관련 인장 외에 새로새긴 인장은 모두가 사용불가한 인장임을 자이 공고함.

불기2550년 7월 20일

충북 제천시 청전동 86-4번지
전화 : 043)653-4800.0999

대한불교불입종
총무원장 경암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청법가 · 사홍서원
· 찬양합니다 · 법문 · 산회가
· 반야심경 정근 · 기타찬불가
· 입정 · 발원 및 축원

● 기초교리
1. 불교란? 12. 삼업
2. 부처란? 13. 삼학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4. 신도오계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5. 사성제
5. 사찰경내 예법 16. 사섭법
6. 합장과 반배 17. 십이인연
7. 고두례 18. 육바라밀
8. 예불문 19. 팔정도
9. 삼보 20. 보왕삼매론
10. 삼귀의
11. 삼법인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탄허 · 서옹 스님 禪詩비
제주 법화사에 건립


8월 11일 제주 법화사에서 열린 서옹 스님의 선시비 제막식.

법륜상 · 해신 장보고상 등 세워

당대 최고의 석학이자 선승인 탄허, 서옹 스님의 시비가 제주에 건립됐다.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는 8월 11~12일 양일간 경내에 법륜상, 해신 장보고상, 탄허 · 서옹대종사 선시비, 소암 현중화 휘호비를 건립하고 이를 기념하는 연꽃축제를 개최했다.

11일 열린 제막식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과 백양사 주지 두백, 관음사 주지 용주 스님 등 사암 스님과 이영두 서귀포 시장, 김문경 장보고연구회장, 불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수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일찍이 서옹 스님은 '제주도를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으로 세계평화의 섬이 될 것이다'고 예견하셨다"며 "제주불자와 시민들도 큰 스님들의 시비를 가슴에 새겨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시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983년 탄허 스님이 시를 짓고 소암 선생이 글씨를 써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법화사 중창불사의 토대가 됐다"고 회고하고, "제주와 인연 있는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비를 제막한다"고 말했다.

이날 낙성한 선시비는 3~6m의 커다란 돌로 탄허, 서옹 스님이 법화사를 방문해 직접 쓴 시를 새겼다.

법화사는 12일까지 열린 연꽃축제 기간 동안 구품연지 일대에서 연꽃그리기 대회, 불교작품 소장전 및 서각전, 가훈 써주기, 연꽃 차와 음식 시음, 연꽃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한편 법화사는 27년 전 시몽 스님이 복원중창을 발원, 2800여 평의 경내지를 3만 평으로 확장하고, 17년에 걸친 발굴과 6차례의 학술대회를 거쳐 대웅전, 구품연지, 구화루, 백련당 등을 복원했다.

제주/글 · 사진=이준엽 기자

금산사 미륵전 보살상 복원불사

장마로 등판 일부 손괴



국보 62호 금산사 미륵전에 봉안된 미륵보살상 복원을 위한 불사가 시작됐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8월 13일 미륵전에서 '법화림, 대묘상 보살상 복원을 위한 참회 천일기도'에 들어갔다.

이날 입재식에는 지역 사암 스님과 김완주 전북 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 등 지역 기관장과 김백호 전북신도회장, 불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국내 최대 소조불인 미륵삼존불이 400여년의 세월이 흐른 이즈음 손괴되고 있어 복원하고자 한다"며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금산사 미륵전 보살상 복원불사는 도자기 굽는 점토, 국내산 삼베에 옻칠 과정을 거쳐 3년 후 회향한다.

한편 미륵전 삼존불 가운데 좌보처 법화림보살은 장마가 한창이던 지난 7월 17일 어깨등판 일부분이 무너져내리는 피해를 입었다.

김제=이준엽 기자

호국관음사, 정암스님 초청법회



육군 31사단 군법당인 호국관음사(주지 정윤성)는 8월 13일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 초청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정암 스님은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에게 좋은 말과 얼굴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자비실천 불자상 세우자' 대불련 총동문대회 개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성기태)는 8월 12~13일 양일간 김제 금산사에서 '2006, 대불련 총동문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대불련 깃발아래, 함께 뛰는 자비실천'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동문과 가족 400여명이 참석했다.

첫날 입재식에서 성기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불련 창립 43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불자상을 세우기 위해 자비실천연대를 발족하자"고 제안하고 전주시와 김제시에 독거노인을 위한 자비의 쌀 40kg을 전달했다.

이번 대회기간 중에는 108염주 만들기, 산사음악회, 어린이 숲속불교학교가 열렸고, 월주 스님(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자비와 실천행), 박세일 교수(대한민국의 선진화, 국가비전과 전략)의 특강도 펼쳐졌다.

이준엽 기자

무등산 풍경소리 창립 4주년 기념 음반 발간



매달 보름달 뜨는 날이면 증심사 앞마당에서 생명과 환경을 이야기하는 음악회 '무등산 풍경소리'가 4주년을 맞아 기념음반을 냈다.

8월 12일 45회 공연에 앞서 발간한 기념음반 '풍경소리'(사진)에는 '더불어 숲'(전경옥), '우리가 어느 별에서'(안치환) '무등아리랑'(이미랑, 임형선) 등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16곡의 노래와 연주곡이 담겼다.

또한 음반에는 그동안 풍경소리에 출연한 박남준, 박원순, 황대권씨 등 시인, 시민운동가와 임의진 목사, 도법 스님 등 종교인들의 대화가 음악과 함께 수록되어있다.

이번 음반발간을 주관한 증심사 주지 진화 스님은 "종교와 승속을 떠나 풍경소리를 통해 무등등한 세계를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원봉문도회 9월 21일 산사음악회

원봉문도회는 8월 16일 청주 무심정사에서 회의를 열고 9월 21일 청주 보현사에서 지장전 불사 회향을 기념하는 산사음악회를 열기로 했다.

음악회는 본사 대전충북지사와 청주불교방송 공동 주관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명예술단의 대북 공연과 불자가수들의 공연으로 준비된다. 앞서 원봉문도회는 청주 무심정사에서 미륵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지상중계 – 원각사 재가논강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❶보시바라밀

호남 최초의 재가논강이 8월 11일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 대웅전에서 시작됐다. 삼복염천속에 진행된 첫 번째 논강에는 200여명의 불자가 참석해 2시간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토론에 참여했다.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9월 22일까지(매주 금요일 오후7시) 계속되는 이번 논강은 지역의 재가불자가 논주와 토론자로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보시,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지계 등 육바라밀을 소주제로 진행되는 재가논강을 6회에 걸쳐 요약한다.

첫번째 '보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응철(중앙승가대) 교수는 "보시는 타인에게 자비심으로 베푸는 일체의 행위로 복덕과 지혜를 갖추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다"고 규정했다.

특히 "불교에서의 보시는 보시하는 시자(施者), 시물(施物), 받는 수자(受者)가 모두 청정[三輪淸淨]해야 하며 시자의 마음가짐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는 집착이 없이 하는 무주상 보시"를 제시했다.

또한 "도리에 벗어난 방법으로 구한물건, 중생을 어지럽게 하거나, 괴롭히고, 해치며, 깨끗한 마음을 깨뜨리는 물건은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지역에는 최초로 8월 11일 광주 원각사에서 재가논강이 열렸다.

사찰, 복지 활성화해 사회환원 場돼야
물질보시와 함께 무재칠시 실천을

김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보시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자원봉사 활동으로 제도화, 체계화되고있다"며 "불교사회복지에서도 보시 바라밀 사상의 실천방법을 현대사회에서 적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불교사회복지로 "물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방법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같은 정신을 잘 제시하는 것이 무재칠시"라고 주장했다.

무재칠시는 반드시 재시를 하지 않고도 보시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일곱가지 방법으로 안시(眼施: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화안열색시(和顔悅色施: 자비롭고 미소 띤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언사시(言辭施: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신시(身施: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심시(心施: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상좌시(床座施: 다른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방사시(房舍施: 사람을 방에 재워주거나 숙소를 제공하는 것)가 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보시바라밀의 실천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기 위한 실천행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초석을 놓는 것이 된다. 보시 바라밀의 주체는 불자이지만 그 장은 사찰이 되어 그것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사찰의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해지면 개인의 보시바라밀도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된다. 보시 바라밀은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아 현대에 적합하게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토론 요약

▲보시를 하면 해탈 할 수 있는가?

– 해탈로 가는 것이 수행이고, 삼독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볼 때 보시행은 마음의 때를 벗어버리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수행이며 해탈로 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

▲타종교는 십일조로 재정을 충족하고 있다. 포교와 가람 수호를 위해 재가불자가 신행활동하면서 보시를 할 때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재적사찰의 물적토대는 신도들의 시주로 운영 되어야 떳떳하고 힘이 있다. 대안으로 일정 부분 보시를 서원하고 일년동안 나눠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직접 보시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시주할 수 있도록 화주 하자.

정리 · 사진=이준엽 기자

다음주 재가논강- '정진'
일시 : 8월 25일 오후 7시
논주 : 이호근 법사
장소 : 광주 원각사 법당(062-223-3168)

3년과정
불교한문학과 신입생 모집

1. 개설취지
한문은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고전과 한문 불교경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한문의 적용과 한문의 독해력 배양이 필수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되는 중국어의 기본인 한문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2. 교과목
⊙불교한문학과(3년과정) ※정규반.통신반

교과목	· 초발심자경문 · 육조단경 · 한학연구입문 · 한자학원론 · 어순으로 푸는 한문해석 · 설문해자 · 중국고전① · 중국고전② · 한국고전① · 불교경전① · 불교경전② · 대장경과 역경사
지 도	· 심재동교수(동국대) · 심경호교수(고려대) · 김형중(동대부고 교법사) · 무진장스님

3. 개강일시
2006년 9월 7일(목) 오후7시
※특전:3년과정 수료후 연합포교사 응시

장례지도사 양성
불교장례문화학과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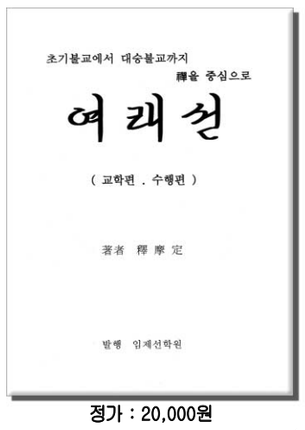
1. 교과목

과 정	과 목
1 년	· 장례학개론 · 법의학 · 상장례민속학/역사 · 장묘관련법규 · 종교와 불교 · 장사법위주 · 실습 · 실습
2 년	· 공중보건학 · 시신위생처리및 관리학 · 장례식장경영론 · 현행장묘제도의제반적고찰 · 생활과 풍수 · 불교정토학 · 실습 · 실습
지 도	· 김미혜교수

2. 개강일시 2006년 9월 5일(화) 오후7시
※특전:2년과정 수료후 불교장례지도사 수여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여래선(如來禪)지도자 과정 입학안내



정가 : 20,000원

공부는 세세생생 하는 것이요, 부처님 교설의 본지(本旨)를 잘 알지 못하면 불지(佛智)에 들기는 요원하고 수행은 더욱 어려우며 진리의 왜곡과 헛된 망상에 끄달려 지옥문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본원의 불교 특강은 2기 개강을 앞두고 불교의 핵심 교학인 여래선의 지도자 과정과 공사상의 특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의 교학편과 수행편을 마스터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도제 양성을 위한 유연 도반을 모시고자 합니다.

◆ 개강 : 2006년 9월 18일 오후 2시 ◆ 접수 : 9월 12일한
◆ 대상 : 스님, 일반인 ◆ 학기 : 2학기
◆ 특전 : 1. 한.중.대만 3개국 인정 여래선 지도자(禪師) 자격증 수여
2. 수료후 선원개원 하실 분 행정 및 실기지원.

◀여래선 지도자(禪師)과정▶

개강일시	교과목	내 용	교 수	수강료
2006년 9월 18일	1교시 여래선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석마정 스님	1,2학기 전60만원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법회일엔 화요일	2교시 공사상(특강)	용수보살의 공사상을 중심으로	동국대 문의식 박사	
	유식학	우편 통신생	동국대 오형근 박사	교재포함 40만원

수강료 입금통장 : 국민은행 547201-01-139081 임제선학원

공익법인 한국불교임제선학원
서울 중랑구 망우3동 120-7 문의 02)496-3952-3

제3회 부다피아 하와이 영어 · 문화 체험 캠프 현장

영어에 자신감 생겼어요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 불리는 하와이. 그 하와이에서 불자 자녀를 위한 제3회 부다피아 여름 영어 · 문화체험 캠프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여명의 불자 자녀들은 7월27일부터 8월17일까지 21박22일간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다. 3주간의 어학문화체험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의 모습에서 영어회화에 대한 자신감이 배어나왔다. 참가자들은 "현지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어 너무 기뻤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매일 오전 하와이 무량사 교육원에서 열린 원어민 교사의 '영어 학교'. 부다피아 영어캠프 체험단원들은 영어로 말하며 수업에 참가했다. 또 하와이 진주만 추모공원을 방문(왼쪽 사진) 하는 등 역사현장을 탐방하며 각종 체험도 했다.

"알로하~!"

현대불교신문 어린이 청소년문화체험단(이하 체험단) 10여명이 하와이에 도착한 7월 27일. 한국에서는 폭우로 연일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하와이 하늘은 거짓말처럼 쾌청했다.

매년 영어캠프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의 신도들이 공항에 나와 직접 레이(꽃목걸이)를 걸어주며 하와이 식으로 인사를 건넨다.

이들 체험단은 무량사 일요법회에 참석해 하와이 교포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는 것으로 입제식을 시작했다. 법회에서 도현 스님은 "하와이에서의 생활을 통해 생생한 문화를 '날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대 1 프리토킹방식 수업 진행
물건사며 현지인들과 대화

영어 직접 써보니 재밌네!

7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영어공부가 시작됐다. 무량사 문화원 1층에 마련된 어학실에서 진행된 영어학교는, 영어난이도에 따라 반을 나누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초 · 중등반을 나누지 않은 대신 1:1 프리토킹 시간을 늘리는 방식의 수업으로 진행됐다.

그간 학교공부를 통해 머릿속에 있던 문장들을 충분히 시험해볼 기회를 부여받은 중학생들은, 깜짝 놀랄 만큼 영어를 줄줄 쏟아냈다.

평소 과묵하던 우승이(16)는 "아는 영어단어를 말해보라"는 브라이언 선생님(하와이주립대 박사과정)의 말에 연거푸 단어를 말해 "대다수의 미국인들도 알지 못하는 단어를 알고 있다"는 칭찬을 받았고, 수업시간에 곧잘 발표를 한 정진이(15)도 데니 선생님(하와이주립대 박사과정)에게 "독창적이고 신선한 발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이들을 가르친 원어민 교사들은 한결같이 "한국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생각보다 높아 놀랍다"라고 평하면서도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는 듯 보여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이번 캠프의 목표"라고 말했다.

체험단은 선생님과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고 현지인들과 영어로 대화도 해봤다. 하와이 주립대를 방문해 교실에서 수업을 들으며 미국대학의 교육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는 등의 현장학습도 했다.

영어학교 총책임자인 하와이 주립대 스피치커뮤니케이션과 김민선 교수는 매일 한 시간씩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미국문화강의'를 실시했다.

원어민 교사의 수업 후에는 아이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 예습과 복습을 진행했다. 영어공부에 새로운 재미를 붙인 민길이(14)는 "영어선생님들이 정말 좋다"며 "한 단어 더 공부하면 내일 한 마디 더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까 재미가 생긴다"고 부지런히 공부를 했다.

3주 동안 이들은 현지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배우기 힘든 표현들을 익히게 됐고, 옆에서 누가 재채기를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도 알게 됐다.

매일 한시간 '미국문화강의'
美 대학교육 시스템 체험도

진주만 등 역사현장 둘러보고 훌라춤도 관람

에메랄드 빛 바다, 쾌청한 산들바람, 비온 뒤 선명하게 떠오르는 무지개 등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 안겨 생활한 체험단은, 새로운 세계를 보고 겪으며 마음이 활짝 열렸다. 매일 오후 인근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와이키키 해변의 새하얀 모래밭에서 선탠을 즐기거나 야자수 그늘에서 휴식을 취했다.

제주도에서 온 창현이(11)는 물 만난 고기처럼 남태평양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며 "제주도에는 해파리가 많고 파도가 거센데 이곳은 물이 더 맑고 수영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활짝 웃었다.

여가 시간에는 하와이플랜테이션, 미국 국립묘지 펀치볼, 이올라니 궁전을 관람하며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폴리네시안 민속촌에서 우쿨레레의 선율에 잠겨 하와이의 훌라춤과 불춤도 관람했다.

진주만 추모기념관에서 2차 세계대전 관련 다큐멘터리를 감상한 나라(11)는, "일본은 정말 나쁜 것 같다. 유관순 언니가 생각나서 더욱 숙연해진다"며 속 깊은 생각을 털어 놓기도 했다.

순식간에 캠프 일정이 훌쩍 지나가 돌아가는 날인 8월 17일. 누구보다도 친해진 10여명의 아이들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다.

생생한 영어를 체험한 아이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 자신 있어요." "머릿속에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3주가 짧게 느껴져요."

미국 하와이/글 · 사진=이은비 기자



우리지역 군법당 힘껏 도와야죠

일산보현가족 10년째 매월 2차례 후원 · 방문

'지역 군법당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모토아래 10년 넘게 군법당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 일산 신도시 입주 당시 처음으로 이웃이 된 불자들끼리 가족법회를 보자며 설립한 일산보현가족이 바로 그 주인공.

서울 도선사, 안국선원, 남양주 봉선사 등에서 신행생활을 하다가 일산으로 이주해 마땅한 신행 사찰을 찾지 못했던 일심명 보살 등 10여 불자 가족들이 모여 1993년 처음으로 모임을 갖고 가족법회를 봉행했다. 보현보살의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모임 이름도 '일산보현가족'이라고 명명했고 지역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하자고 뜻을 모으고 고양 지역에 군부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지역 군법당을 돕기에 나서게됐다.

일산보현가족은 현재 매월 둘째주 101여단 군법당과 매월 4째주 9사단 신병교육대를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 매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9사단 예하 52부대에서 장병들과 함께 연등을 만들며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있다. 또한 부대에 필요한 물품을 현물 지원을 하는 등 지역 군법당과 결연 이상의 꾸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은 일산 여래사, 정혜사 등 사찰이 건립되어 회원들이 서로 다른 사찰에서 신행 활동하고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해온 군법당 지원은 해를 거듭하면서 더 확대되고 있다.

일산보현가족 회장 이자비행보살은 "창단 멤버들이 벌써 70이 넘었고 지금은 4~50대 주부 불자들을 주축으로 가족법회를 보며 지역 군법당을 후원하고 있다"며 "빵, 과일, 음료수 등의 위문품을 갖고 매주 4째주 9사단 신병교육대에 방문하면 마치 아들을 만난 것같이 기쁘다"고 말했다.

일산보현가족은 군법당 지원 뿐만 아니라 불교 복지시설인 서울 상락원, 동국대학교 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여름 강원도의 수재를 돕기 위해 100만원을 모금해 기탁하기도 했다. 9사단 호국 백마사 이익수 군법사는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일산보현가족은 10년이 넘게 지역 군법당을 꾸준히 후원해오고 있다"며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장병들에게 어머니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장병불자들의 포교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계룡대 호국사서 예비군승 수련회



'2006 예비군승 하계수련회'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육군 계룡대 호국사에서 봉행됐다(사진). 향후 군법사로 임관될 예비 군승 50여명이 동참한 이번 수련회는 군포교 활동에 필요한 EGO-OK그램 교육, MMPI 심리검사, MBTI 심리검사, 선수행과 심리상담 등 상담 교육과 기초 의식 점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은 수련대회에 동참해 "군포교의 주역이 되기 위해 군법사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달라"며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당부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軍佛敎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심자!

군인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헌신, 봉사하는 나라의 간성입니다.
6.25 전쟁 때 목사, 신부는 군에 종군하여 선교활동하던것에 비해 불교는 뒤늦게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에 최초로 5명의 군승이 임관한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포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육해공군 397곳에 법당에서 136명의 현역 군승이 15만1천여 명의 장병불자와 함께 년간 1만 6천여회 법회를 실시하였으며 년간 200만 명이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년간 8만여명의 군장병에게 수계식을 거행하여 신심있고 굳건한 불자로 육성하여 부처님의 가피 속에 보람있는 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의 지원에 비해 군승이 불법을 홍포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존경하는 대덕 스님과 불자님!
저희 군불교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한국불교으 미래를 짊어질 젊은 군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군불교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萬人同參 후원금은

- 군장병 포교를 위한 교재, 용품, 서적 • 군장병 불자 수계식 용품(염주, 호신불 등)
- 군장병 위문, 방문, 선도활동에 필요한 위문품의 구입과 • 군승 활동을 위한 지원금품
- 군장병 신행도량(법당) 건립 • 군장병 가족 교화를 위한 교육관 건립 등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軍佛敎를 후원하시려면

- 만인동참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달에 일만원씩 후원하는 동참불사입니다.
- 더 많은 도움을 주신분은 설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사찰별로 년간 또는 월간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신행단체나 사회단체도 년간 또는 월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ARS 한통화는 군장병에게 초코파이 한통을 보낼 수 있습니다. (ARS 060-700-0108)

※만인동참이나 후원을 해주실 분은 군종교구로 연락주십시오.
※후원금을 보내실 분들은 은행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보내신 후 전화 주십시오.

1인 1만원 만인동참 후원

제일은행 325-20-203673 조흥은행 377-01-058158
우리은행 1005-580-051116 우체국 010025-01-010767
농협 094-01-156954 국민은행 477401-01-092896
지로번호 7681972 예금주 : 군종특별교구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원광사 內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FAX 02)796-0221 / 軍 900-7751
홈페이지 : www.gunbulkyo.org

대한불교조계종 군 종 특 별 교 구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지도자의 길이 멀고 험해도…”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지도인력 양성과정 입제 현장

출가자 75명 · 재가자 41명 ‘면학’
‘학문과의 연계’ 위해 학자들도 참가

간화선(看話禪). 화두(話頭)를 간(看)해 의심덩어리를 타파하고 본래 성품자리인 자성(自性)을 바로 보는 선법. 단박 깨침으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이 매력적인 공부법은 한국불교사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최근 ‘간화선의 위기’라는 말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계종이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과 교재 등을 개발해 왔지만 난제는 간화선 지도자 확보였다. 옛 선사들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 간화선은 스승의 올바른 지도 아래에서만 활짝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을 지도할 인력 양성과정이 최초로 열렸다.

8월 14일 충주 석종사에서 열린 입제식은 뜨거운 열기 그 자체였다. 작열하는 태양이 입제식 외부를 달궜다면, 내부는 비구 12명, 비구니 63명, 우바새 28명, 우바이 13명 등 총 116명의 동참대중이 뿜어내는 학구열로 후끈거렸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참석자가 부채를 부쳐가며 강의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참가자 가운데는 불광사 참선지도반을 운영하는 무각, 양산 내원사 주지 승혜, 청도 운문사 문수선원 선감 대훈 스님과 변희욱 서울대 철학과 강사, 이병수 경성대 수학과 교수, 황수경 동국대 선학과 강사, 진정순 前 국어교과서 편찬위원 등이 눈에 띈다.

변희욱씨는 간화선 연구 논문이 있으며, 황수경씨는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고, 이병수 교수는 ‘불교와 퍼지수학과의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 · 재가자 모두 간화선에 대한 상당한 이론과 실참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간화선을 대중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 초발심으로 되돌아갔다.

입제식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이제 이 시대 대중의 요구와 종단의 필요성에 맞춰 간화선 포교 인력을 양성해 참선 수행을 생활화하고 대중화해 마침내 세계에도 널리 알려나갈 때가 됐다”고 교육의 시작을 알렸다.

참석자들은 “간화선이 최상승 수행임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에 충실히 임하고 수행 정진하겠습니다”라는 서원문을 읽으며 부처님 전에 서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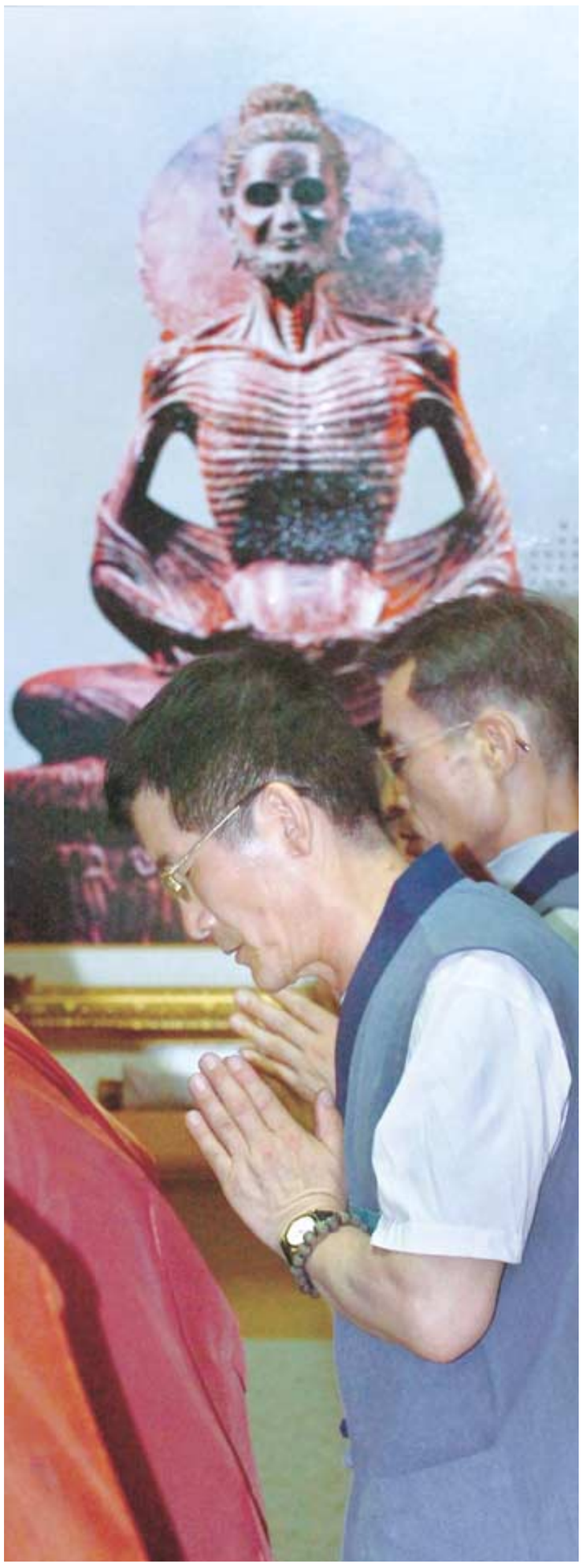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1주일 동안 강의와 문답 · 토론을 통해 간화선을 참구하는데 필요한 이론 공부를 한다. 올 11월 중 1주일간의 실참 과정을 한번 더 거치면 이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수 이후 이들에 대한 종단적 활용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혜국, 함주, 현산)는 8월 13일 예산 수덕사에서 회의를 열고 간화선을 지도하는 재가자에게 ‘선(禪)포교사’라는 명칭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침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재가자에게 어떠한 명칭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뒤 나온 것이다. 그러나 명칭을 부여하는 절차나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충주 석종사/글=남동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양성과정’ 입제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앞줄 왼쪽), 교수사 고우(앞줄 가운데),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앞줄 오른쪽) 스님 등 1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이 부처님 전에 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들은 올 11월 진행될 실참과정을 거친 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선포교사로 나서게 된다.

interview _____ 교수사 고우 스님

“선의 생활화 · 사회화 필요”



“간화선은 그동안 선방 위주로 진행돼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간화선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계종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지도인력 양성과정’ 교수사 고우 스님(각화사 선덕)은 ‘간화선 대중화’라는 단어로 이번 프로그램의 의의를 설명했다.

고우 스님은 ‘깨닫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간화선을 지도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원칙은 깨달은 사람이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간화선 대중화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도 달라졌습니다. 깨닫지 않은 사람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회화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수행은 ‘생활화’라고 한다면 남을 지도하는 것은 ‘사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우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감안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중화는 시대의 추세”이며 “대중화를 위해 부처님이 발견한 존재의 이유를 철저히 알고 출발할 때”라고 시대적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색 참가자들

일상언어로 간화선 ‘번역’ 할 계획

‘참선일기’ 저자 김홍근씨



“진리가 있다면 과연 그 진리가 무엇인지 실험해 보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참선일기〉로 유명한 김홍근 성천문화재단 고전아카데미 연구실장(금회 · 49)은 책으로 공부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실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여 년 동안 책으로 불교 공부한 것보다 2년 동안 실참에서 느낀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홍근 연구실장은 간화선 대중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으로 ‘언어’를 지목했다. 따라서 간화선을 ‘외국어’로 간주하며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이번의 체험도 붓다뉴스 커뮤니티 ‘김홍근의 참선일기(http://cafe.buddhapia.com/community/khg)’에서 고스란히 공개할 예정이다.

남은 삶 주력할 수행으로 선택

진주하 이종복 부부



“진리를 찾기 위해 도반으로 같이 공부해보고자 참여했습니다.”

이번 양성과정에 부부가 동참했다. 주인공은 남편인 진주하(환성 · 58)씨와 부인 이종복(연여 · 54)씨.

진주하씨는 2년 전 우연한 기회에 불교 공부를 시작한 뒤 “남은 삶은 여기에 주력하겠다”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국제포교사로 서울 봉은사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찰안내를 하고 있는 이종복씨는 “한국불교의 진수인 간화선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다.

남편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위에 간화선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부인은 “간화선을 실생활에 접목시키는데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달마 관음 지장
뒷면: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3호-그림: 30×40cm
달마 4호-그림: 40×50cm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바른 경영 고객 존중 팔정도서 배워”

배관성 패션밸리 청대문(구 프레야타운) 대표이사



최근 사찰경영이 관심을 모을 만큼 불교와 경영, 경제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1980년대 등장한 불교경제학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같은 시도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기업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성과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 CEO의 경영철학이 기업성공의 핵심요소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교를 체화하며 경영일선에서 활동하는 4인의 CEO로부터 불자로서의 자부심, 불교와 자기경영, 경영과 회향의 조화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등을 들어보았다.


북한산 도선사에서 만난 배관성 청대문 대표이사. CEO는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도 경영, 강한 업무추진력 ‘뚝심 CEO’로 통해
젊은 세대 위한 극장 개설 등 바른 안목 성공적
욕심 버리고 바르게 벌어 가치있게 쓸 것 강조

▷부처님법 근거한 직업관 중요

‘경영=불교’. 동떨어진 것만 같은 등식을 실현시킨 배관성(55 · 법명 보현) 패션밸리 청대문(프레야타운의 새 이름) 대표이사를 북한산 도선사에서 만났다. 도선사는 주지 혜자 스님과의 인연 때문에 배관성 대표이사가 자주 찾는 곳이다. 정도경영과 강한 업무추진력으로 동대문 상인들로부터 ‘뚝심 CEO’라는 평가를 받는다.

의류상권이 남대문에서 동대문으로 넘어간 1990년대, 동대문을 패션밸리로 변모시킨 장본인이기도 한 배관성 대표이사의 경영철학은 불교에서 기인했다. 청대문의 사훈 ‘바른 경영 고객 존중’도 팔정도의 정명(正命)을 현대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불교는 당당하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원동력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때마다 부처님법은 바른 판단과 밝은 지혜를 주었지요.”

배관성 대표이사는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버는 방법에 따라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

1998년 부도가 난 거평 프레야타운을 인수한 배관성 대표이사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22층 사옥의 임대사업을 비롯해 갖가지 사업을 벌여야 했다. 이 때 성인나이트클럽 등을 만들자는 제안이 수차례 있었지만, ‘바른 경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젊은 세대를 위한 극장을 개설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고 ‘바른 경영’은 큰 힘을 얻었다.

“돈을 벌고 쓰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불자들은 부처님법에 근거해 올바른 직업관과 경제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뱀과 젖소의 비유처럼 이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하심의 경영

‘얼마나 불교인답게 살고 있는가?’

불교를 삶의 지표로 삼는 배관성 대표이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할 때 항상 기준으로 삼는 잣대다. 하지만 혈기로 사회에 뛰어들었던 젊은 시절에는 무조건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삶의 목적을 돈에 둔 이 때는 참으로 불쌍한 시절이었다고 배관성 대표이사는 회고한다.

“남보다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교만하고 우월감에 젖어 살던 모습이 지금은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명예와 부가 영원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지요.”

불교는 그를 많이 바꾸어 놓았다. CEO라고 권위를 내세우는 법이 없다. 사찰에 가면 법당을 돌며 오체투지를 한다. 행여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선행에 앞장서고 상을 내세우지 않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칭찬한다.

불교가 배관성 대표이사에게 가슴으로 와 닿은 것은 10년전 능인불교대학을 다니면서부터다. 이후 새벽마다 능인선원에 나가 참회기도와 독경으로 자신을 추스르고 있다. 이런 신행은 이제 그의 삶과 경영으로 녹아들었다.

돈을 많이 벌면 죄 짓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불교계의 풍토는 불자CEO에게 적지않은 부담이다. 배관성 대표이사는 물질을 탐내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경전에 근거해 재가불자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글 · 사진=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배관성 대표이사는

1952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배관성 대표이사는 서울고시학원 원장, 성진흥업 대표이사, 프레야타운 임차인연합위원회 의장을 거쳐 프레야타운 대표이사에 올라 9년째 CEO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달 말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희담석 합장주 · 염주

희담석 합장주와 염주는 30년 경력의 장인이 희담석과 분청토를 섞어 만든 건강제품으로, 엄격한 성분 분석과 파동검사를 거친 재료만을 사용하여 섭씨 1300도의 가마에서 구워냈습니다. 희담석은 몸의 나쁜 기운을 머금었다가 몸에서 잠시 내려놓으면 그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 고유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가격 : 합장주 35,000원
염주 66,000원

분다의 경제학 (14)

‘보이지 않는 마음’

요즈음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약방의 감초처럼 쓰는 말이 시장(市場)이라는 말이다. 비록 경제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제에 대해 무엇인가 자신의 논리를 주장할 때는 예외 없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말에 근거를 둔다.

아무리 경제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이다가도 일단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토론장은 대개 정리가 된다. 시장의 논리라는 말을 먼저 쓰는 쪽이 토론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시장이란 무엇인가? 시장의 논리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기에 모든 경제 문제의 만병통치약으로 추앙받는 것인가?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되면 꼭 듣게 되는 이름이 있다. 아담 스미스란 영국 사람이다.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만들어 낸 장본인이다.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시장이다. 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득(得)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가장 비싸게 팔기 위하여 노력하고, 사려는 사람은 가장 싸게 사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기적인 과정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경제를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다.

시장의 논리란 자신이 팔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싼 값에 팔려고 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가장 싸게 사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의 논리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더 비싸게 팔고,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한다. 이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

팔려는 것을 비싸게 팔고, 사려는 것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윤리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시장의 논리 자체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

문제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아무렇게나 경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시장을 찬양하고, 경쟁의 미덕을 강조한 것도 실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도덕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은 도덕과 윤리를 던져 버린 이전투구(泥田鬪狗)와 다를 바가 없다. 자본주의의 핵심이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싶을 때 이 시장을 주된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정말 미워해야 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곡해시키는 올바르지 못한 경쟁이다. 최소한의 도덕이 상실된 시장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자본주의가 더 많은 칭송을 받고, 시장이 신뢰를 확보하려면 경쟁의 과정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경쟁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더 비싸게 팔고 더 싸게 사기 위한 시장 논리
경쟁에서는 최소한의 도덕적 믿음이 전제
이익 추구할 땐 바른 마음이 작용해야 행복

부처님께서도 경제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어떤 것을 바른 생활(正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法)답게 재물을 구하되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한다.”

부처님은 경제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원리로 법답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이를 자본주의 시장에 대입하면 올바른 경쟁을 통한 이익 추구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 여법(如法)하게 이루어지게 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없는 한 경제전문가들이 신봉하는 시장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가져오기는커녕 뺏어갈 것이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세로 88cm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번영의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

수 월 관 음 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함에 감탄을 한다. 험한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종징상과 대통령상, 한국불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판화지에 28도 판회와 베틀린 옥시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접촉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필라 불공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공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계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용 어 해 설

●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못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 (消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지갑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남성용중지갑 (검정)
여성용롱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몸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몸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공사에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잡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면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팔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면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범천명리학강의실

사업재법주	9월 1일(금) 낮2-5시첫강의
육 효	9월 4일 (월)낮2-5시첫강의
용신특강	9월 5일(화)낮2-5시첫강의
궁통보감	9월 6일(수)낮2-5시첫강의
기문둔갑	9월 7일(목)낮2-5시첫강의

* 첫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강의 합니다
* 각 과목 3개월(12주)에 확실히 책임완성지도

www.beumchun.com
02) 389-6597(연신내)

육임입문 출간기념

육임학 특강
■역학의 공식화, 쉬운 학습
■최고의 길흉적중율, 검증된 정확성
■강태공 · 제갈공명 애용 역학
고려육임학회
02)816-2115

기공지도자

전문과정
수련생모집
행자모집
대한불교전통기공협회
051) 852-2277
016-551-970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數(수)修理(수리) 사주팔자

• 천체의 이동에 따른 지축의 정립으로 인해 1년이 360일이 되며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니 기존의 달력이 새달력으로 바뀌며 周易(주역) 다음으로 제 3역인 교통(정역)으로 쓰인다. (일부김항선생의 정역편에서 발췌)
•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기본적) 숫자를 통한 특유의 접술로고..
• 숫자가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 교재) 수수리수인작법서 무료증 (시중에 절판된 책)
수강처 : 031)633-1517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눈

눈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노화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阿彌陀佛

축원문카드관리는 기본, 신도증발행 및 바코드 마그네틱카드사용가능, 전화걸기 기능, 이메일전송, 축원문카드내에 신도사진 첨부기능과 지속적인 무료업그레이드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31)746-1560
www.10879.com

범음범패 의식 해드립니다

점	천	수	예	바	사	각
안	도	륙	수	라		종
	재			나		의
식	49 재	재	재	비 춤	물	식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중국 고대 비방 침술

허리, 목디스크
(3회~5회) 신효함
접수비 50만원
010-2553-3306
도안선원052) 224-3306

방편비법전수

침술 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천도재.49재

일인스님 20만원
이인스님 40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해 드립니다
심승스님 합장
051) 627-7297

귀 수행환경 이대로 둘 것인가?

불자동참연대 회원모집
cafe.daum.net/Buddha0408com

천수 바리춤,오공양작법(나비춤)

(살풀이, 극락춤, 승무, 지전춤, 연화무)
여법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사찰의 모든 대소 행사를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정원빌딩
051)515-7865
019-502-8868
바라춤, 나비춤 수강생 모집 中

총무보살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9778-0408

평생 함께 하실 비구니스님,처사님 (60대이상),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태고종스님 환영)

극락사 납골당 공원
018-427-2256

사찰(女)사무원 (45세이하) 구합니다

041)673-3222

착하고 성실한 공양주 모심

▷조계종사찰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척과리
조용하고 경관이 좋음
017-544-5555

성인병 연근의학, 발효 연근환, 연근청국장 분말 주말회원, 공동숙식입산회원

불교신앙촌
043)743-0102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울산지역
010-4559-8682
052)243-388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 서울)
010-9478-9607

도심 근교 사찰 주지 겸 기도정진할 비구 스님 모십니다

053) 958-5209
011-831-6434

조용한 암자 사찰이나 운영이 어려운 사찰운영 맡기실 분, 노스님 시봉 가능함. 주지소임 원함. 어떤지역도 가능. 공양주함께 가능함.

▷비구승
016-454-040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02)356-1860

범음범패 의식 배우면서 부전 및 행자 모십니다

▷부산 40대
011-9317-6686

비구니기도스님 모십니다

031)533-2854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착하고 근면성실한 30세 남자 회사원입니다 불심이 가득하고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명랑한 동반자를 찾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054) 430-9466
010-2486-4200

부전스님 모십니다

(노스님도 좋습니다)
011-259-598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북한산성 위치
011-9350-3216

공양주 구합니다

▷나이: 60세 이상
노부부를 모십니다
강원도 평창 모사찰
02) 582-860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054)971-7561

사찰 공양주 구함

▷용인 소재 사찰
031)335-2576
011-270-2675

옛부터 나병환자도 치료하던 산자수명한 약사성지 화악산 약명골

* 행자(범음범패 및 불교 교학지도)
* 요양 및 기도하실 불자님 모십니다
055) 355-0027

부전스님 및 행자 희망하시는분 연락 바랍니다

(경기도 태고종 산중사찰임)
011-722-3418

공양주 구함

▷울산시내 조용한 사찰임
052)282-8793
011-9556-879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 고창
60세 이하
063)564-2861

종무행정 담당하실 보살님구합니다 공양주보살님구합니다

▷강원도 사찰
019-273-0950

포교당(급)안내

서울 강남 도심지 최고의 위치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중인 포교원으로서 주지스님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합니다
● 위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 시설:법당 50평, 방 2개, 주방 1개, 화장실 2, 삼존불, 후불관세음보살 50분 ,신중산신각, 나한존자 16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시설비 3500만
011-9269-8445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 010-8392-2557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사암 등록 환영합니다
-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사찰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 적극 환영합니다

총무원 행정실 ·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054)464-4725, 4735/010-7302-0077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화주이신 우악스님 성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도

태아영가천도

마음이 불안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분
태아영가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향 : 2006년 10월 28일 토요일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능엄신주 해석 독송기도
대학입시합격기도
입시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소원이 성취됩니다.
자녀교육문제
자녀탈선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사법 행정고시 각종 취업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 기도와 회향
매주 화요일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 님 동참환영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치매예방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氣주입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등 혈관계통질환 치료율 98.8% (호주,북한보고서)
MBC - TV (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쪼여주면 사향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www.10cho-unse.com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17평
- 요사 : 32평
- 부지 : 100평
- 가액 : 2억 6500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등기 및 실사용 평수 1000평
- 가액: 12억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80평
- 부지 : 650평
- 가액 : 3억 5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서울봉천동100평-4억5천
2.은평구포교당40평-월50
3.경기광주사찰850평-12억
4.여주사찰임대120평-2억
5.강원사찰물많음-5억5천
6.서울국유지무허가사찰多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호시장앞
- 건물: 평수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월 45만원.시설비 상담후결정 (절충가능).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
055)232-7151
011-599-847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토 굴 안 내
- 위치 : 진주시 대곡면 월아리
- 평수 : 178평
- 건물 2동
- 가액 : 1억

055)745-1083
017-587-7193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370평
- 법당: 20평 한옥
- 요사: 30평 한옥
- 가액: 2억 7천

- 위치: 대구근교
- 부지: 550평
- 법당: 15평 고찰
- 요사: 20평 산속
- 가액: 2억 1천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삼소 (구,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시 내당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아파트 주택가
- 40평 3층
- 주지실,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1-437-695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 2층건물 . 위치 좋음
- 법당 2층 28평, 요사채 1층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용왕당有,지하수 실내 화장실 2, 실외 2,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융자 4천 포함) 절충가능

011-226-2880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0-4699-938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의성군 안계면
- 평수: 대지 150평
- 건평 54평(3존불, 16나한)
- 가액: 보증금 650만원 (선세140포함)
시설비1,000만원(총1,650만원)

054)861-3014.861-3015
010-6374-0034

위치	부 지	가 액
• 부산	약 200평	5억
• 마산	약 100평	2억5천
• 서울	약 1000평	6억
• 충북	약 500평	2억
• 경기	약 1500평	6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인연을 맺고자합니다
- 경주 남산
- 보물 부처님 계신 사찰
- 기암 괴석 수 많이 있음
- 터 5만평 (샾 2만평)
- 요사채 공사 10억
- 온천개발 및 고시완료
- 지방도 접 35억

- 무학대사 기도도량
- 경북 포항시 죽장
- 터 2만평 요사채 등 10채
- 천하절경 계곡물 多
- 지방도 접 인연 중요시
- 불사 비용 20억

016-512-7777 / 016-502-4317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층), 산신당(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 건평 약 400평, 바지하방6(100평)
- 가액: 3억 5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포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근교
- 평수 : 목조 20평 요사채 43평
- 땅부지: 550평
- 가액 : 절충가능
- 용왕당, 산신각 모두 되 있음

010-2300-2209

포 교 당 안 내
- 위치:대전시 유성구(유성시장 내)
- 상가건물. 3층건물에 2층
- 법당 30평 시설완비 집기일체 무료로드림 몸만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200만원/월 25만원 시설비 500만원

042)823-3758
011-332-5299

사 찰 터 안 내
- 절터, 전원주택, 펜션 민박촌, 연수원, 기타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하리 224, 약 2000평 151-3 , 약 3000평
- 위치: 가조 온천(지산)와 (가천) 합천호 사이

016-831-3366
055)944-6636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
- 평수 : 1,100평
- 가액 : 9억 5천만원 (절충가능)
- 중부.경부고속도로 근접, 국도인접 요즘보기드문 명당자리 신행정수도 15분이내 근접지역

016-9558-0306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당진군 면천면 (아미산 최고의 명당)
- 평수: 10,000평 중 종교부지 600평 허가득
- 가액: 16억원
- 건물: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2동 국유지 600평 주차장 사용중
- 당진읍에서 10분거리 진입로 4미터 포장됨

연락 : 011-329-8412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황등면 소재지
- 국유지 550평, 사유지 300평
- 목조인법당 25평, 조립벽돌요사 33평
- 산신각, 문화재급약사여래석불
- 시내 5분거리, 포교도량으로 적합함
- 양도가 : 1억 7천 심심풀이 전화 금합니다

011-677-852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대동병원 옆 (지하철 동래역 2분거리)
- 평수: 15평
- 가액: 보증금 1200만원 월 23만원
- 시설비: 300만원

051)554-8163
010-4628-365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산자락)
- 전체평수 1,400평
- 건물 85평/ 임법당 심야전기, 일체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5억 5천만원

010-3941-0113
054)975-664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의정부 역 앞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 평수 60평, 법당30평 방3개, 거실, 화장실 샤워장, 옥상 사용
- 가액 : 2,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529-2541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1.2층)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6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사 찰 안 내
- 위치: 충청북도

청 주 시
임 법 당

010-4804-1847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창원역부근
- 삼존불 및 공양간 등 방 3개 완벽하게 조성
- 총평수: 50평

017-578-2815

토굴안내 (예경선원)
-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200평 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요사채 2동(18평, 11평)
- 시설: 예쁘고 완벽하게 갖추었음
- 가액: 1억 1000만원

011-9405-8186
043)733-8186

토 굴 안 내
- 위치: 남원시 주생면 남원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90평 90평은 텃밭으로 사용중
- 건물 3동, 방 4개, 후원, 창고, 화장실
- 가액: 4천만원

010-6401-4939
010-5631-8439

암 자 안 내
- 위치: 팔공산 갓바위 뒷길 경북 경산시 와촌면
- 대지: 약 224평, 건평 4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산신각 조경시설
- 가액: 2억 4천만원(조정가능)

011-529-7799
018-534-1777

사 찰 안 내
- 위치: 진주시 문산
- 산세수려한 곳
- 법당1, 방3개
- 전세, 매매 가능함

055)761-8998
011-870-6493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가까운 거리
- 목조 23평, 임법당, 황토방
- 대지 100평, 전 305평
- 가액: 1억 5천만원

041)753-8137
010-4202-3699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 1, 2층 건물 1층(살림집) 47평, 2층(법당) 47평 심야전기보일러설치되있음
- 가액: 전세 4천만원

010-7355-7388
016-294-0261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중산리 산세수려, 전망최고
- 평수 : 700평
- 대웅전,요사채,산신각(목조), 나한전, 용왕당, 미륵당, 스님치견실등 집기일체 완비
- 즉시법회 가능, 주차장완비
- 가액 : 4억5천(절충가능)

055)973-5054
011-863-0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동명
- 평수 : 385평 (대구에서 한시간)
- 기도장, 주방, 방 기타
- 산세수려, 미륵불기도도량 (아미타불부처님외 9위)
- 가액 : 7000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0-7710-7875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320평, 건물3동 있음
- 가액: 5천5백천만원 1년 월세 일시불 150만원(가)

※ 참선 기도처로 매우적합
※ 최고 명당터

010-7763-3575

사 찰 안 내
철학하시는 비구니스님 수행하시기 좋은 곳
- 위치: 경남 함안 (도로옆)
- 가액: 답사 후 결정

055) 583-7710

토 굴 안 내
- 위치: 진주시 대곡면 월아리
- 평수: 178평
- 건물 2동
- 가액: 1억

055)745-1083
017-587-719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
- 대지: 170평, 법당: 25평
- 요사 2동, 산신각, 주차시설 약 10대
- 사용평수: 약 1천평 부전스님 모심
- 가액: 4억원

010-8529-0863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충북 보은
- 법당, 요사채,용궁, 전답, 임야
- 경락 지압 침술 양봉기술 특기를 가지신 비구,비구니스님, 보살님 모십니다 청정수월 약사도량임
- 가액: 전세 2200만원

018-406-3073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내
- 대지: 98평
- 건물: 약 200평
- 주차공간 충분함
- 가액: 10억
- 엘리베이터 있는 4층 현대식건물임 필요하신 스님만 연락주세요

010-9550-8793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기장 -임법당
- 평수: 130평
- 법당 20평, 요사채, 방2, 거실, 주방
- 가액: 전세 3천5백만원(달세가능)
- 비품대 2천만원 답사후 절충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경관 좋음

018-575-840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 읍내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10평
- 대지 293평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30만원 즉시법회 가능

010-2538-0402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경관수려, 시내에서 걸어서 5분거리
- 대지: 100평 건평 3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천만원(시설완벽), 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1-333-3859
033)244-2534진황합장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포교당 2층
- 평수: 70평(법당 ,방 2칸, 부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신규 종단 등록 가능함

042) 531-0026~7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7473-5117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시 북구 구포 3동
- 법당 60평 (방 3개, 주방1) 기존 포교당 운영(비품일체 완비)
- 보증금 2천만원,월 50만원
- 시설비는 만나서 보고 절충

018-525-7758
053)981-4439

사 찰 안 내
- 위치: 정선군 인계부근
- 대웅전 20평(목조건물) 산신각 5평(목조건물) 요사채, 행랑채
- 평수: 총 2312평 산세수려하고 소슬용궁
- 가액: 3억 5천만원 (융자 4천 포함)

033)562-7054
011-9793-7052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 최요지
- 신축건물 4층 80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170만원 시설비 없음

011-9342-985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은평구 불광역 부근
- 평수: 3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4000만원
- 교통 편리하고 지하철 3분 버스 1분거리, 시설완비 누구나 오면 아늑하고 편안함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8676-6959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근방
- 대지: 약 500평
- 대웅전: 20평
- 산신각: 15평
- 요사: 50평

011-9516-536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홍천군 하오만리
- 법당16평, 요사채31평 산신각 5평
- 대지: 1025평(국유림포함)
- 가액: 3800만원

010-9551-1201
033)435-2993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1억9천5백만원

033)766-0057
011-471-1996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익산 근교
- 대지 : 130평 건평 : 1층, 요사 50평 2층 법당 30평 산신각 5평
- 교통편리,심야보일러
- 가액: 2억 7천

017-336-7523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에서 15분거리 큰도로변에서 5분 나주역까지 7분
- 대지: 400평
- 법당: 18평
- 요사채: 30평
- 가액: 1억2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6308-7320

포교당안내
스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포교원을 운영하실 원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서울 신림동 2층건물 중 2층
- 석가모니 관음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 1, 주방 1, 화장실, 약 30평
- 가액: 보증금, 시설비 5천만원 / 월 50만원
- 12년 포교하였고, 신도가 3백가구 넘으며 꼭 맡아서 포교하실 스님만 연락주세요

010-2304-222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당리동 혜원사
- 평수 : 2층 전체 170.80평방미터
- 방 4개, 공양실, 법당, 베란다 공간 넓음
- 삼존불과 산신, 용왕, 칠성, 탱화 봉안 되어 있음
- 보증금: 4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51)203-7896
010-7375-7896

별 장 안 내
- 위치: 팔공산 뒤 갓바위쪽
- 대지 200평, 건평 57평
- 웅장한 거실, 큰주방, 욕실 2개, 큰방2개, 보통방2개, 황토구들방 1개
- 좌우 산으로 둘러쌓여있고 정남향집, 못도 있음 한 마을에 4가구
- 가액: 1억 6천만원(조정가능)

053)853-2464
017-808-254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 평수: 대지 108평, 건평 35평
- 방2개, 원주실, 공양실, 임법당, 산신각, 마당, 창고, 아미타불, 관음 · 지장 보살, 산신탱화, 후불 및 신중탱화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모든 집기시설 완비 즉시 법회 가능

010-7160-1668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접성
- 대지 : 100평, 건평 : 20평
- 조립식주택, 건축2년. 주변 자연석 많음 작은창고1, 조경, 도로접, 전기수도, 수세식
- 저렴하게 구입가능(관리지역)
- 해발약500m 금수산옆. 마항산 중턱, 앞이 확트임, 조용한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최적합
- 가액 : 합 3,300만원

010-6460-1316

‘한국불교와 세계불교 대화 접점찾기’

언어 · 종교관 극복부터

2006 교수불자대회 현장



박성배 교수



이평래 교수



마성 스님



우희종 교수



국내외 불교학자 100명 참가 …논문 30편 발표

미래 불교문화 방향 정립 이론토대 마련 ‘성과’

▶언어 · 문화 차이 넘어 신뢰 쌓아야

“한국불교와 세계불교의 대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사고방식과 종교관의 차이입니다. 때문에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불교에 대한 역사적 개관이나 통계자료에 근거한 분석적 포교방법이 아닌 상대를 존경하는 신뢰의 마음과 참회와 서원의 노력일 것입니다”

‘한국불교와 세계불교와의 대화’를 주제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 2006 한국교수불자대회. 기조강연에 나선 뉴욕주립대 박성배 교수는 한국불교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존경과 신뢰 △참회와 서원 △무상(無常)과 무아(無我) △교리의 실천 △배타적 독선의 금지 등을 꼽았다.

충남대 이평래 교수와 동국대 정성준 교수도 논문 ‘한국 대중불교의 신앙 재조명’과 ‘한국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대화’를 통해 같은 맥락에서 한국불교의 신앙 형태와 미래상 구축을 위한 과제 제시와 방안을 모색했다.

이평래 교수는 논문을 통해 “기독교가 짧은 기간 동안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개념을 교회운영과 신도관리, 포교전략에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한국불교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력, 조직 운영체계, 자본주의에의 적응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문제해결방식 등을 도입해 다종교사회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종교성향에 부합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탐욕 · 성냄 · 어리석음, 삼독을 버려라’ ‘남을 헐뜯지 말라’ ‘나를 바꾸고 이웃을 사랑하라’ ‘재물과 진리를 널리 베풀라’ 등 현대사회에서 근본불교의 실천 강령을 제시했다.

동국대 강사 마성 스님은 ‘상좌불교와 대승불교의 삼보관 비교’란 논문을 통해 초기불교의 전통을 계승한 상좌불교와 부파불교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흥기한 대승불교의 차이점은 ‘신앙의 전개 형태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성 스님은 “상좌불교 국가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불자들은 기복적인 신앙에 매달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전불교’ ‘행동불교’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을 불확실한 현존에 대한 보호막으로 삼고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불행과 고난을 피해가고 이것을 자신의 종교 · 도덕적 행동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마성 스님은 또 “역사상 철학적 사상과 입장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그대로 전해 내려져 오는 일이 많듯 상좌불교와 대승불교의 전통 모두에 속하는 기본적인 골격은 불법승 삼보다”며 “대승불교의 신앙의 대상인 별상삼보와 상좌불교의 신앙 대상인 주지삼보는 ‘두 개의 신앙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불교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해결 방식 도입 시대적 과제

분과별 자유주제 발표에서 ‘생명조작에 대한 연기적 관점’이란 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과학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생명조작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과학적 지식에 대해 불교적 지혜가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우 교수는 논문을 통해 형질 전환으로 만들어진 돼지 장기가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됐을 경우라 하더라도 돼지 고유의 치명적 병원체는 미생물 특유의 환경적응력을 바탕으로 사람에게 적응해 전혀 새로운 질병 병원체로 변이해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우 교수는 또 “전 생명체의 관계를 인드라망으로 비유하면서 모든 것이 상의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이야 말로 환원론에 바탕을 둔 현대과학에 대하여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과 더불어 앞으로 과학의 연구방향 설정까지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서울대 소광섭 교수의 ‘불교적 관점에서 본 물리학의 패러다임 변화’ 일본 와세다대 마쯔모토 신수케 교수의 ‘신도 입장에서 본 일본불교’ 등의 논문도 주목받았다.

한국교수불자대회 김용표 회장은 “미국, 일본, 대만, 몽골, 태국 등의 교수불자 10여명을 포함해 국내외 불교학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불교 문화의 특성을 재발견하고 신행체계를 통한 현대적 불교신앙을 정립해 미래의 불교문화 방향 정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발간

문화유산발굴조사단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탁연)은 최근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보고서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사진)편을 발간했다.

이번 일제조사는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사찰소장 동산문화재를 총 10개년 계획(2002~2011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의 사찰을 대상으로 2005년도에 조사한 결과 보고서이다.

조사대상은 충청북도와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한 조계종 및 태고종을 비롯한 모든 종단의 사찰들을 포괄했으며, 지정 · 비지정문화재를 총망라했다. 유형별로는 불교조각 · 불교회화 · 불교공예를 비롯한 경판 · 전적 등 이동이 용이한 동산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도난과 현상변경이 가능한 석탑 및 승탑 등 석조문화재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지역 161개 사찰에서 1,332건 9,716점의 문화재와 광주광역시 36개 사찰 650건 675점의 문화재를 담고 있다. 또 전라남도 246개 사찰에서 7,504건 39,045점 등 총 443개 사찰 9,486건 49,436점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내용이 실려 있다.

한편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현재 강원 · 전북 · 전남 · 충북 · 충남 · 제주 지역 사찰에 대한 연도별 문화재 조사를 마친 상태며 2011년까지 서울 · 경기 · 부산 · 경남 · 경북 등지의 사찰 문화재 5만 6000천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칠 계획에 있다. **노병철 기자**sasiman@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0>

더위와 6시그마

더운 지방에서 ‘종교 천재’들이 많이 출현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부처님께서도 더운 인도에서 태어나셨고, 예수께서도 더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활동하셨다. 그리고 모하메드 역시 열사의 사막에서 메시아가 되었다. 아마, 더운 날씨가 인간에게 시련과 동시에 신성함을 주는지도 모른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본 사람은 더운 열사에서 종교적인 심볼을 만든 이집트인들의 종교적 정신과 과학적인 집념에 경이를 느낀다고 한다. 더운 날씨가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과 죽음에 노출되는 기회를 줌으로써, 인간을 종교적으로 만드는 모양이다.

반면에 모하메트는 식중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자기가 보지 않는 곳에서 잡은 고기는 결코 먹지 못하게 한 것을 보면, 더운 여름에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가진 것 같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수명 연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과학기술이 의학도 약학도 아닌 냉동기술, 상수도 기술이라고 한다. 깨끗한 물 그리고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냉동기술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킨 일등공신이다.

분자의 속도의 평균과 평균에 벗어나 있는 정도를 과학자들은 시그마라고 표현한다. 시그마가 크면, 퍼져 있는 정도가 큰 것이다. 키가 큰 사람이

더위는 분자 운동에 몸이 반응하는 인연작용

수명연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술 ‘냉동기술’

부처님 역시 더위와 장마 때문에 병고를 치른 적이 있다. 부처님은 대장장이 춘다가 공양한 돼지고기를 잡수시고 식중독으로 열반하셨다고 열반경은 기록하고 있다. 경전에 나오는 비구들의 식사 장면을 상상하면 수행이 방편으론 적당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건강에는 적당하지 않은 식사라고도 할 수 있다. 식사 때가 되면, 수천명의 비구들이 발우와 바리때를 가지고 사위성으로 들어간다. 음식을 빌 때는 결코 주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주는 대로 받는다. 또한 받는 음식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섞어서 먹는다. 여기에는 채식, 육식의 구분이 없었고, 상한 음식, 좋은 음식의 구분도 없었으리라. 음식에서 조차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배우는 데는 훌륭한 식사법이라고 하더라도, 건강을 고려하면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더운 지방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많은 만큼, 작은 사람도 많은 서양 사람들의 키 분포는 매우 시그마가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온도가 높은 분자는 바로 이 시그마가 큰 집단이며, 온도가 낮은 분자는 시그마가 작은 집단이다. 인간에 있어서도 천재는 시그마가 큰 집단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만큼 둔재도 많이 있기 마련이다.

더운 여름, 해변가나 계곡 생각이 날 때, 가끔 이 더위라고 하는 것조차도 공기 분자 분포의 크기에 의해서 내 몸이 반응하는 인연 작용임을 상기하도록 하자. 그리고 참기 힘든 식중독의 괴로움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슬퍼하지도 말고, 탄식하지 말라. 사랑하는 것과는 반드시 헤어지고 나는 것은 모두 사라지나니, 내가 죽은 뒤에도 불법을 스승으로 삼아서 방일(放逸)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설한 자비심을 느껴보도록 하자.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6년 8월 1일 부터 □ 입학일 : 9월 4일(월)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일주문



가사불사 동참금 1000만원 기탁

조계종 前 비구니회장 광우 스님은 8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가사불사 동참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수해복구성금 1500만원 전달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8월 10일, 사중의 행사불전금과 신도들의 정성을 모은 수해복구성금 1500만원을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했다.



대구 파라미타 제3대 총재 취임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8월 26일 오후 2시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대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제3대총재로 취임한다.



제19기 불교귀농학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8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양재동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제19기 불교귀농학교를 연다. (02)576-1886



설정 스님 회주 추대식 봉행

서울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은 8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설정 스님 회주 추대식을 봉행한다. (02)902-2663



망실재산 환수 공로 감사패 받아

前 서울 호압사 주지 원욱 스님은 8월 7일 중창불사 및 망실재산 환수 등의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승종 종도수련대법회

대승종 교육원장 도일 스님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승종 전 종도를 대상으로 충북 괴산군 다보수련원에서 종도수련대법회를 봉행한다. (02)951-1074



'불교와 상담' 워크숍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은 8월 26~27일 서울 봉은사 봉은선원에서 '제2회 불교와 상담 워크숍'을 개최한다. (02)737-7378



선덕사 부처님 봉불식

광주 선덕사 주지 행법 스님은 8월 22일 부처님 봉불식을 봉행한다. 부처님 봉안을 기념해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초청 강연도 열린다. (062)263-4660



국제소아정형외과학회서 강연

동국대 이석현 교수는 8월 25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국제 소아정형외과 학회에서 '선천성 고관절탈구의 치료'를 주제로 강연한다.

"포교·상담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

포교상담연구소 '…밝은 사람들' 개원한 박찬욱 소장

"상대의 고통을 파악하고 해탈의 길을 제시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은 그대로 탁월한 상담가의 삶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한 새로운 포교기법을 개발해 대중에게 다가갔으면 합니다."

최근 서울 종로구에 '우리 모두의 행복을 가꾸는 밝은 사람들' 포교상담연구소를 개소한 박찬욱 연구소장(사진)이 경전에 근거한 상담포교기법을 개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연구소장은 한국외국어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15년간 대한적십자사에 근무했으며 禪상담연구원 기획실장, 조계종 포교원 수행체계연구위원회 조사위원,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봉은사 포교연수팀장 등을 역임한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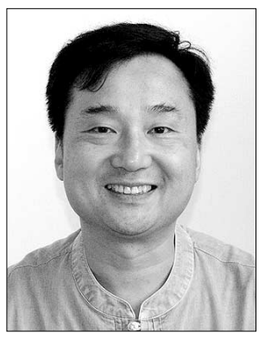
박 소장은 "웰빙운동이 공감을 얻는 등 우리사회가 '상생적 행복'을 추구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삶 속에서 주어지는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불교상담기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고 개소 이유를 전했다.

연구소는 이후 '불교와 상담'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응용불교학회와 연계해 포교방법론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또 불교계 기관·단체를 상대로 외부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하는 한편, 불교계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조직해 유기적으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박 소장은 불교와 심리학·상담심리학과의 상관성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상담심리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는 불교교리나 명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불교와 상담, 심리학의 연관성을 찾고 불교적 상담기법을 정립하면 이들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이들에게 포교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기념 학술세미나 주제도 '불교와 학습이론, 그리고 불교상담'으로 잡았다. 9월 9일 오후 2시부터 동국대 다향관에서 열리는 개소기념 학술세미나에는 동국대 불교상담학과 교수이자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 산하 정신건강센터 선임임상심리학자인 김보경 교수가 불교상담에 대해 발표한다. 또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미산스님이 좌장역할을 하고 동국대 불교학과 박인성 교수와 덕성여대 심리학과 김정호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박 소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고 활발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학술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학술지를 편찬하는 등 공개적인 탁마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출·재가 강화 통해 사회활동 전개

태고종 울산교구 종무원장 취임 혜학 스님

"울산 교구 태고종 종도들의 화합에 진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승려 수련 및 신도교육을 통해 대 사회적 활동폭도 넓혀 나갈 것입니다."

8월 18일 망해사에서 열린 태고종 울산교구 종무원장 취임법회에서 신임 종무원장으로 취임한 혜학 스님(망해사 주지·사진)는 태고종 울산 종도들을 향해 이렇게 약속했다.

혜학 스님은 그동안 한국불교태고종 울산분원 교무부장과 울산교구 종회 부의장을 역임한 것을 비롯 울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등을 거쳐 울산 불교전반은 물론 울산 지역 종도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

'법화경 일승사상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저술한 스님은



번역서로 <법화사상>을 펴냈으며 '늘 깨어 있는 삶을 위하여'를 저술 문서포교에도 노력하고 있다.

스님은 "부족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연구해온 불교사상을 토대로 울산 지역 불교발전을 물론 태고종 종도들을 중심으로 대승불교 승가본연의 모습을 확립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마이 리더십 클럽' 개설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는 8월 16일 통합리더십 교육 '마이 리더십 클럽'을 개설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인류를 깨운 위대한 스승, 인간 붓다'라는 제목으로 부처님의 생을 다시 조명하는 것을 비롯, 동국대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 초펠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선다.

부산평화연대, 북 수재민 구호품 전달



부산불교평화연대(상임대표 황정)는 8월 16일 북녘 수재민 돕기 일환으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 구호품을 전달했다. 1억원에 상당하는 의류 1만여점은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9월께 조선불교도연맹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정 스님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태종 배구대회, 안동 해동사 우승



천태종은 8월 13일 충북 단양공설운동장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종도 1만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상월원각대조사기 쟁탈 전국청년회 배구대회'를 봉행했다. 배구를 비롯해 족구, 줄다리기 등이 진행된 이날 체육 행사에서는 안동 해동사가 우승을, 서울 삼룡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대불련, 백양사서 리더십캠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신보라)가 8월 10~16일 장성 백양사에서 2006년 대불련 리더십캠프 '길 위에서 도반을 만나다! 대화와 소통으로 나누는 삶'을 개최했다. 독서토론, '더불어 사는 삶'을 주제로 한 대학생 통일축전이 열렸으며 행사기간동안 3차 전국지부장단 회의도 함께 진행했다.

파라미타 청소년협 백두산 탐방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가 8월 4~9일 '아~! 민족의 줄기 백두산에 가자!'라는 주제로 고구려 유적지가 있는 중국 통화, 집안, 단동 일대를 순례했다. 30여명의 탐방단원은 백두산에 오르고, 집안시 조선족학교에 방문해 티셔츠와 모자를 전달하는 등 우리 역사를 바로 알기위한 탐방활동을 펼쳤다.

구미 금오사회복지관 신라문화 체험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어린이와 교사 60여명은 8월 12~13일 달빛신라역사기행에 참가하는 등 신라문화를 체험했다. 경주 신라문화원이 주최한 문화복지프로그램 '친구야 만나자 서라벌에서'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교과서 속의 신라 문화에 대한 현장학습 기회를 얻었다.

혜담지상 스님

"신통이니 묘용이니 무엇을 말하는가(神通幷妙用)?
물 긷고 나무 나르는 일 바로 그것인 것을(運水與搬柴)."



『방거사 어록 강설』

'중국의 유마거사'라고 불리는 방거사. 간화선의 주창자인 대혜 스님이 『서장(書狀)』에서 방거사의 임종게(臨終偈)를 극찬한 까닭은 무엇일까? 임제선의 정맥을 잇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불교에서 왜 1,200년 동안 『방거사 어록』을 한 번도 간행하지 못했을까?

방거사의 입멸 1,200주년을 2년 앞둔 2006년, 강설을 맡은 혜담지상 스님은 『방거사 어록』을 통해 방거사와 당시의 선풍이 우리시대와 한국불교사에 올바로 조명되기를 바란다.

『방거사 어록 강설』은 오늘날 교계에서 일고 있는 간화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앞서 참선(參禪) 본래의 참구법으로 회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국판 양장본|328쪽 | 값 15,000원

● **혜담지상(慧潭至常) 스님**|1949년 경남 울산에서 출생,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득도하였으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해군 군종법사 대위로 전역,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선우도량 공동대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경기도 검단산 각화사 주지,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 조계종 재심호계위원 소임을 맡고 있다. 역저서에 『대품 마하반야바라밀경 상·하』, 『반야경의 신앙』, 『반야불교신행론』, 『신반야심경 강의』,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라』 등이 있다.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02)420-3200, http//www.bulkwang.org 불광출판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불자 세상보기

고 진 호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자기중심'의 위험한 미래

최근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이 한 · 중 · 일 3국의 중 · 고교 2학년과 대학생 29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일본청소년들이 '전쟁이 나면 싸우겠다'는 응답률은 41.1%인데 반해 한국은 10.2%로 가장 낮았다. 더구나 '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대답은 한국이 10.4%로 일본 2.3%와 중국 1.7%보다 월등히 높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나의 존재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 사는 삶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형식적 규범이나 제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사는 삶은 인간의 존립기반이며, 정치와 이념,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근본적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는 삶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고 있다. 관계성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존재는 나와 필연적 연관이 있으며, 그러한 다른 사람의 존재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간은 누구나 관계를 통해 살아가고 있고, 관계를 통해서 인격체로 성장해 갈 수 있다. 공동체내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역할의 의미도 실제로는 관계성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개인이 자녀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부모가 되기도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계성속에서 발생하며, 자식 없는 부모, 학생 없는 교사, 노동자 없는 고용주를 생각할 수 없는 것도 바로 관계성의 이치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의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부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 태도나 이기주의적 가치관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자각의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청소년들의 태도나 가치관을 문제 삼기 이전에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행태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대사회는 과거 다른 사람의 협동과 역할 분담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노동과 레저 등과 같은 모든 일상사들이 이제는 얼마든지 나 홀로서도 가능하다는 오도된 의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는 더불어 사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만 나눌 수 있는 모든 인간적 가치를 물질로 환원, 대체, 구입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잉태케 했다.

가정에서조차 생활의 모든 우선순위가 자녀인 청소년들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고, 학교에서 또한 청소년들에게 협동 보다는 경쟁을, 내실보다는 성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과 더불어 사는 삶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실로 공허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교육의 실천은 이제 단순히 학교교육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청이 되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교육은 너로 인해 내가 잘 되고, 나로 인해 너도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윈 윈 게임(WIN-WIN GAME)'을 위한 삶의 전략이자 지혜를 배우는 장이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이 흔히 개인의 존재성보다는 사회 혹은 공동체만이 강조되는 삶의 형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더불어 사는 삶은 개인의 존재성이 함몰되는 아니라, 개개인간의 관계성이 강조되는 삶을 지향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계성에 대한 자각이 선행된다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 또한 증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서 관계성에 대한 자각은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논강' 열기 전국으로 …

근년에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주로 서울 지역에서 이루어지던 재가논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 원각사에서는 8월 11일부터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오는 9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열띤 논강이 열린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형태의 법회에서 벗어나, 청중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불교를 역동적인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신선하다.

또한 부산의 현대불교연구원에서는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재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강 형식의 논강을 통해 불교의 다양한 사상을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풀어낼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불교대학 및 불교관련 학회의 꾸준한 발전,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토론문화의 활성화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문답을 통한 대화'의 교화 방식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뜻 깊은 재가논강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선 참여대중의 문제다. 우리는 대개 어떤 행사든 가급적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논강의 성격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너무나 많은 대중이 참여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본다.

참여대중을 선별하여 적정한 규모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논강에서 주고받은 내용들은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하여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논주와 강사가 많을 경우, 불교의 특정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주들끼리 먼저 토론을 하여 어느 정도 의견 조정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봄직하다. 아무튼 지방의 재가논강 소식이 기복불교의 흐름을 지식불교의 흐름으로 바꾸어 불교의 진면목을 회복하고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박경준(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부끄러운 세계1위

욕심은 불이나 칼이나 독이므로 쾌락을 구해서는 안된다. 온갖 욕심은 마치 불이 맹렬히 타는 것 같다. 〈정법염처경〉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달리 1등에 집착한다. 1등이라는 가치를 높이 사기에 뭐든지 1등만 하면 다 해결된다.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 자녀들의 학업성적이 1등이라고 하면 아마 아이가 뭘 요구해도 다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등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 같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인간의 욕망은 물거품 허깨비 야생마 물 속에 비친 달 꿈 뜬구름처럼 덧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세계 1위가 되고자 연연하는 것도 결국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휴대폰 시장 성장률, PDP 생산 보급, 조선사업, 반도체 메모리 D램 시장점유율, 디지털기회지수(DOI:Digital Opportunity Index), 대한민국 전자정부, 국제항공수송실적, 온라인게임 등으로 자랑스러운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있는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자살증가율, 항생제 남용, 성인 남성 흡연율, 제왕절개, 낙태율, 해외입양, 이혼증가율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1위 기록들이 남아있다.

최근 미국의 인구조회국이 발표한 2006년 세계인구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1명으로 대만과 함께 세계 최고의 저출산국가로 기록되기도 했다.

인간의 욕망은 그 적정선을 모른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측면이건 부정적인 측면이건 욕망의 부산물은 여러 방면으로 생활에 직격탄을 날린다.

"욕망은 애착에 의해 생겨나며 우리의 생활은 그 욕망에 기초해 행해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자. 1위도 좋지만 그 전에 공생하며 사는 삶 · 화합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다. 이제 부끄러운 세계 1위의 오명은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

■강지연(취재부 기자)

제언 어린이 청소년 법회 활성화를 위해

요즘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어린이와 청소년포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새싹불자들의 육성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포교방법과 운영상의 묘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당장 '독화살을 뽑는 작업'에는 소홀한 점이 보이는 것 같다.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현장에서 법회활동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찰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 역시 타종교에 비해 불교계의 청소년 포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나마 오랜 세월 어린이와 청소년 법회를 진행해온 재가불자들이 있었기에 이나마 유지된 것이 아닌가 싶다.

혹자는 법회를 맡아 운영할 만한 간사가 없다거나, 아이들이 없어서 법회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교사 양성 보다 시급한 것이 사찰 주지스님들의 어린이 · 청소년법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라는데 고개를 끄덕인다.

법회를 운영할 원력을 세운 주지스님이 있다면 그 절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주지스님의 의지가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고 이끌어나가는데 있어 단연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역삼동에 있는 보리사 주지스님으로부터 어린이법회를 만들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포교사단 어린이팀은 흔쾌히 응낙을 하고 아이들을 모집하기 위해 절 부근 초등학교를 몇 차례 찾아가서 홍보물과 과자를 나누어주며 아이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냈다.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이법회를 만들려는 의도를 찬찬히 설명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곳임을 정성껏 설명했다.

결국 보리사 어린이법회는 창립됐다. 창립제가 열리던 날, 예상 밖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 들었다. 주지스님과 우리 포교사들의 기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다.

진정으로 어린 불자들을 포교하고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정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간사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주지스님의 원력과 신도들의 관심, 법사와 간사들의 재능과 노력이 전부 필요하다.

주위에서 찾아보면 준비된 인재들이 많다. 중앙승가대 보육교사 과정을 이수한 이들도 많고, 계절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지도자연수회를 이수한 이들도 있다. 현재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능력자들을 찾아서 현장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는 일이다.

새싹불자 육성의 방법을 각 사찰 법회로 국한해서는 안된다. 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 수업시간(CA)과 대학 불교학생회도 효과적인 포교수단이다. 또한 병원 마다 법당을 설치하여 입원환자나 외래환자들을 위한 어린이 · 청소년 쉼터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우리 불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이미 타 종교인들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우리 젊은 불자들이 마음 놓고 부처님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만큼이나 있을까? 아이들은 학교에서조차 '불자'라는 말을 제대로 못한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몇 해 전 한 불교여성단체에서 각종 프로그램과 연간계획표를 작성해 여러 사찰을 찾아다니며 놀이방 시설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다. 반응은 냉담했다. 가는 곳마다 재정상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것이 불교계의 현실이다.

자라나는 새싹 불자들을 키워야 미래 불교를 장담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데도 대부분의 사찰들은 당장의 현안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이제라도 각 사찰마다 놀이방 시설을 갖추고 어린시절부터 부처님을 접하며 자랄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또한 어린이불자 지도자들이 포교현장에서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남숙 (조계종 포교사 · 불교여성개발원 상임위원)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분양안내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에 위치한 금선사 여래선원은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구니 스님의 수행처를 성황리에 분양합니다.

경주시내, 동국대병원, 경부고속철도, 고속버스 5분거리, 교통의 요지이자 편안한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개별 단독(난방) 축열식 심야온돌 · 온수 등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수행처를 제공합니다.

성황리 분양중

제3차 여래선원 보현동 분양내역

(1차 금선선원 30세대, 2차 여래선원 문수동 24세대 완전분양 완료되었음)

- 28평형 - 2세대
- 22.2평형 - 6세대
- 18평형 - 6세대
- 14평형 - 8세대

총 22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8월 30일까지 완납시에는 360만원으로 할인 분양함)

※ 먼저 분양금 내신 스님 방부터 모델하우스를 꾸밀 계획이오니 뜻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께서는 연락하여 주십시오.

찾아오시는 길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 문의전화 : 054)772-7171 / 011-538-3879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

한국불교, 아프리카엔 없다?

경기도 광주 '우리절' 주지였던 동봉 스님이 10년간 혼신을 다해 일군 '우리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스님에게 넘기고,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다. 최근 일시 귀국한 동봉 스님은 아프리카에서 겪은 포교 체험담을 본지에 보내왔다. 스님은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산자락 마랑구에서 현지인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다. <편집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봉 스님(맨 오른쪽). 사진제공=김민아

"굶주리고 핍박받는 땅이기에 부처님 가르침 더욱 필요"

동봉 스님의 아프리카 포교기

지난 4월 중순경, 킬리만자로 산자락. 한국불교인으로서는 최초로 구입한 마랑구의 법당부지 풀밭에서 20대 중반의 몇몇 젊은이들이 내게 물었다.

"들은 바에 따르면 불교는 무신론이라면서요? 다시 말해서 신을 부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나는 젊은이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으며 '아프리카에도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이 있구나' 하면서 매우 대견스럽게 생각했다.

"불교는 무신론도 아니요 신을 부정하지도 않네. 다만 신을 말하지 않을 뿐이네. 그 대신 오직 인간(중생=부처)의 소중함만을 얘기하지."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종교가 신은 말하지 않고 오직 인간만을 얘기하느냐는 거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우선 결혼은 했는지, 자녀는 몇이나 두었는지를 되물었다. 그들은 모두 일찍이 결혼을 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비유를 들어가며 물었다.

"가령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큰 물이 범람한다고 치세. 그리하여 자네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하나님과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가 함께 큰물에 떠내려가며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면 자네들은 누구를 먼저 건지겠는가?"



킬리만자로 산자락에 위치한 마랑구 법당 부지의 한 나무 아래에서 동봉 스님과 아프리카인들이 좌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민아

그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참된 신앙인으로서 본다면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겠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부딪친다면, 글쎄요…. 아무래도 제 아들딸들을 먼저 건질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솔직한 대답이라 여겼다. 내가 말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을 말하지 않고, 다만 사람의 소중함만을 얘기하는 것이라네. 왜냐하면 사람이 곧 부처이고 하나님이라 보기 때문이지."

그들은 내 얘기를 듣고 나서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아직까지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와 같이 말한 적은 전혀 없었다면서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전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얘기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당신은 종교를 갖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어리둥절해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나 다 기독교든 무슬림이든 아니면 무속이든 반드시 그 어딘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종교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 보다 정확한 물음이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신을 믿고 신에 속한 종교로서 자기 내면에서 부처를 구하고 마음을 닦으며 사람을 으뜸으로 가르치는 불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다. 아니, 어쩌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즉 불교와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모든 종교로 얘기할 수 있다.

만일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신보다 우선하는 자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아프리카는 참으로 거대한 대륙이다. 이 지구상에서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다. 53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인구가 9억2400만 명이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10억 이상의 인구가 늘어 19억 9400만 명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서는 3초마다 한 사람씩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것도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부유하고 지위가 높고 많이 배워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의 교화도 포함하기는 하겠지만, 보다 큰 뜻은 헐벗고 가난하고 핍박 받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아주 미약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학이요 생명학이며 자연에 관한 학문이다.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생명은 왜 소중한 것이며 자연환경은 왜 잘 보존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넉넉하고 부유한 나라에도 보급되어야 겠지만 오히려 아프리카처럼 한없이 순수하면서 또한 한없이 가난한 나라에 더욱 필요한 종교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아프리카에 불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스리랑카불교사원을 비롯하여 미얀마, 태국, 중국불교사원 등이 있다. 한국불교로서는 최초로 한국사찰을 짓고 한국불교학교를 세우려고 준비하는 곳이 바로 동아프리카 탄자니아다. 탄자니아 수도 다렛살람에는 스리랑카불교사원이 시내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주로 명상과 쿵푸를 지도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잠재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데, 아프리카! 그토록 거대한 대륙에 적어도 2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가 아직까지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만 불광산사 · 남화대학 11월 방한

세미나 개최 · 불교시설 방문 예정

대만 불광산사와 불광산사가 운영하는 남화대학 관계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이 오는 11월 초 한국 · 대만불교문화교류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대만불교계의 이번 한국 방문은 지난 7월 불광산사의 초청으로 한국 · 대만불교문화교류회 관계자들이 불광산사와 남화대학을 방문해 상호 교류키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 대만불교문화교류회(회장 연정열)는 학술 세미나를 비롯해 한국의 사찰 및 각종 불교시설 방문 등 대만 방문단 측의 한국 일정 마련에 들어갔다.

한국 · 대만불교문화교류회는 양국불교 사상 연구 및 학술 ·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로, 올해 2월 한성대학교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김무생 진각종 교육원장, 이외윤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장,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연정열 상임회장과 공동대표 법명 스님(창녕 법성사 회주) 등 한국 측 인사와 이재방 주한대만대표부 대표와 서울 불광산사 주지 각사 스님을 비롯한 대만 측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었다.



7월 5일 대만 남화대학에서 열린 양국 관계자 간담회 모습.

연정열 한국 · 대만불교문화교류회장은 "불광산사와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한국불교를 대만에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불교국 스리랑카, 승려부족 '비상'

우리가 알고 있기로 스리랑카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불교도인 불교국가이다. 잘 알다시피, '불교국가'는 전 국민 중에서 차지하는 불교도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불법을 공부하며, 신도들에게서 보시를 받고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승가(僧伽)가 없으면 '불교국가'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까지 '불교국가'로 부르는 데 손색이 없었던 스리랑카에 비상이 걸렸다. 수백 년 동안 영국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도 '불교'를 버리지 않았던 스리랑카 국민들이 세계화 물결 속에 밀려들어오는 서구 자본과 기독교 세력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우리를 안타깝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승려 부족으로 스리랑카 불교계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

〈부디스트 채널(The Buddhist Channel)〉이 8월 11일 인용한 〈싱하리 뉴스(Sinhale News)〉에 따르면, "승려 부족 때문에 이미 350여 사찰이 문을 닫았으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스리랑카 불교 교단의 미래까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불기 255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2,550명에게 계를 주는 캠페인도 웨삭데이(Vesak Day)에 시작되었다.

독실한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에서 이처럼 승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통적인 대가족 체제가 무너지고 가족 규모가 작아지면서 많은 가정에서 출가시킬 아들이 부족하게 되었다. 둘째, 승단에 들어와서 재가 신도의 도움을 받아 고등 교육을 마친 스님들 중 상당수가 승복을 반납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공부를 마친 스님들이 좀 더 편안한 도시생활을 선호하게 되면서 시골에 위치한 사찰을 떠나고 승직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위치한 사찰들은 하루 하루를 간신히 연명하는 신도들이 스님들을 봉양하기 힘든 상황이라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지난 2001년에도 당시 수상이 어린이 2,000명을 모집해 승단에 들어가게 하려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미 알고 있는 성인을 모집해야지, 어린아이들을 출가시키면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고, 이런 비판에 대해 다시 "스리랑카에서 불교를 몰아내려는 음모일 뿐이다"는 강력한 반응이 나오기도 하였다.

어쨌든 이제는 이곳에도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쳐, 스님들도 전통 방식을 버리게 된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등교육 마친 스님들, 상당수 환속하고 도시로

여성 출가 불허 · 핵가족화 따른 아들 부족 탓

그렇다고 해서 스리랑카 불교계에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여러 이유를 들어 불허하였던 '여성 출가'를 인정하여 비구니 승가를 복원하면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이다.

'출산율 저하'와 '핵가족화' 경향, 그리고 불교 교육의 세속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겪게 될 것이다. 승려 부족 때문에 곳곳에서 사찰이 폐쇄되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스리랑카보다 더 심각한 '승려 부족' 사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런 사태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도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비구스님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비구니스님들의 입지와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50년이 채 되지 않아 스님들이 한 분도 없는 텅 빈 사찰이 늘어나 '추억 속의 건물'이 될지도 모른다. 승려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스리랑카 불교계 소식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 자유기고가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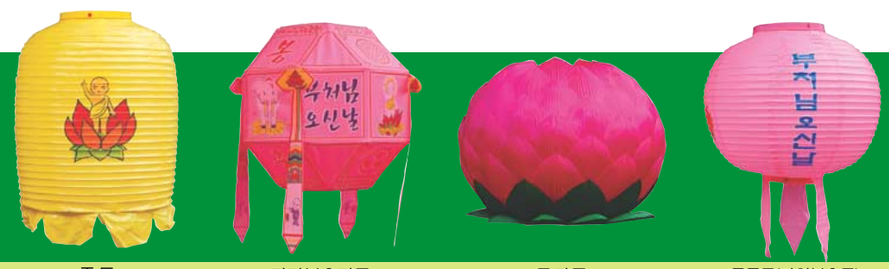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부모와 조상님께 등불을 밝힙시다

백중은 죽은 사람만 천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마음을 닦아서 목련존자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천도가 되면 돌아가신 부모도 다 건질 수가 있다는 삼세가 도는 법을 말하는 아주 뜻이 깊은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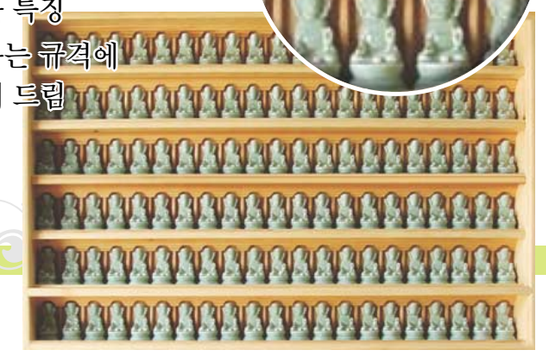


종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 인등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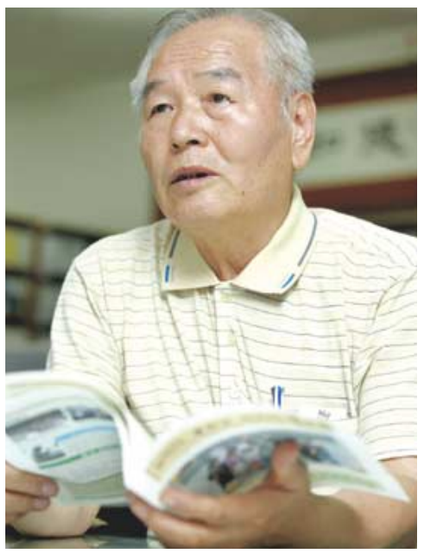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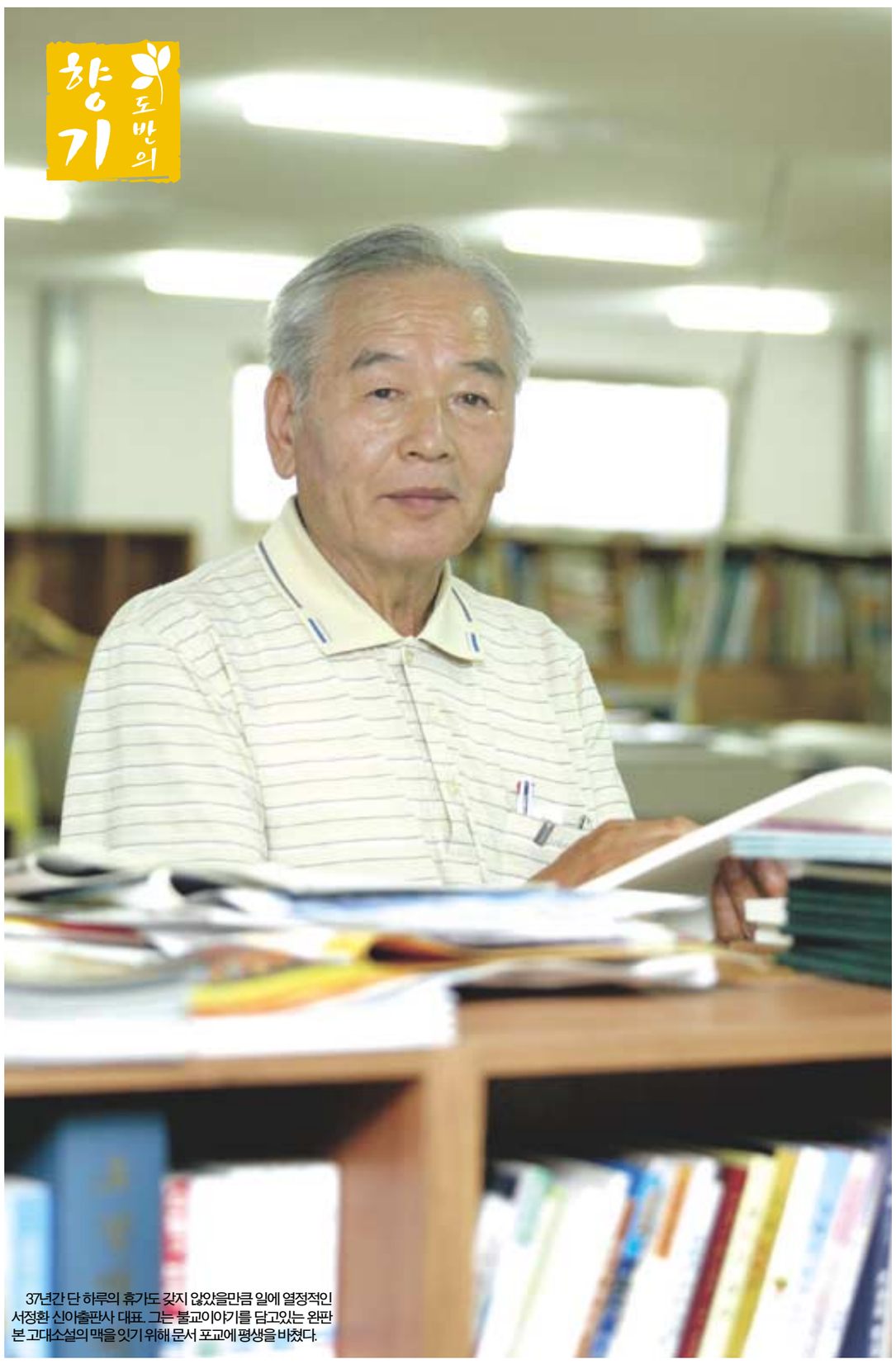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8월 23일 수요일 (주간) 제 592 호





37년간 단 하루의 휴가도 갖지 않았을만큼 일에 열정적인 서정환 신아출판사 대표. 그는 불교이야기를 담고있는 완판본 고대소설의 맥을 잇기 위해 문서 포교에 평생을 바쳤다.

모든 것 놓았는데 일만은…

신아출판사 서정환 대표

심청전 등 판소리 원형 전주지역서 발간
'완판본' 의 고향서 37년간 출판 외길 걸어
"고대소설은 불교사상 가득한 '퓨전 경전' "
출판박물관 세워 도서·인쇄기 등 전시가 꿈

조선후기(1700~1800년대)에 전라감영 전주에서 한글로 된 고대소설이 발간되어 전국에 유포되었다. 심청전, 춘향전, 토끼전 등 판소리의 원형이 그대로 책이 되어 나온 것이다.

이들 고대소설은 전주의 옛 이름을 따 '완판본(完版本)' 으로 불린다.

그로부터 300여년이 지난 오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완판본의 맥을 잇고자 발원한 이가 있다. 완판본이 발간되던 서포(동문, 다가동 일대)에서 37년째 출판 외길을 걷고 있는 신아출판사 서정환 대표(66 · 전북불교문학회장).

"고대 국문소설이 대부분 불교의 전생담에서 나온 불교 이야기이고, 불교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판본은 요즘 말로 '퓨전(fusion) 경전' 인 셈이죠"

전주에서 활동하는 출판인이라면 누구나 완판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 서 회장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서 회장은 애착이 더하다. 완판본은 전라도 사투리로 쓰여진 향토색 짙은 고대국문소설이면서,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言)은 아무리 반복해도 뜻을 놓치기 쉽지만, 글(書)은 수없이 생각하고 다듬어 쓰기에 읽을 때마다 다른 감동을 준다. 그러기에 출판인 서 회장은 문서포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굳이 경전을 출판하는 것만이 문서포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처님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이들이 쉽게 동화되는 것을 보아왔다.

서 회장이 운영하는 신아출판사는 그동안 서울 이남에서는 가장 많은 1300여종에 이르는 수십만 권의 책을 냈다. 소설, 시집, 에세이, 아동문학은 물론 대학교재, 미술, 사진 등 전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월간 소년문학, 격월간 수필과 비평, 계간 문예연구, 문예 등 4종에 이르는 잡지이다. 출판계에서 돈이 되지 않아 기피하는 것이 문예관련 잡지인데, 서 회장은 문학의 맥을 잇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열악한 지역출판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문학과 출판의 꽃을 피우는 씨앗이라는 생각으로 문예잡지를 통해 신예 작가 발굴과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살면서 만나는 장애를 피하지 말고 공부삼아 정진하라는 <보왕삼매론>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나 명예는 어느 정도 놓은 것 같은데 일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아출판사는 1970년 '신아문예사' 로 시작됐다. 부인 황의순 보살과 함께 5평 남짓한 공간에서 프린트와 등사기로 하는 인쇄업이었다. 사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1984년 신아출판사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출판을 했다.

집에서 시작한 출판사였기에 회사를 확장한다는 것은 집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직원이 퇴근해도 서 회장은 여전히 직원이다. 더구나 서 회장은 젊은시절 사업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차를 타지 못하는 특이 체질의 소유자가 되고 말았다. 자동차는 전혀 타지 못하고 오토바이에 의지해 다니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다보니 타지에서 결혼하는 자녀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지난 37년간 단 한번의 휴가도 없이 일했고, 집과 회사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듯 24시간 회사에서 생활하는 서 회장에게는 출판이 전부이다. 오로지 출판만을 생각하다보니 출판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항상 출판계에서 남들보다 5년은 앞서갔다. 지역에서는 최초로 컴퓨터 편집(1986년)을 하고, 컬러 고속 인쇄기 도입(1991년)과 필름과정 없이 직접 인쇄하는 CTP(2000년)로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서 회장은 40여명 가까운 직원들 가운데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 새로 나오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실무자보다 정보를 먼저 알고 도입하는가 하면, 인쇄실에서는 기계 박사로 통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출판인 양성교관이 되었고, 전주에서 활동하는 출판인의 70%가 신아출판사를 거쳐 갔다.

창업 동기이자 든든한 동반자였던 부인 황 보살이 3년 전 황망하게 먼저 가버렸다. 부인이 생각날 때면 <반야심경> <장엄독송집> 등 각종 경전과 '찬불가 모음집' '사경용지' 등을 가지고 인근 사찰을 찾곤 한다. 서 회장 부부는 불교교양대학을 다니며 누구보다 문서포교만은 열심히 하자고 다짐했던 도반이었다. 이제 반쪽의 몫까지 도맡아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출판인으로 일가견을 이룬 서 회장은 또 하나의 꿈이 있다. 출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출판 박물관을 세우는 것이다. 요즘들어 부쩍 창고를 찾아 고서적에서 현대에 이르는 출판물은 물론 인쇄 관련 기계를 다시금 손보는 이유이다.

전주/글=이준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달마의 氣

외출과 여행이 잦아지는 노출의 계절 여름!
그만큼 갖가지 나쁜 기운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제 달마의 기로 자칫 닥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미리 예방하세요!

www.shmall.net
2006 베스트브랜드 인기상품!

名家인터내셔날

고객상담전화 1588-3278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행운충전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무점포, 소자본으로 고소득 사업하실 분을 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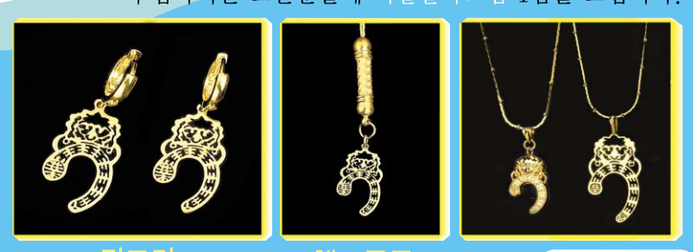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날 • 판매원 : (주)S.H상사

예부터 병귀(病鬼)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달마의 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걸이와 귀고리, 핸드폰 고리를 몸에 지니는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10호

호국불교효예종 법진스님 외
여러종단 스님들께서 추천한 인기 상품!!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달마의 氣 14K를
구입하시는 모든분들께 백팔달마그림 1점을 드립니다.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목걸이줄은 별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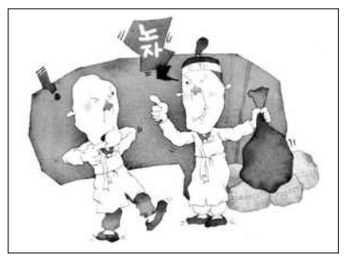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75> 무진거사 장상영(하)

유생일 때의 '무불론(無佛論)'을 짓고자 할 만큼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던 무진거사는 불법을 만난 이후 그 마음 씀씀이는 시원하게 툭 트였다. 더욱이 불교와 유교뿐만 아니라 도교까지도 평등하게 대하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배려했다. 거사로서 그리고 관료로서 모든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느 해 흉년이 크게 들었다. 도교(道敎)의 도사(道士)들까지 그가 불자인줄 알면서도 상대적으로 넉넉한 그의 집을 찾아와 양식을 보시해 주도록 부탁했다. 무진거사는 대뜸 그들에게 <금강경> 외울 것을 주문했다.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도 <금강경>을 외워야만 했다. 일부분만 외는 자에게는 쌀 한 말을 주고 전체를 외운 자에게는 석 섬 두 말의 쌀을 시주했다.



만약 여기까지라면 그 역시 아직까지도 또 다른 편협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염불보다는 잿밥으로 승부했다'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 시주조건으로 <금강경>을 읽도록 한 것은 반야와의 인연을 맺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후인들은 무진거사가 재물시주와 법시주 두 가지를 했다고 평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흉년이 들었으니 스님들 역시 보시를 청해왔다. 평소에는 법의 위력이 대단하지만 흉년에는 밥의 위력도 그 못지않다. 이후 출가자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노자>를 읽도록 권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알게 했다. 흉년이라는 시절인연을 이용해 불교는 도교를, 도교는 불교를 이해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남을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가르침이지만 서로 알게 되면 서로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중국전체의 안녕과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의 깊은 마음 씀씀이를 볼 수 있다.

무진거사는 대 문장가인지라 글 보시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결코 그냥 써주는 법이 없었다. 글을 주면서도 꼭 공부무게를 달아보고 써주었다. 담당문준(1061~1115) 선사가 입적하자 탑명(塔銘)을 무진거사에게 부탁하였다. 선사가 입적하고 난 뒤 다비를 하였는데 눈동자와 치아 몇 개는 그대로 있었다. 사리가 무수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를 기록하여 후학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심부름을 온 납자는 그 회상에 온지 2년밖에 안 된 24살의 젊은이였다. 그래도 심부름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초심자라고 봐줄 수는 없는 일이다. 선지(禪旨)에 무슨 세탑과 법탑이 필요한가. 물론 그를 통해 그 집안의 솜씨를 가늠하기 위함이다.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대답을 하면 탑명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돈 5관을 여비로 드리겠으니 발길을 돌려 다시 도솔사로 가서 참선이나 더 하십시오."

보시 청하는 도사에겐 '금강경' 외우라 주문
스님에겐 '노자' 읽도록 권유… 서로 알게 유도

"네! 물으시죠."

"듣자니 문준 노스님의 눈동자가 부셔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이오?"

"정말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 눈동자가 아니오."

"상공은 어떤 눈동자를 물었습니까?"

"금강(金剛)의 눈동자를 물었소."

"금강의 눈동자야 상공의 붓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늙은이가 그를 위해 광명을 찍어내 그것으로 천지를 비추라는 얘기군요."

그 젊은 납자는 뜨락으로 내려서며 말했다.

"스승께서는 참으로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상공의 탑명에 감사드립니다."

무진거사는 허락하면서 웃었다.

<유마경>과의 인연으로 조사의 도를 만났고 글 보시와 식량을 시주하면서도 늘 빠지지 않는 법에 대한 열정으로 송대(宋代)불교를 빛낸 거사라고 하겠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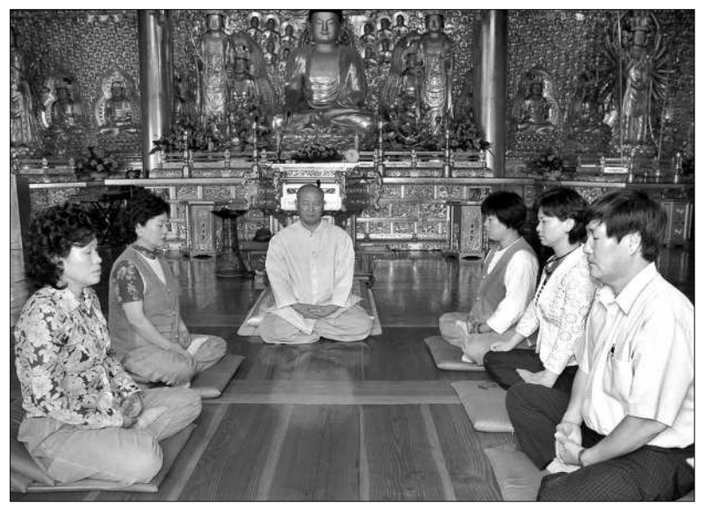
목적 불분명하면 기복에 빠질수도

'염불 응용 수행' 문제점은 없나

염불선, 염불절 수행을 하는 불자들이 적지 않고, 2004년에는 염불위빠사나가 국내에 소개됐다. 염불은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으로, 다른 수행법보다 접근하기 쉬워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 여기에 조사선 • 절수행 • 위빠사나가 접목된 것이 바로 염불선이고 염불절이고 염불위빠사나다.

하지만 염불을 응용한 이런 수행법들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수행자의 근기와 수행효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장점이 많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수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유사불교수행법을 양산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염불 응용 수행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문제점을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종합해본다.



염불응용 수행의 장 · 단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청원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과 신도들이 염불선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장점 있지만 신중해야

염불 응용 수행법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은 시대에 맞게 발전이 되고, 또 이들 수행으로 효과를 본다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수행 목적이나 형태와 과정 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종합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검토,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염불선을 지도하고 있는 청원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과 염불위빠사나를 지도하고 있는 김열권 법사, 그리고 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호 스님과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은 선과 염불과 절이 대표적인 불교의 수행법이고 위빠사나 역시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만큼 이들이 혼합된 수행형태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이들 수행법이 근기에 맞는 수행을 목적으로 생겨났고, 실제로 수행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산 스님과 종호 스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법이 시대와 환경에 의해 나왔고, 그 시대의 삶과 정신세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행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응용 수행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원칙 같은 것이 있으며, 소수에 의해 일시적으로 유행한다고 해서 정통수행법과 같은 수행법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염불 응용 수행의 경우 기복에 흐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통적이었다.

미산 스님은"정견과 연기적 가르침에 입각한 이론에 바탕을 두지 않는 응용 수행법은 경계해야 하며, 기복화되고 있는 염불수행이나 불교의 정견을 반영하지 않은 불교유사수행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덕산 스님도 "염불선의 경우 기복으로 흐르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며 수행목적과 과정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종호 스님은 "응용 수행법의 경우 '도달해야 할 목표'(깨달음인지, 안심인지, 조복인지 등의 궁극적 지향점)가 어디인지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하루아침에 어느 한 두 사람에 의해 정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숙고가 필요한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견 · 연기적 가르침에 바탕
수행 목적–과정 일치해야
염불의 근본 이해 못하면 독
중심 잃고 헤매는 사례 많아

▷무분별한 수행법 혼용은 '위험'

수행법 혼용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소수에 국한된 것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수행법의 혼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제주 원명선원 선원장 대효 스님과 양산 정토원 원장 정목 스님은 선이나 염불이나 절이나 정통수행법이기는 하지만 이들 수행법을 혼합한 형태의 응용수행은 이론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아 오류를 범하기 쉽고, 수행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염불 응용 수행법들이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염불수행의 장점과 선수행 · 절수행 ·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들이 합쳐진 형태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어느 한쪽에 집중하지 못하는 단점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두 스님은 이와 함께 수행현장에서 불자들을 지도한 경험을 예로 들며 "염불선 등 응용수행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헤매는 불자들을 적지 않게 보았다"며 응용 수행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대효 스님은 "참선을 지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화두를 입으로 반복하는 '송화두'나 화두를 생각 속에서 계속해 외는 '염화두' 수행을 참선과정에서 넣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화두를 의심하는 화두선 수행의 근본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염불 수행의 응용형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염불수행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다른 수행법과 혼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목 스님은 "간화선에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주로 염불선을 찾지만 염불의 근본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염불절과 염불위빠사나에 대해서도 "수단(수행형태)만 중요시한 채 근본(수행목적)을 무시하는 수행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수행법 자체 보다는 수행자의 근기를 살피면서 그 근기에 맞게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통수행법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입 종 공 고

빠르게 변모하는 사회상에 맞추어 불법을 효과적으로 포교하고 미륵부처님의
큰뜻인 용화세계를 구현할 뜻있는 스님들을 위해
본 종단의 문호를 개방하고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입종을 바랍니다

◆ 자 격 : 사미, 사미니계를 수계한 승려
◆ 지 역 : 전국 (타종단에서 체탈도첩된자 제외)
◆ 대 우 : ● 본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종단행정에 참여가능하며
각 지역별 교구원장으로 추천
● 사회복지사업을 희망하는 스님들에게 행정 지원(사회복지법인허가취득)
● 타 종단에서 수계한 법계인정
● 종단기구에 보직을 원하는 스님은 중앙종회 심사후 가능

행 자 모 집

한국불교미륵종은 불교의 선진화를 앞두고 불법포교와 종단행정의
발전을 위해 젊고 유능한 행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인 원 : 00명
◆ 학 력 : 고졸이상(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학력소지자)
◆ 나 이 : 40세이하
◆ 자 격 : 부처님 제자로써의 바른 마음가짐과 신체건강한 남여
◆ 특 전
● 6개월간 총무원 직할 사찰에서 승려 기본교육을 시행하며
합동수계식후 승려증발급
● 수계후 본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안거수행할수 있도록 주선

한국불교미륵종 연혁
1987년 10월 창 종
2000년 12월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설립인가 (문화관광부 제229호)
2002년 5월 홈페이지개설 www.mireuk.org
2004년 2월 제3세 운허당 연화대종사 종정취임
2005년 12월 사회복지법인 미륵원 설립허가취득 (보건복지부)

접수및 문의처
한국불교미륵종 총본산 관 음 정 사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번지
총무원 대표전화 055)345-4741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211-11번지
전화 02)351-3679

사단법인 한 국 불 교 미 륵 종 총무원장 윤 송정

“절이 게임보다 더 좋아요”

눈길끄는 사찰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들을 현혹하는 놀거리와 볼거리가 범람하는 시대, 어린이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찰들이 고심에 고심을 더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차별화에 성공한 사찰도 눈에 띈다. 어린이 불자의 흥미를 끌고 동참을 유도하는 ‘튀는’ 사찰들은 어디어디가 있을까.

풍물 · 영어회화 · 연극 · 다도 · 염색 · 요리 등
어린이 흥미 끌만한 다채로운 강좌 진행
경쟁에 익숙한 아이들의 심성 계발에 초점



서울 홍은동 금장사가 9월부터 운영하는 ‘보리 방과후 교실’에 참여할 지역 어린이들이 영어 연극을 보며 테스트를 받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 금장사, 다음달 방과후 교실 개원

“And sebastian was his name~♪” “와~ 왕자님이다. 왕자님 이름이 세바스찬이래.”

서울 **금장사**(주지 본각) 약사전 1층에 마련된 공부방. 2학기부터 시작될 원어민 교사의 영어교실 개원을 앞두고 아이들의 영어수준을 가늠하는 테스트가 열렸다.

아이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인형극에 빠져들어 선생님과 함께 영어로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친다. 이제 홍은동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이나 TV프로그램에 빠지는 대신 즐겁게 공부를 하며 방학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9월초부터 개원할 금장사 ‘보리 방과후 교실’에서 미리 공부를 시작한 지역아동들이다.

주지 본각 스님의 서원으로 세워진 ‘보리 방과후 공부방’은 사찰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공부방이다. 반 이름도 ‘문수’ ‘보현’반으로 지어 ‘문수보살의 지혜로운 마음과 보현보살처럼 착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배움터’가 되길 꿈꾸고 있다.

본각 스님은 ‘지역 주민들이 오고 싶어하는 편안한 공부방’이 되길 서원한다. 그래서 공부방도 보육비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교육비를 받지 않는다. 부모님이 일터에 있는 동안에도 걱정 없이 아이들을 맡기고 이들이 다양한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9월 초 개원식과 함께 열리는 방과후 공부방은 주중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과학, 체육, 국악, 풍물, 서예, 요가, 다도, 단소, 영어회화 등 다양한 특활프로그램과 전과목 교과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지도는 숙제를 도와주는 숙제지도와 선행학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02)395-0042


서울 법련사가 둘째 · 넷째주 운영하는 법련 축구 교실. 사진제공=법련사

 # 매주 토요일 ‘학원’으로 변신

포항 **죽림사**(주지 종문)는 어린이법회가 열리는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지역 아동들을 위한 ‘학원’으로 변신한다.

풍물반과 음악반, 영어회화반, 다도반, 서예반, 요가반, 호신술반 등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강좌가 열리기 때문이다. 1부 어린이법회가 끝난 뒤에는 자유롭게 이들 강좌에 참여할 수 있다. 수강료가 무료인 것은 물론이고, 지역 아동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아동들을 가르치는 특별강사들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교사진이다.

주지 종문 스님은 “2003년부터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해 무료강좌를 시작했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절에 맡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신도들과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053)247-4688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놀토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찰이다.

홍법사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하는 놀토 체험프로그램 ‘숲속의 놀토학교’는 영어연극, 과학, 원예, 독서토론, 종이접기, 염색, 요리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만한 다양한 교실로 인기를 끌었다.

2학기에는 피구, 축구, 농구, 선무도, 스포츠댄스 등의 체육교실과 동화구연교실도 새로 생기고 유아들을 위한 숲체험, 가을단풍채집, 발우공양, 템플스테이 등의 비정규 프로그램도 개설될 예정이다.

8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시작해 9월 9일부터 2학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51)500-0345

 # 영어도 익히고 연극도 하고

이외에도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심화해 ‘힘’을 준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들도 있다. 매년 운영하는 ‘영어교실’로 유명한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는 올해 영어교실과 연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올해 9월 10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운영될 ‘영어 뮤지컬과 영어 연극놀이를 통한 참나 찾기’가 바로 그것이다. 문화예술 전문교육기관인 ‘아트컴퍼니 교하’와 손잡고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뮤지컬과 연극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또 극본과 안무 등을 지도강사의 교육아래 참가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심성계발도 이루어지도록 ‘참나 찾기’에 초점을 맞췄다.

원혜 스님은 “경쟁 속도 시기 질투에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들의 감성에 재미와 상상력을 불어넣어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불자 청소년으로 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연극과 뮤지컬 수업이 끝나면 학부모와 일반인 앞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회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2)511-6070

 # 전문가에게 축구 배워요

서울 **법련사**(주지 보경)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법련 어린이 축구교실’을 열고 있다.

‘축구를 통한 부처님 마음 배우기’를 목표로 진행되는 ‘법련 어린이 축구교실’은 김창섭 경희대 체육학과 강사가 지도를 맡아 현재 40여명의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다.(02)733-5322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는 8월 2~9일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초의선사 다도 아카데미’를 열었다.

다도아카데미는 ‘차(茶)’로 유명한 대흥사 주변 차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차의 역사도 배우고, 차를 직접 수확해 비비고 덖는 제다체험도 하면서 다도예절을 배우는 차 종합체험 프로그램.

이와 함께 새벽숲길과 108참회, 참선, 사경 프로그램도 접목해 아이들이 다도는 물론이고 불교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꾸렸다. (061)534-5502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탐방

서울 영화사 어린이법회

기발한 아이디어 ‘반짝 반짝’
해마다 다른 테마의 여름불교학교도 호응 커

서울 영화사(주지 평중)는, 매주 ‘설법-찬불가-율동-간식’ 순서를 반복하는 흔한 어린이법회와는 달리, 지도교사들의 열정으로 똘똘 뭉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이름 높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에 열리는 어린이법회는 1982년에 시작된 이후로 벌써 24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언제나 새롭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법회에 등록된 어린이불자는 150여명. 그 중에서도 50~60명의 아이들이 매주 꾸준히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잘 된다는 사찰 어린이법회가 20~30여명의 아이들만이 온다는 요즘 어린이 법회 실정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숫자다.


서울 영화사는 매년 특별한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으로 지역 어린이들을 끌어 모은다.

비결은 무엇보다도 지도교사들의 열정. 6명의 교사들이 매주 토요일 치열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새로운 법회 프로그램을 짠다.

기획회의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구상, 실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새로운 교구 개발과 제작까지 아이디어 회의에서 나온다.

학년별 담임선생님은 물론, 어린이법회 전체진행을 총괄 담당하는 교사가 한 명, 어린이법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한 명씩 따로 배치돼있다.

보통 어린이법회 전담 교사가 따로 배치되지 않는 여느 사찰 현실을 비추어보면 파격적인 숫자다.

이들은 한 달 단위로 운영되는 4주 프로그램을 매달 초에 계획한다. 매달 첫째 주에는 사단법인 ‘동련’에서 발행하는 ‘연꽃지’를 활용해 지도법사 스님의 시청각 설법이 열린다. 둘째 주에는 수화교실, 풍물교실, 즐거운 운동교실 등 다양한 특별활동 교실을, 셋째 주에는 생일법회를 진행한다. 넷째 주 열리는 ‘시장법회’는 영화사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영화사만의 이색 법회. 한 달 동안 영화사 어린이법회에 출석한 아이들이 모은 ‘쿠폰’으로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좌판을 벌리는 행사다.

영화사 어린이법회는 해마다 색다른 여름불교학교를 진행하는 것으로도 이름이 높다. 2002년부터는 ‘특색있는 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하자’는 뜻을 세워 해마다 다른 테마로 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육바라밀 구슬을 찾아서’라는 테마로 진행됐던 올해 여름불교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육바라밀 구슬’을 찾는 탐방단을 꾸려 육도윤회를 도는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팔정도와 윤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듯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자, 타 사찰에서도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을 전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진천 보탑사 등에서 교육을 펼치기도 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교구와 놀이도구도 지도교사들이 직접 제작한다. 그림을 맞추며 자연스럽게 부처님 일생을 배울 수 있는 ‘팔상성도 카드’, ‘어떤 전각에서 어떤 수행방법으로 성불했는지’를 맞추는 사건추적보드게임 ‘클루(Clue)’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반짝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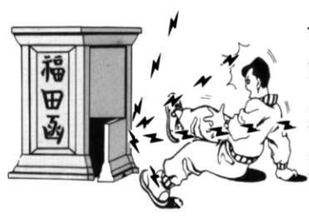
10년째 영화사 어린이법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훈 총괄지도교사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배우고 심성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험을 거듭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도교사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회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주지 평중 스님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기도 하다.

평중 스님은 “어린이포교가 잘되기 위해서는 어린 불자를 키울 지도교사층을 양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02)444-4321 이은비 기자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9. 6 (수 · 목요일 주간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439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3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가을반)
2.교육장소	동산 법당 (동산불교회관)
3.개강일시	2006년 9월 6일(수요일)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7.입 학 금	90,000원(3개월)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5> 생멸 없는 데서 생사와 열반 보는 것은

중생이 부처님의 마음을 열반이라 생각하고 중생의 마음을 생사라고 말하는 것은 중생 처지에서 맞는 소리다. 따라서 생사 속에 있는 중생이 부처님의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수준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일은 당연하다. 중생의 이런 처지를 부처님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선가귀감> 35장에서는 말한다.

衆生 於無生中 妄見生死涅槃 如見空花起滅.

중생이 생멸이 없는 데서 헛되이 생사와 열반을 보는 것은 마치 허공의 꽃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시비 분별할 인연 흩어지면 '열반'

부처님, '집착' 바로잡기 위해 온 것

무생(無生)은 무생멸(無生滅)이니 시비분별로써 생멸하는 중생의 마음이 없는 곳을 말한다. 언제나 변함없이 여여하여 텅 빈 충만으로서 시비와 분별이 사라진 부처님 세상이요 깨달음이다. 생사(生死)는 윤회라는 뜻을 갖고 있다. 중생은 자기중심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업 때문에 지옥 아귀 축생의 몸으로 끊임없이 바뀌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그러나 알고 보면 중생의 생사는 바깥 경계에 집착하여 시비 분별하는 마음일 뿐이다. 시비 분별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질 법에 집착할 마음이 없게 되니 이것이 열반이다.

중생이 보는 생사와 열반은 차원이 다르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 생사가 열반이고 열반이 생사이다. 중생이 부처이고 부처가 중생이다. 중생계로 벌어지는 생사로서 온갖 연기법이 알고 보면 실체 없는 텅 빈 성품에서 나왔고, 이 텅 빈 성품에 많은 인연이 주어지면 온갖 법이 드러날 뿐이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근본에서는 모든 법이 공(空)이니 색즉시공(色卽是空)이고, 공(空) 자체에서 주어진 인연으로 온갖 모습이 다양하게 드러나니 공즉시색(空卽是色)이다.

법의 진실을 알고 색(色)에도 걸리지 않고 공(空)에도 걸리지 않는 이 자유자재한 부처의 지혜를 중도(中道)라고 한다. 중도는 밝은 거울과 같아서 일체 분별이 없다. 어떤 인연이 오면 그냥 그 모습을 드러내나 그 인연이 사라지면 그 모습도 사라진다. 따라서 중도에서 볼 때는 일방적인 생사나 열반은 허공의 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허공의 꽃을 보는 것은 눈병이 났을 때니, 존재하지 않는 생사와 열반을 본다는 것은 중생이란 병이 있을 때다. 시비 분별이란 병이 다 떨어진 부처님의 지혜에서는 생사나 열반이란 분별이 없다. 이것이 중도다.

이 사상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 <중론>의 삼제게(三諦偈)이다. 공(空)·가(假)·중(中) 세 글자로 인도 불교의 중도사상을 잘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성립된 삼론종은 물론 천태종과 화엄종의 성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空)은 열반이고, 가(假)는 인연이 모여 임시방편으로 있게 되는 생사이며, 중도는 생사와 열반을 뛰어넘어 있는 '참성품'을 말한다.

衆因緣生法 我說卽是空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

온갖 인연으로 생기는 법을, 나는 공(空)이라 말하고 또한 가명(假名)이라고도 하며 중도의 뜻이라고도 하느니라.

'온갖 인연으로 생기는 법'이란 인연이 모여 생겨나는 모든 연기법을 말한다. 이 연기법의 실체를 찾아보면 많은 인연이 모여 생겨났을 뿐, 본디 성품이 없으므로 '공'이다. 아주 아무 것도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분명히 어떤 인연이 모여 일어나는 법이 있다. 이 법은 모인 인연이 흩어지면 곧 사라질 법이므로 '임시로 거짓 존재'한다는 의미로써 '가(假)'라는 표현을 쓴다. 인연이 모여 어떤 법으로 나타나면서도 공이고 공이면서 인연이 모여 어떤 법으로 드러나는 것은,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면서 동시에 공이고 가가 되니, 이것이 중도이다. 곧 공이 가이면서 중이고, 가가 공이면서 중이며, 중이 공이면서 가가 된다. 따라서 모든 연기법의 내용은 공, 가, 중으로써 서로 내포되어 분리되지를 않으니 즉공(卽空) 즉가(卽假) 즉중(卽中)이 된다. 여기서 즉(卽)은 공과 가와 중이 한 곳에 함께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이것이 유명한 삼제원융(三諦圓融) 사상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性本無生故 無生涅也 空本無花故 無起滅也, 見生死者 如見空花起也 見涅槃者 如見空花滅也. 然起本無起 滅本無滅 於此二見 不用窮詰, 是故 思益經云 諸佛出世 非爲度衆生 只爲度生死涅槃二見耳.

참성품에는 본디 생멸이 없기 때문에 생사와 열반이 없고, 허공에는 본디 꽃이 없기 때문에 꽃이 생겨나거나 없어질 것이 없다. 생사를 본다는 것은 허공에 꽃이 생긴 것을 보는 것과 같고, 열반을 보는 것은 마치 허공에 꽃이 없어진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참성품에는 생겨나도 본디 생겨나는 것이 없고 없어져도 본디 없어지는 것이 없다. 생사와 열반 이 두 가지 견해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질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익경>에서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 제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사와 열반 두 가지 견해에 집착하는 것을 바로잡아 주었을 뿐이다'고 말한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행복동 사람들

과거와 미래

배종훈 (bjh4372@hanmail.net)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 dong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명부전(冥府殿)

절에 가면 전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극락전, 지장전, 대웅전, 약사전 등 어떤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시느냐에 따라 전각의 이름이 결정됩니다. '이 생에서 나쁜 짓을 하면, 죽어서 명부전에 불려서 벌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지요?

명부전은 저승의 명부를 상징하는 불전입니다. 심판관인 시왕(十王)을 모시고 있다해 시왕전이라고도 하죠. 혹은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있어 지장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시왕상 앞에는 시봉을 드는 동자상 10구를 세웁니다. 또 판관 2구, 장군 2구 등 모두 29구의 존상(尊像)을 갖추지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폭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ㄷ'자 모양으로 꺾여 들어갑니다.

명부전은 이처럼 망자의 심판관인 시왕과 망자를 자비로 인도하는 지장보살을 모신 전각인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매일 대인관계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일상을 허겁지겁 사는 재가불자들에게는 경책을 주는 청량한 죽비와 같은 존재로 다가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0)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6강 소승 사과(四果), 그리고 혜능 대승의 사과

9장, 소승 사과에 대한 혜능의 통찰을 듣기로 한다. 지면 관계상, <금강경> 경문은 현토만 내걸고, 해석은 생략했다.

1. 수다원, 성스런 흐름에 들어선 자

"須菩提, 於意云何오. 須陀洹이 能作是念호대 我得須陀洹果不아." 須菩提ㅣ言하사대, "不也니이다, 世尊하. 何以故오. 須陀洹은 名爲入流호대, 而無所入不入色聲香味觸法일새, 是名須陀洹이니이다."

-六祖: 須陀洹者梵語, 唐言逆流. 逆生死流, 不染六塵. 一向脩無漏業, 得?重煩惱不生, 決定不受地獄畜生脩羅異類之身, 名須陀洹果. 若了無相法卽無得果之心. 微有得果之心, 卽不名須陀洹, (故言不也.)

-번역: "중국어로는 역류(逆流)라 번역하는 수다원은,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육진(六塵)에 물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새거나 넘치지 않는 업을 오로지 닦아 나가면, 거친 번뇌를 졸업하고, 마침내 지옥, 축생, 아수라, 아귀 등 저급한 윤회의 몸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데, 이를 수다원의 성취라 부른다. (그렇더라도, 뻐기거나 의식하지 마라.) 무상법(無相法)을 깨친 자, 그는 '결과를 성취했다'는 자만심이 없다. 만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는 수다원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2. 사다함, 단 한번만 오가는 자

-"須菩提아, 於意云何오. 斯陀含이 能作是念호대, 我得斯陀含果不아." 須菩提ㅣ言하사대, "不也니이다 世尊하. 何以故오. 斯陀含은 名一往來호대, 實無往來일새, 是名斯陀含이니이다."

-六祖: 斯陀含者梵語, 唐言一往來, 捨三界結縛. 三界結盡, 故名斯陀含. 斯陀含名一往來, 行從天上?到人間生, 從人間死?生天上, 竟出生死, 三界業盡, 名斯陀含果. 大乘斯陀含者, 目睹諸境, 心有一生一滅, 無第二生滅, 故名一往來. 前念起妄, 後念卽止, 前念有著, 後念卽離, 實無往來, 故曰斯陀含也.

-번역: "사다함은 중국어로 일왕래(一往來)로 번역하는데, 삼계의 결박을 벗어던진 자를 가리킨다. 그는 '한 번 더 왔다 간다.' 그는 천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세를 다하면 다시 천상에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생사를 졸업하는 사람이다. 사다함의 경지에서 삼계의 업은 그만 다 소멸된다. (이것은 소승이 말하는 사다함이고,) 대승의 사다함은 또 좀 다르다. 눈이 사물을 볼 때, 마음은 동했다가 사라진다. 한번 동했다 사라지되, 더 이상 2차적 동함은 없는 것, 그것을 일러 대승의 '한번 오고 감'이라 부른다. 여기서는 상념 하나가 망령되어 일어나더라도 다음 생각이 문득 그치고, 정념 하나가 집착에 빠지더라도 다음 생각이 그 열기를 문득 떠난다. 여기 더 이상 오간 것이 없다. 이것이 사다함이다."

3 아나함,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게 된 자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阿那含이 能作是念호대, 我得阿那含果不아." 須菩提ㅣ言하사대, "不也니이다 世尊하. 何以故오. 阿那含은 名爲不來로대, 而實無不來일새, 是故로 名阿那含이니이다."

-六祖: 阿那含梵語, 唐言不還, 亦名出欲. 出欲者, 外不見可欲之境, 內無欲心可得定, 不向欲界受生, 故名不來, 而實無不來, 亦名不還. 以欲習永盡, 決定不來受生, 是故名阿那含也.

-번역: "아나함은 중국어로 불환(不還), 혹은 출욕(出欲)이라 번역한다. '욕망을 벗어났다(出欲)'는 것은, 밖으로는 세상을 보고도 욕망을 내지 않게 되었으며, 안으로는 마음의 안정을 애타게 희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는 더 이상 욕계(欲界)에서 수태하지 않게 되었기에, '더 이상 여기 오지 않는자(不來)'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다시 오지 않는 자'가 어디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나함을 또 '돌아오지 않는 자(不還)'라고도 하는데, 이는 욕망과 습기(習氣)가 영원히 제거된, 그리하여 다시는 이 욕계의 삶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4 아라한, 자신과 다투지 않게 된 자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阿羅漢이 能作是念호대, 我得阿羅漢道不아." 須菩提ㅣ言하사대, "不也니이다, 世尊하. 何以故오. 實無有法名阿羅漢이니, 世尊하, 若阿羅漢이作是念호대, 我得阿羅漢道라하면, 卽爲着我人衆生壽者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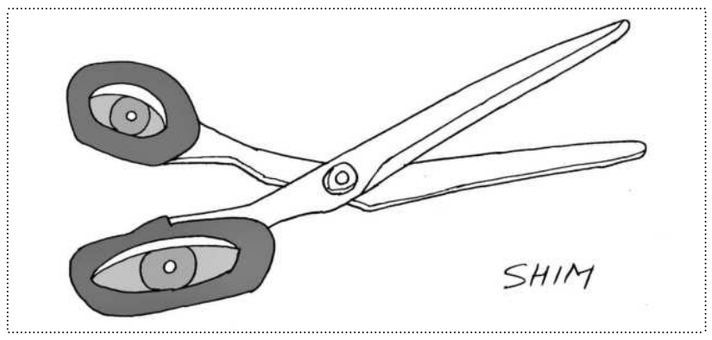
-六祖: 諸漏已盡, 無復煩惱, 名阿羅漢. 阿羅漢者, 煩惱永盡, 與物無諍, 若有得果之心, 卽是有諍. 若有諍, 非阿羅漢.

- 번역: "'넘치고 새는 자리'가 없기에, 더 이상의 번뇌가 없는 자, 그를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는 번뇌를 영원히 끊고, 이제 어떤 사물과도, 그리고 자신과도 갈등하지 않게 된 사람이다. 여기, 그러나 '나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노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다시 (자신과의) 갈등 속으로 떨어진다. 갈등이 있다면, 그는 아라한이 아니다."

-六祖: 阿羅漢梵語, 唐言無諍. 無諍者, 無煩惱可斷, 無貪嗔可離, 情無違順, 心境俱空, 內外常寂, 是名阿羅漢. 若有得果之心, 卽同凡夫, (故言不也.)

-번역: "아라한은 중국어로 무쟁(無諍), 즉 '다툼이 없는 자'라 번역한다. 무슨 말인가. 더 이상 끊어야할 번뇌도 없고, 떠나고 버려야할 탐욕과 분노도 없고, 사물에 대해 좋고 싫은 것도 없고, 사물과 내 마음이 함께 텅텅 비어 있는 이렇게 안과 밖이 두루 고요 평안한 사람을 아라한이라 한다. 이때 그가 만일 '이제, 나 아라한을 성취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범부(凡夫)나 다를 바 없다."

생각은 다시 오지 않는다



5. 아란나, 깨끗한 삶을 위한 길

-世尊하, 不說我得無諍三昧人中에 最爲第一이라, 是第一離欲阿羅漢이라하시나, 我不作是念호대, 我是離欲阿羅漢이라하노이다. 世尊하, 我若作是念호대, 我得阿羅漢道라하면, 世尊이 卽不說須菩提ㅣ是樂阿蘭那行者라하시련만. 須菩提ㅣ實無所行일새, 而名須菩提ㅣ是樂阿蘭那行이라 하시나니다."

-六祖: 何名無諍三昧. 謂阿羅漢心無生滅去來, 唯有本覺常照, 故云無諍三昧. 三昧是梵語, 唐言正受, 亦云正見. 遠離九十五種邪見, 是名正見也. 然空中有明暗諍, 性中有邪正諍, 念念常正, 無一念邪心, 卽是無諍三昧. 脩此三昧, 人中最爲第一, 若有一念得果之心, 卽不名無諍三昧.

-번역: "무쟁삼매(無諍三昧)란 무엇인가. 아라한의 마음에 아무런 생멸(生滅)도 거래(去來)도 없는 것, 오직 본래의 각성(本覺)이 언제나 안팎을 비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더 이상의 갈등이 없는 고요와 평정'이라고 부른다. 인도어 삼매(samadhi)는 중국어로 정수(正受), 혹은 정견(正見)으로 번역한다. 저 95종의 삿된 견해를 훌쩍 떠난 것이 정견이나, 그러나 같은 허공에도 어둡고 밝음이 서로 다투고, 같은 불성(性)임에도 삿되고 바른 것이 서로 다툰다. 생각생각, 상념과 정념들이 늘 바른 자리에 있어 일념도 사심이 끼지 못하게 하는 것, 이를 무쟁삼매라고 한다. 이 삼매를 닦는 것이 사람의 일 중 가장 위대하다. 다시 유의해야하는데, 이 위대한 작업을 하는 자, 만일 '나 아라한의 열매를 얻어야겠다'는 마음이 혹 있다면, 그는 무쟁삼매의 자격을 잃는다."

-六祖: 阿蘭那是梵語, 唐言無諍行. 無諍行卽是淸淨行. 淸淨行者, 爲除去有得心也. 若存有所得心, 卽是有諍. 有諍卽非淸淨道. 常行無所得心, 卽是無諍行.

-번역: "아란나는 중국어로 무쟁의 실천(無諍行)이라 번역된다. 그것은, 곧 청정행(淸淨行)으로서, '무엇을 얻겠다'는 마음을 제거한 순수행동이다. 성취에 대한 염려가 있는 한, 그는 내적 갈등을 면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청정한 삶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 늘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아란나, 즉 무쟁행이라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



채식만으로 충분하다

육식으로 병든 우리 몸의 건강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가장 쉽고 저렴하며 환경 친화적인, 완전한 건강법인 '채식'에 있다.

이 책 <우리 몸은 채식을 원한다>는 각종 유해 물질이 농축된 고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채식 뿐임을 일러준다.

이 책에서는 고기가 어떻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를 소화계, 심혈관계, 비뇨계, 골격계, 신경계, 호흡계, 생식계, 면역계, 내분비계, 피부계의 10개 기관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예를들면 고기 즉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노폐물을 처리하여 신체를 깨끗하게 하는 비뇨계의 경우 신장을 혹사시키며, 모든 기관을 지탱하는 뼈를 만드는 골격계에서는 골다공증을 유발하며, 영양소를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계에서는 산소를 막는다고 설명한다.

종족을 보존하여 세대를 이어가는 생식계에서는 고통스러운 월경통을 부르고, 우리몸을 방어하는 면역계에서는 항생제 내성균으로 면연력을 약화시키며, 감각을 받아들이는 피부계에서는 여드름과 탈모를 촉진시킨다.

'채식이어야 완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인 이광조 한국채식인협회 공동대표의 주장. 이씨는 7년전 국내 처음으로 채식 동호회를 개설하고 각종 신문에 채식 칼럼을 기고, 채식으로 풍요롭고 균형 잡힌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왔다.

특히 음식과 관련한 우리 몸의 생리 작용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고 풍부한 임상실험과 역학조사에 의해 뒷받침된 채식의 놀라운 효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즉 쌀에는 필수아미노산 중 리신이 부족하고 콩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하지만, 콩밥을 먹으면 부족한 필수아미노산을 서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이 하루 콩 두 줌이면 충분하기에 채식 영양에서 단백질은 양에서든 질에서든 부족함이 없다는 것. 다만 채식만 할 경우 영양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김치와 해조류를 통한 비타민B12의 섭취를 해주어야 한다는 자세한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육식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
소화 · 골격계 등 10개 기관계 나눠 설명
균형잡힌 밥상 차리는 법 등 상세히 소개

이렇게 채식만으로 식단이 가능함에도 식물성 식품만으로는 필수아미노산이나 비타민B12 등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다는 일부 사람들의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저자는 미국 식단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5대 식품군에서 찾는다.

5대 식품군만 강조하다보니 채식을 주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채식을 할 경우 비타민B12는 어떻게 섭취하나?' '5대 식품군을 골고루 먹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등의 염려가 컷던 것이 사실.



우리 몸은 채식을 원한다
이광조 지음
현암사|9500원

하지만 저자는 급작스러운 육류위주의 식생활이 암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한다.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고 육식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늘어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다 섭취된 동물성 단백질이 신장을 혹사하며, 환경호르몬이 농축된 고기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위협한다고.

저자는 또 인체 자체가 채식동물과 구조가 비슷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치아가 뭉툭하고 침에 아밀라아제가 있으며 장이 길어서 세균이 많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육식이 맞지 않다고.

고기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나오는 지독한 방귀 냄새만으로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고기에 많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여 각종 성인병을 일으킨다는 것이 저자의 확신이다.

콜레스테롤은 섬유소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고기 섭취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섬유소 섭취가 줄어드니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식 위주로 식생활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밖에도 멜라토닌이나 비타민B6가 풍부한 식품, 필수아미노산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의 조합 방법,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쉽게 활용할 있도록 하고 있다. 단계별 채식 이유식 식단, 당뇨병 환자 식단,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식단 등을 실어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살기좋은 우리 땅에 애정을 보여 주세요



다시쓰는 택리지5 휴머니스트, 신정일 지음

우리 땅은 정말 사랑스러운 땅이다.

요즘들어 비행기 등의 교통의 발달과 우리나라의 경제력 상승으로 해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치나 문화유적을 먼저 속속들이 상세하게 본 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땅은 낮은산과 평지가 전부다. 우리 땅은 오래된 침식과 풍화로 그리고 농경민족인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정말 살기 좋은 땅이다.

또한 기후가 대기후에 사계절이 뚜렷해서 정말 살기에 안성마춤인 곳이 우리나라이다. 이러한 기후조건과 땅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책은 택리지 5권 '우리에게 산하는 무엇인가'에서는 복거론 등 풍수지리적으로 살기에 적합한 곳을 소개한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의 8대 명산 및 우리나라의 특색있는 모든 산에 산재한 절집과 문화유산을 소개한다.

이 책은 땅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에 대해서 좀더 깊은 애정을 보이라고 충고한다. 우리 국토에 대한 좀더 많은 경험과 관심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 권한다.

(저거되가그거되가, aladdin.co.kr/blog/mypaper/845851)

작고 보잘 것 없는 생명들의 신비



고향이 있는 풍경 도피안사, 김기철 지음

'나에게 고향은 어릴 적 엄마의 품속 같은 곳이다.

고향이 사라지고 만 지금에 와서는 꽃피는 산골만이 내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인 것 같다.

이 삭막하고 살벌한 세상에 그곳이 없다면 나의 심신이 쪼그라들지 않고 이만큼 편안할 수 없을 것 같다.

세상사 힘들고 답답할 때 나에겐 위안처가 되어주고 안식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자연은 경이롭고 위대하다. 해와 달이 그렇고 산과 바다가 그렇다.

그러나 나는 크고 대단한 우주적인 것에서보다는 연약하고 섬세한 들꽃 같은 데서 생명의 신비를 느낀다.'

곤지암 가마 울안의 자연을 담은 이 책을 읽다보면 고향에 와 있는 듯 푸근하다. 특히 꽃이나 동물에 대한 묘사가 눈앞에 보고 있는 듯 생생하게 느껴진다

비록 촌스럽고 가난한 옛고향의 뒤울안 같은 분위기이지만 말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자연이 주는 감동, 그 위안이 가장 축복임을 새삼스레 고백하고 싶다.

(pmss0517, book.naver.com/bookdb)

책속의 밑줄긋기



○… 귀농 첫 해, 백 년만의 가뭄을 만나고, 그 다음해에는 우리 골이 생긴 이래 가장 큰 비를 만났으니, 약초들이 풀하고 얼마나 씨름을 했겠습니까. 밭에 심어놓은 당귀와 강활은 저절로 야생이 되었고, 늦가을의 풀을 헤치며 약괭이로 캐 보니 어떤 것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첫번째 유기농 약초농사는 비싼 수업료만 치르고 경험을 얻은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약초농사의 성공여부는 약초 모종에 있었습니다. 모종값을 줄이려고 산에서나 밭에서 씨앗을 채취할 경우 자칫 꽃대가 올라와 뿌리를 쓸수 없게 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또 틈틈이 밀가루 반죽하듯이 만들어 놓은 퇴비를 아낌없이 밭에 깔고 정성스레 골을 타서 정확히 잘 심고, 일년내내 매달려서 풀도 잘 맸습니다.

–<귀농길잡이> 본문 127쪽에서, 전국귀농운동본부, 소나무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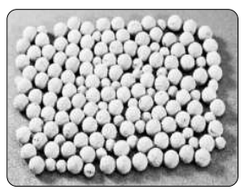
■ 大幸,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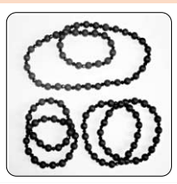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전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은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 작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 & 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이내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지 / 지음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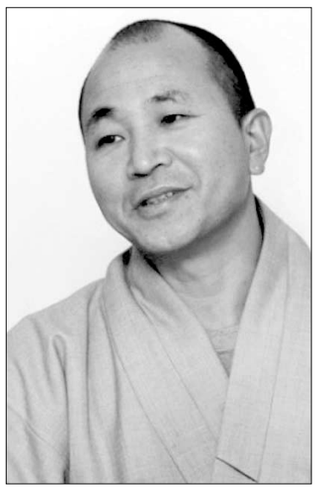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방거사, 선의 황금시대 이끈 인물”

입멸 1200주년 맞아 ‘방거사 어록 강설’ 발간한 혜담 스님

물을 긷고 나무를 나른다고 하는 일상의 생활이 신통이고 묘한 작용이며 곧 도의 현현임을 스스로 체득하고 그러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던 방거사(?~808).

한국불교에서는 전통강원의 교과목인 대혜 스님의 선 교과서인 <서장>에 방거사의 글귀가 인용됐지만 어록이 책으로 간행된 적은 없다. 이에 혜담 스님(경기 광주 각화사 주지 · 사진)이 방거사 입멸 1200주년(2008년 7월 8일)을 2년 앞두고 한국불교 최초로 <방거사 어록 강설>을 발간했다.



▲방거사가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의 사상에 대해서는 분명치가 않다. 방거사가 한국불교에 있어서 왜 중요한 분인지?

—방거사는 선의 황금시대라 불리는 8세기 중반에서 9세기 초까지 마조 선사나 석두 선사가 선풍을 드날리던 시대, 마조 선사의 유일한 재가제자였다. 당시 유명한 선사들의 날카로운 기봉을 통쾌하게 꺾거나 때로는 당당하게 맞섰다. 그의 이런방식은 당대 불교가 선(禪)으로 특정짓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

▲방거사가 임제선의 정맥을 잇고 있는 한국불교와 연관이 깊다고 하는데 팔만대장경에도 나오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어록을 발간하게된 계기는?

—아마도 고려시대 귀족불교의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출가자가 아닌 거사의 해탈에 등한시했던 당시 사회분위기에 무관치 않다고 본다. 방거사 어록을 발간한 계기는 은사인 광덕 스님(1927~1999)께서, 방거사의 ‘일체의 존재와 상관하지 않는 자’라는 법문에서 불법에 대한 눈이 열렸다고 고백하시며 어록을 번역해보라는 명을 받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

▲스님이 <방거사 어록 강설>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방거사처럼 우리 한국불교계의 스님들이 재물욕과 명예욕을 버렸으면 하는 의미에서다. 방거사는 자기의 집을 두군데나 절로 만들었을뿐더러 아예 재산을 수십대의 마차에 실은 후 강속에 버렸다. 사람들이 찾아와 재물을 불사에 쓰지 않고 강속에 처박아 버리는 이유가 뭔지를 묻자 방거사는 ‘재물이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신성한 불사에 쓴단 말이요’라고 답한 것에서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 선불교의 정체성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듯 싶은데….

—<방거사 어록 강설>을 통하여 선의 황금시대였던 당시의 선풍을 그대로 가져와 선종 본래의 바른 수행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일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선이 잘못됐다’는 것 등 교계에서 일고 있는 간화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앞서 참선 본래의 참구법으로 회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구체적으로 선의 황금시대와 비교해 한국불교 간화선의 문제를 지적해본다면.

—화두를 위한 화두는 안된다. 몸 전체가 화두가 되어야 한다. 의심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의심을 하다보니 상기가 일어나는 것 같다.

한편 <방거사어록 강설>은 석두 마조 약산 제봉 단하 백령 보제 장자 송산 본계와 대매 대육 칙천 낙포 석림 앙산 곡은과 화주승 목동 좌주와의 대화가 실려있다. 또 방거사의 행화, 난이삼부곡, 시게삼수, 거사의 입멸등이 소개되고 있다.



방거사 어록 강설
혜담 지상 지음 | 불광출판사 | 1만5000원

부처님, 우리아이 어떻게 가르칠까요

현직 교사가 쓴 자녀교육 지침서

‘이 학원 저학원 아무리 돌리고 다그친들 자녀에게 지식은 줄 수 있으나 생각하는 힘은 줄 수가 없다. 점수는 줄 수 있으나 관용이나 자비, 인내등 인간적 품성은 줄 수 없다. 기능은 줄 수 있으나 주체적 인간으로 설 수 있는 자립심은 줄 수가 없다. 고통과 스트레스는 줄 수 있으나 여유로운 마음은 줄 수 없다. 싸워서 이기는 법을 가르칠 수는 있으나 상대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넉넉함은 줄 수 없다. 지금의 자녀교육, 현재 방식의 사랑으로 부족한 2%를 채워야 한다.’

현직 교사이며, 문인으로 그리고 문사수법회에서 수행중인 저자 민병직씨(일산 오마초 교사)는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 교육의 지혜>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대로 키우면 자녀교육은 성공한다고 말한다. 자녀에게 부족한 2%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다는 얘기다.

그는 아이들도 불성을 가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데서 출발하는 붓다의 교육정신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자식교육을 투자나 투기적 발상으로 벼랑으로 자식을 몰고가는 부모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저자는 가장 먼저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것을 권한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좋은 점을 모방하도록 항시 격려하고 위로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녀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어머니 자신이 변해야 자녀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한다.

또 공부를 잘 하게 하려면 지능지수를 높여주도록 꾸준히 자극을 주고, 건강하게 하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준 뒤 공부방법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공부를 시키지 않으며, 휴식시간을 많이 주고, 쉬운과목부터 배우도록 해야 능률이 오른다고 한다.

부처님이 바보였던 판타카를 깨달음에 이르게 했듯이 각각의 근기에 따라 올바른 교육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쏠어내는 빗자루’라는 일곱단어도 못외웠던 바보 판타카도 해내는데 정상적인 지능을 소유한 아이를 잘 키워내지 못하는 것은 교육방법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저자가 교육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교육이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넘나들며 쓴, 불자들을 위한 자녀교육 지침서이다. 그런만큼 다양한 사례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응용해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키우도록 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붓다로 부터 배우는 자녀 교육의 지혜
민병직 지음
운주사 | 9800원

서양철학으로 푼 금강경



과학과 불교의 만남
황의현 지음
하늘북
1만2000원

<금강경>을 서양의 합리주의 철학과 현대과학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고 영어로도 표현한 책이 발간됐다.

이 책 <과학과 불교의 만남>은 마음의 본질을 밝힘으로써, 화를 억제하거나 화를 발산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원천적으로 화를 낼 필요가 없음을 밝혀내고 있다.

또 사람이 윤회를 한다면 과연 무엇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윤회하게 되는가를 설명한다. 즉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의견대립, 갈등이 마음이 만들어 내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차분히 분석해냄으로써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마음만 바꿔먹으면 직장 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친구사이에서 화목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불교가 과학의 성과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혜안을 키워 주며 사람의 인식, 마음에 대해 새로운 눈이 뜨게 해준다.

저자 황의현씨는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공항공사에 근무중이다.

자광 스님의 증도가 산림법회 엮어



이름없는 풀이없듯 인연없는 중생없네
자광 스님 지음
현대북스 | 1만원

“대저 사문은 어디에서 왔기에 도도하고 아만을 부리는가?”

라고 혜능 스님이 말하니 현각 스님 왈

“나고 죽는 일이 크고 무상(無常)이 신속하나이다”

육조대사가

“어찌 태어나는 것이 없음을 체험해 얻어서 빠름이 없는 도리를 요달하지 못하는가”

하니 현각 스님은 ‘가슴에 새기고 모든 법문을 듣고 뒤에 성불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말끝에 바로 깨닫는 것’을 깨쳤다.

1300년전 현각 스님이 육조 혜능대사를 만나 도를 깨우치고 지은 깨달음의 노래인 증도가. 그래서 증도가는 깨달음이 가득 담긴 보물창고라고도 말한다.

증도가는 267구의 견성오도를 드러낸 것으로서 ‘불립문자 교외별전’의 현지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현각 스님 자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불교텔레비전에 2005년 여름 13회에 걸쳐 자광 스님(김룡사 회주)에 의해 방송되었던 증도가 산림법회를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다.

김원우 기자

선지식 24인과 만나다



오늘 부처의 일기를 써라
원혜 스님 엮음 | 은행나무 | 1만4000원

생활 속에서 참선과 기도, 실천을 통해 삶의 지혜를 들려주는 24명의 선지식을 만난다.

최근 수년 간 봉은사 법회에서 법문했던 월운 스님, 우룡 스님, 지관 스님등의 법문 가운데 선지식과 생활, 기도에 관한 법문만을 골라 묶은 법문집 <오늘 부처의 일기를 써라>가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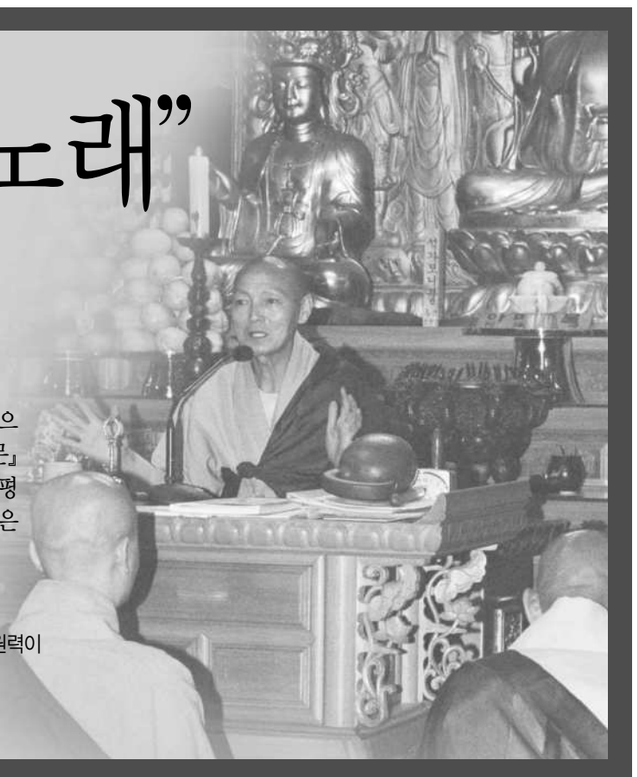
이 책에는 선의 본질과 원리, 효능에 관한 종호 스님의 설법 이외에 참행복을 체득하는 진정한 방법에 대한 지환 스님의 설법 등 ‘선으로 마음 찾기’를 주제로 한 11가지의 이야기와 수행에 관한 이치를 전하는 보광 스님 그리고 생명 살림의 실천을 알리는 도법 스님 등 ‘생활 속에서 부처되기’를 주제로 엮은 18가지 이야기가 담겨있다. 또 묘허 스님의 지장기도와 혜인 스님의 우란분절기도 등 ‘기도로 수행하기’에 관한 설법 4가지로 나누어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불심에 관해 일깨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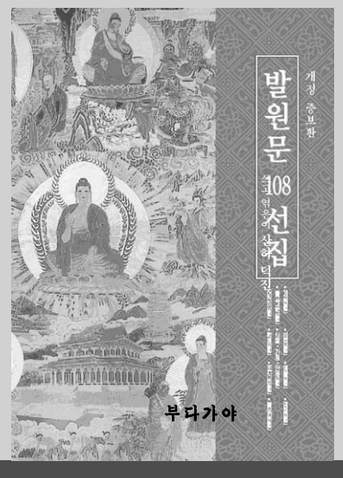
yosiamun.com 추천도서

· 길위의 삼국유사	미래M&B, 고운기, 1만5000원
· 신심명 증도가	동국역경원, 혜원 스님, 8000원
· 마음이 단순해지는 선화	마음산책, 김홍근, 1만2000원
· 생명산필, 종이거울	김재일, 1만1500원
·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차	현암사, 여연 스님, 1만5000원

도서주문 (02)2004-8219

청정한 마음으로 부르는 “보살의 노래”





정토사 주지 덕진스님께서 30여년 동안 대중교화를 위한 사찰, 청소년법회와 불교대학 등 각종 기도, 위문, 사회행사, 직장 · 가정의 의뢰와 포교현장에서 발원하고 서원하신 발원문을 모아 엮은 것입니다. 이를 수지 독송하여 자신을 바르게 지키고 수행을 곧게 하여 널리 일체서원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단으로서 전국 어린이 포교와 『불교천자문』 저자로서 널리 알려진 덕진스님께서 평소 수행정진이나, 포교 활동 중에서 얻은 마음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표현.

‘더러운 마음’을 ‘맑은 마음’으로 바꾸어 청정한 세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스님의 원력이 한껏 풍겨나온다.

〈서문 중에서 – 문학평론가 김용태〉

발원문 108선집
(덕진스님 엮음 / 4×6판 / 값 6,000원)

맑은마음 고운세상
(덕진스님 지음 / 문고판 / 값 6,000원)

전국 불교서점 및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

※ 법보시 주문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 울산 정토사 (052)258-9944 · 도서출판 부다가야 (051)865-4383 · 홈페이지 :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 대한기획 (051)866-7818

만해대상 수상자 소감


남바린 엥흐바야르 몽골대통령


김지하 시인


로버트 핀스키 미국 계관시인


황동규 시인


박원순 변호사


권영민 문학평론가

▶ 포교부문–남바린 엥흐바야르(몽골공화국 대통령)

저의 국제포교활동을 높이 평가해 이런 상을 주고 세계적인 불자로 선정해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몽골 불교문화와 역사적 전통의 사회화를 위한 작은 노력이 인정받았고 양국 교류 발전과 세계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해 감사히 이 상을 받겠습니다.

▶ 평화부문–김지하(시인)

박정희 독재의 절정이었던 유신헌법이 공포된 바로 그 다음날 백담사 골짜기 산장 한 귀퉁이 방에서 밤새 타는 촛불을 보며 여울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오니 촛불과 여울물 소리보다 서투른 퉁소를 밤새 불어대던 외국 청년이 오히려 더 생각납니다. 그것이 만해불교, 한국불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메타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 기억을 통해 만해불교의 국제적 소명을 기억나게 한 이 일을 감사합니다.

▶ 문학부문–로버트 핀스키(미국 계관시인)

만해대상 수상자가 됐다는 소식을 데이비드 맥캔 교수로부터 연락받고 대단히 기뻤으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세계평화시인대회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때 베풀어주신 환대와 여러 시인들과의 만남,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에 대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 문학부문–황동규(시인)

10시간이 넘게 걸려서 만해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려움 끝에 간신히 도착했지만 시상식이 끝나버려 허탈했습니다.

만해의 님은 우리 민족만의 님이 아니고 인류의 님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문학에서 만해의 님에 대한 문학적 연구가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저도 남은 인생 만해의 님에 대한 연구의 중심에 서고 싶습니다.

▶ 실천부문–박원순(변호사 ·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만해대상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학술부문–권영민(문학평론가 · 서울대 교수)

저는 만해 스님이 태어났던 충청도 홍성 그 마을에 가까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인연 때문인지 만해 스님의 사상을 가슴 속에 담아두고 살아왔습니다.

만해축전이 처음 시작될 때 만났던 무산 스님은 '연못 속 고기는 용이 되어 올라갔는데 허망한 그물질만 하는 것이 평론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허망한 그물질이언정 제 그물에 걸릴 한 두 마리의 물고기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한국문학을 연구하기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만해의 '님'…세계의 '님'으로

2006 만해축전 성황

한국 대표 시인 한자리에
현대시조 100주년 축제한마당

현대시 · 시조의 구분을 떠나 한국의 내로라 하는 시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인이 되고자 시인학교에 등록한 학생과 일반인들을 비롯해, 청소년 백일장에 참가한 청소년들와 새내기 시인, 원로 시인 할 것 없이 '만해'의 이름 아래 모여들었다.

8월 11~13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 2006 만해축전의 하이라이트는 올해로 열돌을 맞는 만해대상 시상식.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2일 시상식에 앞서 "만해 한용운 스님은 정신적 지주이자 그의 개혁사상은 본받고 의지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만해대상이 열 돌을 맞아 온 국민이 하나 돼서 만해 스님의 사상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후 5시 입재식으로 막을 올린 제10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은 한결같이 "만해 스님의 정신이 한국불교 나아가 세계불교를 관통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기뻐했다.


세계민족시대회는 한국 · 중국 · 일본 · 이탈리아 등의 전통시를 알리고 서로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에 앞서 열린 '현대시조 100년 고유제'에서 이근배 세계민족시대회 집행위원장은 "현대시조 100년을 맞아 시조의 새로운 천 년을 여는 대장정에 나서고자 하며 겨레시인 시조가 나라 안팎에 천둥소리로 울려 퍼질 그 날이 오게 하겠다"고 고유문을 낭독했다.

13일 시조시인들이 중심이 돼 기획한 '현대시조100년 세계민족시대회–세계민족시포럼'에서는 김용직 명예교수(서울대 ·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의 발제강연 '시조, 그 국민시가 양식으로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시작으로, 나까니시 스스무 학장(中西進 · 교토시립예술대학)의 '일본 전통시 와카(和歌)란 무엇인가', 빈센싸 두르소 교수(이태리 베니스 까 포스까리대학)의 '이태리는 어떻게 소넷(Sonnet)을 낳았는가', 문행복 교수(국립대만사범대학)의 '중국 전통시의 깊고 오랜 흐름', 김해룡 교수(연변대학 조선–한국문학원)의 '연변의 조선족작가들은 왜 시조를 쓰는가', 박철희 명예교수(서강대)의 '현대시조 100년 무엇이 문제인가' 등이 발표됐다.

2006만해축전에서는 '현대시조 100년 세계민족시대회 전야음악제' '만해 전국 음악콩쿠르 수상자 연주 및 시상' '대동놀이마당' '만해시인학교' '2006 통일시전' '시조문학 심포지엄1 · 2' '불교문학 심포지엄' '전국고교생 백일장' '문학과 종교 심포지엄' '님의 침묵 서예대전 시상식' '제4회 유심작품상 유심신인문학상 격외시단 시상식' '한국문학 심포지엄' '국제문학 심포지엄' 등이 열렸다.

8월 23~24일에는 한국문인협회의 '한국문학 심포지엄', 26일에는 민족문학작가회의 비평분과위원회의 '민족문학 심포지엄', 현대시조 100년 작곡 발표회(KBS홀) 등이 열린다.

인제/글 · 사진=강지연 기자

▮ 정완영 시비 만해마을에 제막



미수를 넘긴 원로 정완영 시조시인의 시비(詩碑)가 8월 12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제막식을 갖고 단아한 자태를 드러냈다. 시비에 새겨진 '분이네 살구나무'는 중학교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동심의 세계를 아름답게 담아 낸 시조다.

이날 시비 제막식에는 오현 스님(만해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 이근배 시인 이지엽 교수(경기대) 등 100여 문인들이 동참해 축하했다. 이번 시비 제막식에 맞춰 정완영시조전집(토방 刊)도 출간됐다.

정완영 시인의 대표작으로는 '산거일기' '수수편편', 심청전의 서사구조를 시조 속에 녹여낸 '시암의 봄' 등이 있다.

강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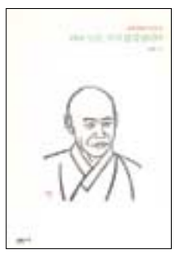

제10회 만해대상 시상식 후 기념촬영한 시상자와 수상자들. 왼쪽부터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 이은영 국회의원, 이수성 만해대상심사위원장, 박삼래 인제군수, 김진선 강원도지사,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촐롱 오논 몽골 대통령 영부인, 김지하 시인, 박원순 변호사, 권영민 서울대 교수와 부인 김옥수씨.

'인간 한용운'으로 '만해'를 읽는다

소설가 이채형씨 〈아아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내놔

8월은 만해 스님의 탄생달이기도 하지만 올 8월은 더욱 특별했다. 만해축전이 '현대시조 100년 세계민족시 대회'를 중심으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렸고 한국독서학회는 '8월의 독서인'으로 만해 스님을 선정했다. 서울시도 만해 스님이 만년을 지킨 성북동 심우장을 '8월의 문화재'로 선정했다.

소설로 환생한 만해 스님이 독자들 곁으로 온 것도 올 8월의 쾌거다. 중견 소설가 이채형씨가 수년간 만해 스님의 체취를 더듬은 결과물을 전기소설 〈아아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문학나무刊 1만원)로 내 놓은 것이다. 전기소설이라는 틀을 속에 만해 스님을 가두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작가는 명료한 자료들과 분명한 고증을 토대로 '인간 한용운'을 그렸다. 그 속에 만해 스님을 인식하는 키워드들을



자연스럽게 녹인 것이 이채형의 담백한 입담이다.

소설은 만해 스님의 청년기로부터 시작된다. 기우는 국운을 개탄하던 청년이 입산을 결행하고 동학 봉기 이후 홍주 의병에 가담해 생을 마친 아버지와 형의 시신을 손수 거두기까지. 오세암에서의 수도생활을 접고 세계를 무대로 만행을 떠났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뼈저린 체험. 다시 돌아와 오세암에서의 용맹정진을 통해 한 소식을 듣고 오도송을 인가받는 과정. 소설은 이렇게 만해 스님의 연대기를 중심으로 짜여 66세를 맞는 여름 심우장에서 입적하기까지의 시간을 촘촘하게 엮어 낸다.

무엇보다 이 소설을 재미있게 하는 것은 춘성 스님과 여연화 보살의 등장이다. 선이 굵은 만해 스님의 삶에 상좌 춘성 스님과 여연화 보살의 극진한 시봉은 만해 스님이 구도자와 시인과 지사의 삶을 살게 한 또다른 힘이었기 때문. 설악산 신흥사 회주 오현 스님의 추천사와 소설가 윤후명 황충상씨의 발문, 부록으로 엮은 만해 스님의 일화들도 〈아아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의 가치를 친절히 챙겨주고 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화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 하다 !! 제
신비와 영험의 치우천황(붉은악마) 영험도량 지장사 출현



소승이 그 동안 치우신의 기도를 통해 얻은 놀라운, 영험을 많은 중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 치우천황을 세상에 공개하니 치우신의 영험을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치우천황 (붉은악마)? 현제 SBS 방송중인 연개소문이나 MBC 주몽에 나오는 전쟁의 신, 군신으로서 그자체로 승리를 상징 합니다.
한국팀의 2002년 월드컵 첫경기인 폴란드와의 결전이 있기전 치우신께 정성껏 제를 올려 치후천황의 도술이 고강하여 한국팀을 돕고져 안개의 조화를 부려 한국축구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절망속에 빠진 신도분이 땅과집이 매매가 되지않아 법당의 신장상을 친견하고 놀라면서 스님 머리관이 붉은악마 치우천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연개소문에 나오는 치우천황 입니다. 스님은 시절인연이 옴을 깨닫고 치우신의 신비한 영험을 얻고져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정진중 치우신이 꿈에 선몽 되면서 집과 땅이 매매가 되었고 이후 많은 기도가성취되고 있읍니다. 스님은 치우신의 고강한 도술이 스님을 돕고 있는것을 깨닫고 절망속에 빠져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고져 합니다.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보고 굿을해도 되는일이없고 기도영험을 못보신분
치우신을 친견하고 신비의 영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위치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4번출구 하이마트앞 지장사
치우천황을 멀리서 친견 못하시는분들을 위하여 지장사 치우천황의 기를 받은 족자와 스님이 치우신께 올린 기도비법이 담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치우도는 소원성취 입니다 소장 하시면 큰 영험을 보실것입니다.
◆ 족자크기 : (가로 50cm×세로×120cm) ◆ 시주금 : 10만원
◆ 입금계좌 : 조흥은행 962-04-302262
◆ 문의 : 02)930-6052 지장사
※ 입시생은 치우신께 꼭 합격 발원을 하십시오 치우천황은 그자체로 승리 입니다.

"이름 대사전"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성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
※ 지금 주문하시면 5일후에 도착합니다

正宇 천연무공해 황토방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요사채를
천연 순100% 황토방으로
장엄하게 불사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정우 천연황토는 화학물질, 석회석, 시멘트, 본드 등 일체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순100% 천연황토만을 사용하며, 묻어 나거나 갈라짐, 깨어짐, 들뜸 현상이 없어 벽지나 장판을 사용하지 않아도 실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순 100% 황토가 아니면 시공비 전액을 받지 않겠습니다.



고건축.일반건축.동기와.황토방.인테리어시공 전문
正宇文化財建築
정우천연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이메일 bestceo12@naver.com

황무지 개간하듯 군산불교 일궈



관음사 경내는 온통 지장세계다. 108분의 지장보살님들이 도량을 지키며 중생 구제의 원을 밝히고 있다. 무더운 여름, 재곤 스님이 시원한 물로 지장보살님들을 씻겨주고 있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재곤 스님 (군산 관음사 회주)

84년부터 교도소 · 군포교 등에 앞장

재곤 스님은 1937년 공주 출생. 64년 선운사에서 출가했다. 은사는 남곡 스님. 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68년 동화사 강원을 졸업했다. 이후 문경 봉암사, 공주 마곡사 선원 등에서 안거를 했다. 교구본사 선운사 주지를 역임한 스님은 이후 내장사, 대흥사, 조계종 감찰부장 · 규정부장 등을 지냈으며, 조계종 9 • 10대 종회의원, 종정 사서실장 등을 맡았다.

스님은 특히 88년 전북불교총연합회장, 군산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맡아 전북불교 활성화에 전력했으며, 84년부터 군산교도소 지도위원과 9군단, 35사단 등 군포교에도 앞장서왔다.



매달 한번씩 여는 가족법회. 재곤 스님이 행복을 주제로 법문하고 있다.

불교 불모지 군산에 관음사 창건하고 포교 30년
'가족이 행복해야 세상이 평안' 10년째 가족법회
출가자는 예불 꼭 모셔야…자기 몸 움직여야 건강

당시 그 청년의 꿈은 교회에 있었다. 절대자에 의지하며 행복을 누리고 싶었다. 그러나 의심이 솟아났다. 도대체 절대자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발길 닿는 대로 쏘다녔다. 우연이었을까? 순간, 머물 곳을 만났다. 1964년, 꽃 피는 고창 선운사. 청년은 그 길로 머리를 깎았다.

재곤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군산 나운동 관음사. 열 집 건너 한 집이 교회다. 인구 밀도당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 인연이 얄궂다. 스님은 여전히 입산 전의 '오래된 기억'과 마주하고 있다.

포교, 수행의 다른 이름이었다. 척박한 군산 불교를 알차게 일궈야 했다. 78년, 허허벌판 한 곳에 블록 벽돌로 10평 법당을 짓고, 매주 어린이법회와 일요법회를 열었다. '포교도 수행이다'란 믿음으로 부처님 법을 자나 깨나 알렸다.

"포교 없는 수행은 없어야. 나 혼자만 수행하면 뭐 하겠서잉. 아무리 좋은 옥답이라고 해도 누군가 개척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여. 황무지를 개간하지 않은 사람은 문전옥답이 되는 황무지의 소중함을 모르지. 그저 문전옥답만 생각하는 거여. 마찬가지로, 여기 군산이 불교의 불모지임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여. 그란디 '여기 군산이 원래부터 불교의 황무지이니까, 개간하지 않아도 돼' 한다면, 대한민국에 좋은 농토는 없는 거여. 처음부터 옥토는 없는 것이여."

스님이 불교 불모지 군산에 관음사를 창건한 것은 척박한 지역에 점 하나를 찍은 것과 같다고 말한다. 만약 관음사라도 생기지 않았다면, 불모지는 더 불모지가 되지 않았겠느냐며 스님은 반문한다. 30년 넘게 군산불교를 일궈온 스님. 잠시 추억에 잠긴다. 하긴 개척자로서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선원에 들어가 방석 때를 묻히고 싶은 간절한 염원도 꼭꼭 눌러두고….

스님의 생생한 포교담은 나른한 오후를 긴장시킨다. 저린 다리를 고쳐 앉히고, 기자의 귀를 사정없이 잡아당긴다.

"목탁 소리가 법당 담을 넘어갈 때면, 어김없이 타종교를 믿는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서야. 그러면 대웅전 문 닫고 선풍기만 틀고 기도를 올렸지. 그때나 지금이나 군산은 교회 천국이여. 군 말없이 조용히 포교를 했서야. 왜 그런 줄 알어잉? 나 듣기 좋다고 남 듣기 싫은 짓을 해봐야 뭐하는감? 도심지에 직장인들이 잘 시간에 방해하면 뭐하겠는감? 그것은 부처님 욕 먹이는 짓이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늘 베푸는 마음이 불자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감?"

스님의 말이 깊게 울린다. 수행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왜 포교가 중요한지, 이해란 이름으로 타종교인에게 보이지 않은 폭력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곱씹게 된다. 머리로 아는 것은 늘 몸으로 한 경험만 못하다는 말이 어느 때와 다르게 다가온다.

스님의 포교관은 10년 넘게 해온 가족법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세상이 아무리 조용해도, 내 가족이 불편하면 세상이 불편하다'는 말로 스님은 법문을 시작한다.

"세상이 불편하다고 해도 가족 구성원이 화목하면, 그 웃음소리로 가정도 세상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여. 나부터 행복하지 못하면서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서야? 자기한테 가장 행복한 것은 자기 안에 있어. 그러니 가족 법회는 우선 가족부터 행복하자는 뜻으로 열기 시작한 것이여. 가족부터 행복하면은 그 행복은 어디에서나 넘쳐흐르지 않겠어?"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보인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 낯설게 느끼지는 까닭이 무엇일까? 스님의 답이 명쾌하다. '나의 불행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의심하기 때문이여.'

스님은 새벽 3시 45분이면 일어나, 좀 앉았다가 법당에 올라간다. 그리고 5시까지 좌선을 한 뒤 곧바로 새벽 6시까지 예불을 올린다. 출가 이후, 단 한번도 빠뜨리지 않은 철칙이다. 새벽예불 봉행은 출가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것이다.

"우리 법당에 올라가는 계단이 24개여. 가장 가까운 데 부처님이 계시지. 그런데 부처님을 뵙지 않는다면, 과연 불자이겠는감.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예불은 반드시 올리지. 그것이 출가자로서 나와 약속한 서원이여. 그렇지 않으면 출가자가 아니지."

스님의 건강비결이 궁금해진다. 쉼 없이 포교활동을 해온 스님. 칠순의 나이에도 포교열정이 조금도 식지 않은 이유를 묻자, 조금은 싱거운 대답이 돌아온다.

"딴 것 없어야. 자기가 자기 몸을 움직일 때, 비로소 건강이 있는 것이여.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건강할 수 없지. 안 그런가잉."

더위가 잔뜩 독이 오른 듯 하다. 푹푹 찌는 게 찜통이다. 덥다는 생각조차 덥다. 그래서일까? 세수 70에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재곤 스님의 포교열정이 한없이 존경스럽다.

글=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u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법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상표등록 : 614981호

수계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망사 단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최고의 선물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자기에 맞는 '분수 그릇' 챙기세요

재곤 스님의 가르침



불자들은 생활 속에 녹아든 인연법을 바로 깨쳐야 합니다. 붙들면 놓치고 내던져야 붙들리는 그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네 일상적인 만남도 인연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간 알게 모르게 지어온 인연관계를 만남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일상을 사는 재가불자들이 선 수행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만났던 인연인데?' 하고 그 만남의 인과를 의심하는 것. 이것이 선공부입니다. '이 만남의 인연은 무엇인고, 어디서 왔는고?' 하는 것이 화두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남의 인연을 궁구하는 것이 일상 속 선 공부법이 됩니다. 즉 '이 뭣꼬' 화두가 일상에 녹아든 것입니다.

마음을 다듬고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거울은 항상 상대를 거짓 없이 밝혀줍니다. 그러나 닦지 않으면, 습기나 먼지 같은 것이 끼게 됩니다. 인간도 거울과 같이 맑은 마음을 갖는데, 항상 닦지 않으면 탁한 것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은 항상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닦다 보면 깨끗한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도들에게 말합니다. 거울을 보고 웃으라고. 웃으면서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이 어떤지 압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먼저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예불을 드리기 전에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친견하면, 부처님이 빙그레 웃는 미소를 보입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불자들은 첫발을 잘 디뎌야 합니다. 공부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초년에 힘들더라도 앞을 내다볼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을 어떻게 잘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인을 잘 만나면 이 몸뚱이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몸뚱이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늘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중이 되서는 중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또 주지는 주지 소임을 갖고 살아야 하고 선객은 선객답게 살아야 한다'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분수를 지키라(守分)'는 가르침입니다. 중은 중 노릇을, 속인은 속인노릇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공부의 나침반입니다.

어떻게 분수를 지킬 수 있을까? 자기 배를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식탐을 잘 절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뱃속을 음식물로 꽉 채우고 살면 안 됩니다. 조금은 부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식탐을 조절하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분수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그릇 크기만큼 음식을 담아야 하지, 더 담으려면 넘쳐흐르게 됩니다. 터무니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마음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반성하지 않으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자신 밖에 모릅니다. 불자들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하면 남에게 끌려 다니게 됩니다. 행여 끌려 다녀도 '옳게 끌려 다녔는가, 옳게 끌려 다니지 못 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반성하고 참회해야합니다.

만남의 인연 의심하는 것이 禪공부…마음, 닦지 않으면 탁해져
베풀고 또 베풀어 완전한 무소유 될때 '편한 마음' 얻게 돼

아침에 부처님께 예불을 드릴 때, '어제의 삶을 반성하여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자기 일을 가다듬어서 생각을 하게하고, 취침 전에는 자기가 계획한 것이 어디까지 성취됐느냐를 생각해서 다듬어야 합니다. 혹자는 자신의 진심을 상대방에게 내보인다는 것은 내 자유를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배신이나 이용도 당합니다. 재가불자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마음을 쓰기가 어려운 까닭이 이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베풀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요? 텅 비었습니다. 무소유자는 말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마음도 편하다고 했습니다. 가령 가방에 돈이 한가득 들어있다면, 그 가방을 아무 곳이나 함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나 밖에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치약, 칫솔, 세면도구만 넣어갖고 왔다면 아무데나 놓고, 또 좀 놀다가 보면 있으면 있는가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처럼 마음은 편한 것입니다.

때문에 불제자들은 절대 가식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가식으로 살다보면, 언젠가는 자신을 아는 상대방에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참다운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당사자 나름대로 독특한 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른 불제자의 자세입니다.



'불들면 놓치고 내던져야 불들린다'는 재곤 스님. 재가불자들이 일상속에서 이런 연기의 이치를 깨치면, 자유인이 된다고 강조하신다.

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9>



부처님이 들려주는 처세술(1)

젊은이여.

오늘 이 맑은 아침에 그대는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온 세상을 향해 공손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구려.

나는 깨달은 자, 붓다요. 그대의 진지한 모습 속에는 세상을 현명하고 알차게 살아가고픈 바람이 담겨 있기에 내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성자들이 전해주는 처세술을 들려주고자 하오. 그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기울여보지 않겠소?

그대는 부자가 되고 싶소?

그렇다면 돈을 모으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다음의 여섯 가지를 명심하길 바라오.

첫째, 술에 빠지면 안 되오. 둘째, 노름이나 도박에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하오. 셋째, 방탕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하오. 넷째, 어디 구경거리가 없는가에 정신이 팔려 다니면 안 되오. 다섯째, 악한 벗과 사귀지 말아야 하오. 여섯째, 게으르지 말아야 하오.

당신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소?
나보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그대의 삶을 환히 비춰줄 것이오

그대는 사업상 또는 순수한 교제를 이유로 자주 술자리를 갖게 될 것이오. 하지만 술에 빠지진 말아야 하오. 술에 빠지면 재물이 없어지고, 몸에 병이 생기며, 자주 싸움을 벌이게 되고, 나쁜 이름이 퍼지며, 성품이 사나워지고, 머리가 둔해지오. 만약 그대가 술 마시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대의 집안 살림은 날로 줄어들 것이오.

노름이나 도박은 절대로 하면 안 되오. 여기에 빠지면 당연히 재산이 날로 줄어들고, 도박에서 이기면 원한을 사게 되고, 현명한 사람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되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신뢰 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자꾸만 멀리하게 되고, 결국 남의 재산을 훔칠 마음을 내게 되오. 노름을 그치지 않으면 그의 재산은 날로 줄어들 것이오.

방탕하면 자기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재물을 보호하지 못하며, 가족과 자손을 보호하지 못하고, 언제나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며, 항상 온갖 괴로움과 불행이 그를 따라다니며, 허망한 일을 당하게 되오. 방탕한 행동을 그치지 않는 사람의 재산은 날마다 줄어들 것이오.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리면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수를 구하느라 춤꾼을 구하느라 온갖 악기를 구색 맞추느라 시간과 돈을 허비할 것이니 그의 재산은 날마다 줄어들 것이오.

악한 벗과 사귀면 속임수를 배우게 되고, 으슥한 곳만 찾아다니게 되며, 남의 아름다운 사랑을 망치고, 남의 소유물을 탐하게 되고, 재물과 이익만 따라다니게 되며, 남의 허물 들춰내기를 좋아하게 되오.

게으름의 해악은 다음과 같소. 지금 형편이 넉넉하다고 해서 장래를 위해 굳이 일하려 들지 않는 것이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데도 부지런히 일하려 들지 않는 것이요, 추우면 춥다고 일하려 들지 않는 것이요, 더우면 덥다고 일하려 들지 않는 것이요, 때가 이르면 이르다고 일하려 들지 않고, 때가 늦었으면 늦었다고 일하려 들지 않는 것이오. 게으름피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의 집안 살림은 날로 줄어들 것이오.

그대는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소?

혹시 누군가 비굴한 모습으로 친하게 지내려 다가온다면 경계해야 하오. 왜냐하면 그런 이들은 자기가 준 것을 반드시 빼앗을 것이요, 적게 주고 많은 것을 그대에게 바랄 것이요, 그대의 세력이 두려워 억지로 친한 척 하는 것이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친한 체하기 때문이오.

그리고 술을 마실 때에 사귄 사람, 도박할 때에 사귄 사람, 음란한 짓을 할 때 사귄 사람, 유흥가에서 사귄 사람이 친하게 지내자며 다가오거든 경계해야 하오. 그런 자는 그대에게 악한 벗이 되어 반드시 그대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이오.

그대는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소? 잘못을 그치게 하는 사람,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사람,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 고락을 함께하는 사람을 사귀기 바라오. 이런 사람은 그대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고, 그대를 구원하고 보호하리니 그대는 서둘러 그런 사람과 친해지려 해야 하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상대가 게으르지 않도록 지켜봐주고, 상대가 게을러 재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상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따끔하지만 유익한 충고를 남몰래 건네는 사람이오.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거든 이런 사람을 찾아야만 하오. 이런 사람이라면 어둔 밤길을 비추는 불빛처럼 그대의 삶을 환히 비춰줄 것이오. <장아함 선생경>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www.webtbm.com
www.금강.net
할인에 서비스까지!! 지금이 기회
[TBM 병술년 추석맞이 할인행사]
051)505-2434

사찰신도관리 이제 손으로 작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2000여 사찰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금강장사를 사용해 보십시요.
가족중 한분의 이름만 알아도 빠른 검색이 가능하며 연말기부금증명서 출력은 물론 위패, 봉투, 등표, 인등표등 각종 양식이 인쇄가 되며 사찰에서 사용하는 각종회계장부를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제공하는 기능은 축원관리, 인등관리, 불사관리, 행사관리, 재무관리, 생일관리, 49제기타 설법자료보관, 일정관리, 명함관리, 신수보기(토정비결), 우편물관리, 자체신도증발급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종무행정의 최고봉 금강장사 할인 최고 30% !!

◆ 행사기간 : 2006. 8. 15 ~ 2006. 9. 30
※ 이번 행사는 TBM 3주년 행사입니다.
행사기획처인 TBM에서만 적용되는 가격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강장사 사용자에 한해 행사 기간중 사주대전 풀버전을 10% 할인 합니다.
◆ 행사내용 (서비스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 30% 할인 (서비스없음)
※ 우편 판매 가능함 : 요청에 의해 1회 방문 가능
2. 10% 할인시 제공서비스
① 축원자료입력
②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③ 용지 3종세트
◆ 정상 구입시 제공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1. KM1000 구입시
① 사주대전패키지 제공(주역 등) ② 축원자료입력
③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④ 용지 3종세트
2. KM9000 구입시
① 사주대전패키지 제공(명리 등) ② 축원자료입력
③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④ 용지 3종세트





TBM 금강장사 051)505-243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효승 오피스텔 303호

동신대학교 차(茶)학과 안내

1. 학과소개
최근 '웰빙'이라는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갈망, 건강지향, 문화지향, 편의성추구의 소비자 트렌드에서 볼 수 있듯이 차 문화와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유망한 산업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유기농 농법에 의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품종 개량, 선진 가공기술, 글로벌 마케팅과 체계적 유통에 의한 명품 브랜드의 개발, 차 효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여 2007학년도부터 차(茶)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에 의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중국 절강대학과의 학점교류에 의한 복수학위제(추진중), 국제 학술 세미나, 국제 차 문화 체험 행사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2. 교육목적
본 학과는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차의 품종을 개발하고 차 산업화를 선도하며 차(茶)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향한다.

3. 교육목표
- 차(茶)의 재배 및 차 문화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육종개발을 통한 명차 생산 및 차(茶) 품종의 자원화
- 국제경쟁력을 갖춘 차(茶)전문 인재 및 지도자 육성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제다기술 개발 및 명차(茶) 생산과 품질관리사 배양

4. 교과과정
◈ 1,2학년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및 정보전산 교육, 차의 역사, 다도, 철학, 전통예절, 행다법 등 기본 교양교육
- 차문화 고전연구, 차 재배 및 제다 등에 관한 기초이론 교육
◈ 3,4학년 - 육종 및 생산, 유통, 마케팅, 차 문화기획 등 차에 관련한 전공교육
- 품질평가학, 제다학, 품종개량학, 다예학, 차나무재배학, 차문화사
- 중국 절강대학교 다학계(茶學系)의 교류 협력(추진중)

5. 교육환경
◈ 교내 : 삼매원(전통예절교육관), 산업융가속기이용생물연구센터(RRC),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BT)의 품종 개량실, 종자 은행, 의과대학, 한약재산업학과
◈ 교외(협력시설) : 영농조합지리산명차원, 초의선원, 초의선사기념관(무안군 삼향면 소재), 보성군차영농조합

6. 자격증 ◈ 다도사범증 기사 1, 2급(추진중), 제다사, 품종개량사, 품질평가사, 다예사

7. 졸업후 진로 ◈ 기업체 및 학교 다도예절 전문강사 (유통업계, 백화점, 호텔 등의 매니저)
◈ 차 문화 행사 연출 기획가, 차 요리 전문가, 차 미용 전문가 ◈ 대학원 진학
◈ 국내외 관련기관 및 식품가공 연구소, 식약청 등의 공무원 취업
◈ 국제 차 전문가, tea 마케터, tea 매니저, 차 브랜드개발 , 차 비즈니스리더, 차 무역업
◈ Tea shop 운영, tea consulting, tea house ◈ 차 산업 전반에 대한 창업

◆ 입학안내 : 동신대학교 입학관리처 (☎ 061-330-3333) www.dsu.ac.kr

손수 茶씨 심고 가꾸어 널리 전파

열반 1212주년 맞은 김교각 스님과 차

8월 20일. 경기도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에서는 '지장왕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교각 스님의 열반 1212주년을 맞아 '제9회 김교각 스님 추모 헌다례'와 '제2회 지장왕보살 큰 축제'가 열렸다. '구화산의 신화, 김교각 스님' 다큐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백천다경회의 헌다례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차인들이 참석해 교각 스님의 생애와 차 정신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차계에서 더욱 조명 받고 있는 교각 스님의 삶과 차 인연을 살펴본다.



'지장왕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김교각 스님은 중국에 신라의 차를 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김교각 스님의 차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중국 안휘성 구화산 육신보전에 모셔진 김교각 스님상. 현대불교 자료사진

백천사, 추모 헌다례 및 지장왕보살 큰 축제 열어

▷ 교각 스님은?

신라 왕족 출신, 中 구화산서 75년간 수행하며 대중 교화

최근 불교계와 차계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반해, 김교각(696~794) 스님의 일대기와 행적은 사료를 통해 명쾌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김교각 스님은 신라 효소왕 5년(696)에 태어났다. 성은 김씨이고 제35대 경덕왕의 가까운 친척 또는 신라 왕족이라고 한다. <구화산화성사기(九華山化城寺記)>에는 '신라 왕자로서 김씨 왕족과 근속(新羅王子金氏近屬)'으로, <송고승전(宋高僧傳)>에는 '신라 국왕의 지속(新羅國王支屬也)'로 기록되어 있다. 일설에는 31대 신문왕의 아들 보질도 태자가 교각 스님이라는 주장도 있다.

신라의 왕족 가문에서 태어난 스님은 신분을 버리고 출가해 '지장'이란 법명을 받았다. 성덕왕 19년(720) 키우던 개 선청을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간 뒤 명산을 찾아다니다 구화산에 이른다.

구화산 화성사 동쪽 골짜기 절벽 위 동굴에서 수행생활을 시작한 스님은 흰모래와 쌀을 섞어 죽을 끓여 먹으면서 정진했다고 한다. 이를 지켜본 청양현의 장자 민양화가 스님의 법력에 감화되어 구화산을 시주했고, 스님을 위해 절을 지었는데 이 절이 구화산의 첫 번째 사찰인 화성사다. 이때가 757년이다.

스님은 입적할 때까지 75년간 구화산에 머물며 대중을 교화했다. 스님의 명성은 신라에도 알려져 수많은 구법승들이 구화산을 찾아 가르침을 청했다.

스님은 당 정원 10년, 신라 원성왕 10년(794) 음력 7월 30일에 99세로 열반에 들었다. 3년 뒤 제자들이 스님의 법신을 안장하기 위해 석함(石函)을 열었는데, 스님의 법신이 생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한다. 제자들은 스님을 지장보살의 화신이라 믿고 797년 구화산 남대에 등신불을 모시고 그 위에 육신전을 지었다.

이후 구화산은 무하 스님을 비롯해 12분의 등신불이 출현하며 중국 4대 불교명산이자 지장보살성지로 자리매김했다.

▷ 교각 스님의 차 인연

'금지차' '구화차' 등 전해져 우리나라 최초 茶詩도 지어

'지장왕보살' 교각 스님은 '차인'으로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중국으로 건너갈 때 신라 '금지차(金地茶)' 씨와 볍씨인 황립도(黃粒稻), '선청(善聽)'이란 삽살개 등 다섯 가지를 가지고 갔다고 전한다. 구화산에 머물며 수행했던 스님은 손수 차씨를 심고 가꾸었다고 한다.

교각 스님이 가지고 간 차씨에 대해서는 여러 사서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1669년 지어진 <개옹다사(介翁茶史)>에서는 '구화산에 공경차(空梗茶)가 있는데 이는 김지장이 심은 것이다(是金地藏所植).'고 전한다. <구화산지(九華山志)>에서는 '금지차(金地茶)는 줄기 속이 가는 대나무처럼 비어 있다.(梗空如) 전하는데 김지장이 가져온 차씨였다고 한다(相傳金地藏携來種)'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스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차시(茶詩)라 할 수 있는 '동자를 보내며(送童子下山)'라는 시를 지었다. <전당시(全唐詩)>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차 달이고 꽃 희롱하기도 이제는 그만(烹茗中罷弄花)'이라는 구절을 살필 수 있다. 지금도 중국 구화산 일대에서는 금지차, 구화차 등의 이름으로 지장차가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스님의 차 인연을 기리기 위한 노력도 국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 백천사 주지 무구 스님은 199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라왕자 김교각전'을 개최했고, 지난 2004년에는 백천사 내에 '김교각 스님 기념관'을 세워 교각 스님 관련 유물 및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후 수많은 소설로 거듭나기도 했다. 소설가 정찬주씨는 2004년 교각 스님의 생애를 소설로 엮은 <다불(茶佛)>(랜덤하우스중앙)을, 정형남씨는 지난해 <천년의 찻씨 한알>을 각각 펴냈다. 현재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한 드라마 '대한국인 김교각'도 제작 중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명사 11인의 차 인연담

'와온 바다에서 차를 마시다'



차를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차와 얽힌 인연담이 한두 가지쯤은 있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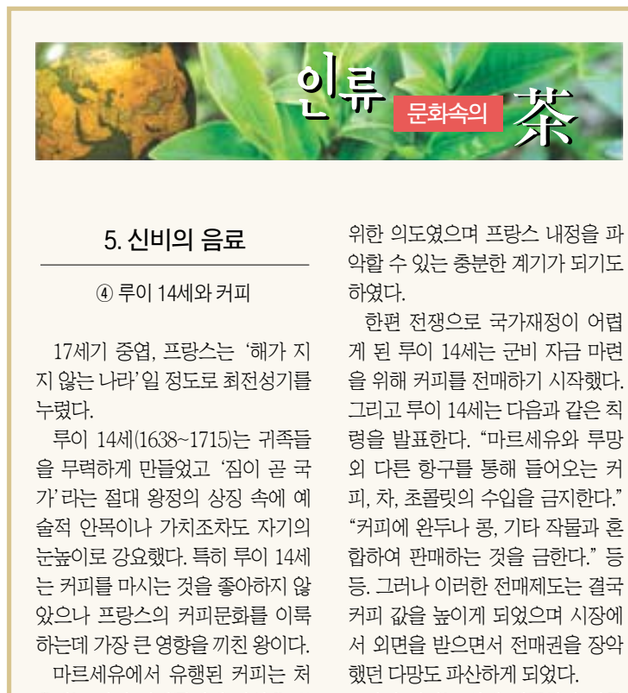
<와온 바다에서 차를 마시다>(예문)는 우리시대의 명사 11인이 차를 마시게 된 사연과 차로 인연을 맺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이다. 책 제목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곳으로 유명한 전남 순천의 와온(臥溫) 바닷가에서 차를 마시며 느낀 단상을 적은 시인 곽재구씨의 글 제목에서 따왔다.

육십 평생을 차 만드는 일에 매진해 온 지허 스님(순천 금둔사 주지)에게 차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이며, 바쁜 시간 짬을 내 연구실에서 차를 마시는 미술사학자 강우방씨에게는 '잠시나마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휴식'이다.

초의선사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 <초의>의 저자 소설가 한승원씨는 "사람이 차를 마신다는 것은,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의 깊은 만남을 뜻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문화평론가 조병준씨는 인도에서 맛본 짜이와 짜이 한 잔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 이야기를 풀어 놓으며 차를 '나눔의 연금술사'라 부른다. 이 밖에 수필가 정목일, 영화평론가 김영진, 국문학자 유건집, 전통문화연구가 이연자씨 등이 차에 얽힌 잔잔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9천8백원.

여수령 기자

瑞榮普洱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홍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5. 신비의 음료

④ 루이 14세와 커피

17세기 중엽, 프랑스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정도로 최전성기를 누렸다.

루이 14세(1638~1715)는 귀족들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 왕정의 상징 속에 예술적 안목이나 가치조차도 자기의 눈높이로 강요했다. 특히 루이 14세는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프랑스의 커피문화를 이룩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왕이다.

마르세유에서 유행된 커피는 처음에는 파리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커피가 본격적으로 파리지엔(Parisians, 파리토박이)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터키 술레이만 아가 대사가 프랑스와의 외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에 거주했던 것이 큰 계기가 됐다. 자기 과시와 관심 받기를 좋아했던 루이 14세는 술레이만 아가 대사와 만남을 위해 궁전의 온갖 실내장식과 호사스런 의상을 마련했고 신하들조차 치장을 하고 그를 맞이하게 했다.

술레이만 아가 또한 루이 14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상당량의 커피와 잔, 포트, 의상 등 터키의 신비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궁정에 소개한다.

이후 술레이만 아가는 파리에 저택을 구입하여 터키식으로 집안을 꾸몄다. 페르시아 풍의 분수와 집안의 은은한 장미 향기, 기대앉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무릎을 꿇은 하인들에게서 시중을 받으며 뜨겁고 쓴 커피를 마시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커피에 설탕을 넣어 마시기도 한다.

이것은 파리 귀족, 특히 여성들의 관심을 끌었다. 저택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커피 기구, 중국 도자기, 잔, 냅킨 등 프랑스에서 아직 유행되지 않았던 물품들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것들은 프랑스 궁정, 군비 상황 등 자세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프랑스 내정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전쟁으로 국가재정이 어렵게 된 루이 14세는 군비 자금 마련을 위해 커피를 전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루이 14세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발표한다. "마르세유와 루망 외 다른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커피, 차, 초콜릿의 수입을 금지한다." "커피에 완두나 콩, 기타 작물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한다." 등등. 그러나 이러한 전매제도는 결국 커피 값을 높이게 되었으며 시장에서 외면을 받으면서 전매권을 장악했던 다망도 파산하게 되었다.

당시 커피는 아직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전매제도는 사실상 시기상조이었다. 이

전매제도 실패는 자유시장경제 전환 계기

카페, 파리 시민의 정신적 안식처로 자리



터키 술레이만 아가 대사가 파리에 유행시킨 터키 금속 공예품인 커피포트와 설탕 그릇, 잔.

후 전매제도의 거듭된 실패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의 카페는 영국과는 달리 남녀의 출입이 자유로웠으며 공무원, 도박꾼, 노동자 등 평민들의 집합소였다. 이들은 이곳에 간다는 자체만으로 큰 즐거움을 느꼈다.

카페 주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증류주 제조업을 하는 '음료 공급업자'들에게 허가증을 주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허가증은 커피를 맛있게 마시기 위한 기술을 증명해 보이거나, 교육을 받았다는 증서가 아니며 단지 왕의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다.

18세기가 되면서 종교와 사회적 변화 그리고 다방면에 걸친 개혁의 징후들이 출현했으며 문학을 통해 커피의 유용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유명한 철학자이었던 몽테스키외는 "커피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네 배 이상 총명해지게 한다"고까지 극찬했다.

이 시대의 카페는 파리 시민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커피 한 잔을 놓고 하루 종일 앉아 사색하고, 말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장소였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처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2006 학년도 불교범패작법전수원
제1기 수강생 모집
새벽종성,조석예불,사시불공,각단불공,천도재,49재,사물(태징,북, 목탁,요령)다루는법,구명시식,점안의식등 상주권공 〈범음범패의식〉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불교의식을 전혀 모르시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스님,포교사,재가불자,장차 출가를 계획하고 계신분 등 불교의식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좋은인연 되시길 기원합니다.
◆ 개강 : 2006년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학 과	수 업 일	기 간
기초의식반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시	1년
상주권공반	작법반 매주 수요일 오후1시-오후3시	2년
	범패반 매주 수요일 오후4시-오후6시	

교육내용
◎기초의식반(평염불.목탁불공) : 새벽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청. 각단불공. 천도재. 49재. 구명시식. 점안의식
◎상주권공반(작법반) :〈바라춤〉요잡바라. 관욕바라. 화의재바라.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명바라. 내림게바라. 〈나비춤〉사방요신. 도량게. 다게. 운심게. 오공양. 모란찬. 삼귀의. 긔경이. 향화게
◎상주권공반(범패반) : 초할향. 등게. 정례. 합장게. 고향게. 개게. 쇄수게. 복청게. 사방찬. 향수나열. 욕건이.가지게. 사물다루는법. 천도재(범음범패). 49재. 구명시식. 점안의식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 기초반강사 : 원각스님 ● 작법반강사 : 자인스님
● 범패반강사 : 도담스님
※ 사찰에서 각종의식(49재,천도재,점안의식, 구명시식,예수재,영산재) 봉행해드립니다.
불교범패작법전수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89-28(시청옆) ☎033)731-7759
E-mail : bumpae@yahoo.co.kr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열대과일 잘못 먹으면 독?

두리안, 망고스틴, 람부탄…. 최근 우리 식탁과 불단(佛壇)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열대과일들이다. 이 중 '과일의 왕' 이라고도 불리는 두리안은 선방 대중공양 과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 현대백화점에서만도 올 여름 월 평균 2000만원 어치의 두리안이 팔린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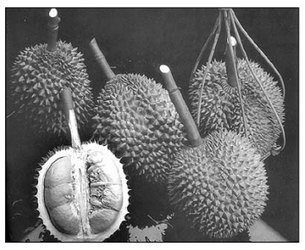
색다른 맛과 향으로 입맛을 당기는 열대과일. 하지만 여느 음식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지방 함량이 높거나 몸에 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먹지마 건강법' 으로 잘 알려진 손영기 한의사(손영기한의원장)는 〈태교비전〉(북라인)에서 "임산부는 열성(熱性)이 강한 두리안이나 파인애플 등의 과일을 금해야 한다"고 말한다. 임산부가 열성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아이가 아토피와 같은 열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요즘 많이 수입되고 있는 열대과일의 특징과 섭취 시 주의점을 살펴본다.

대중공양으로 인기 두리안
열 많이 나게 해 주의요망

▷ 두리안(Durian)



'과일의 왕' 으로 불리는 두리안은 삐죽삐죽한 겉모습과 독특한 냄새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 번 맛보면 푹 빠지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다. '두리안에 미치면 집도 팔고 마누라까지 판다' 는 베트남 속담이 있을 정도다.

최근 국내에서는 동남아에서 유학하거나 성지순례를 다녀온 스님과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며 백화점이나 전문 수입업체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열량(100g당 133㎉)이 높을 뿐 아니라 몸에서 열을 많이 내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여름에 두리안을 먹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태국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두리안이 인체 기관을 뜨겁게 만들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는 두리안을 술안주로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리안을 먹을 때 많은 양의 물을 함께 마셔 몸이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 망고스틴(Mangosteen)



두리안이 '과일의 왕' 이라면 망고스틴은 '과일의 여왕' 이라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원산지로 열매 크기는 탁구공보다 약간 크고 짙은 자줏빛을 띤다. 단단한 껍질을 벗기면 마늘과 같은 하얀색 과육이 나온다. 새콤달콤한 맛이 나며 얼어있는 열매를 살짝 해동시켜 먹는다.

몸을 뜨겁게 하는 두리안과 달리 망고스틴은 몸을 차게 만든다. 몸이 냉한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두리안을 먹을 때 곁들여 먹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타민 B, 비타민 C, 인, 칼슘 등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후식으로 1~2개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하다.

포화지방 함량높은 코코넛
열량 높고 동맥확장 위험

▷ 코코넛(Cocon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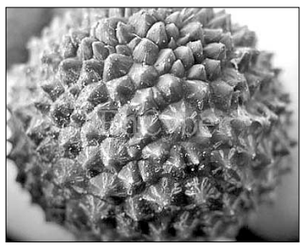


윗부분을 자르고 빨대를 꽂아 액체를 마시는 코코넛은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놀이공원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과일이다. 야자나무의 열매인 코코넛은 시원하게 해서 마시면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고 과육은 구수한 맛을 낸다.

문제는 식용유로 쓰일 정도로 지방 함량이 높다는 것. 코코넛 100g당 33.6g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열량이 자그마치 353㎉에 이른다. 게다가 코코넛 지방은 혈관 건강에 해로운 포화지방 비율이 89%를 차지한다.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심장전문의 스티븐 니콜스 박사가 〈미국심장학회 저널(Journal of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최신호(8월15일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코코넛오일로 만든 음식을 지나치게 먹으면 혈류량이 증가해 동맥이 확장된다고 한다.

▷ 리치(Liz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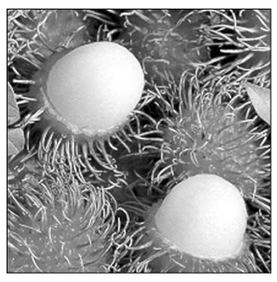
중국 요리점에서 후식으로 나오는 과일로 친근하다. 약간 해동된 상태에서 칼로 살짝 흠집을 낸 껍질을 손으로 잡아당기면 반투명의 과육이 나온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일품. 양귀비가 즐겨 먹었다고 전해지는 리치는 각종 비타민과 구연산, 펙틴, 인, 철 등의 성분이 풍부한 '종합영양제' 이기도 하다. 특히 리치에 함유된 비타민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근깨를 방지하고 피부를 윤기있게 가꿔준다. 빈혈이 있거나 잦은 설사, 복통, 입 냄새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하지만 열대 과일 중 가장 보관이 어렵고 맛이 쉽게 변하는 성질 때문에 통조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인공 향료를 넣기도 한다. 하루 5알 정도가 적당한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입이 마르고 땀이 나고 어지럼증이 나는 등 '리치병'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혈액순환 촉진 좋은 리치
많이 먹으면 어지럼증 유발

▷ 람부탄(Rambutan)



람부탄은 말레이시아어로 털이 있는 열매라는 뜻. 리치와 비슷한 맛을 내지만 껍질에 울퉁불퉁한 가시가 덮여 있는 점이 다르다. 껍질을 벗겨내면 말랑말랑한 흰색 알맹이가 나온다. 과즙이 풍부하며 단맛과 신맛을 낸다. 반으로 자르면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다. 태국에서는 매년 8월 람부탄 과일축제(Rambutan Fair)를 개최할 정도로 대중적인 과일이다. 역시 국내에 수입될 때는 냉동상태나 통조림으로 수입되므로 보관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30〉

버섯전골과 버섯전



야채에는 몸속의 독소를 배출해 주는 항산화제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버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땀은 땀대로 많이 나오고, 힘은 힘대로 들어서 기력이 빠지는 여름엔 더욱 버섯 등의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한 번은 참 희한한 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보살님 댁에 놀러가서 먹어 본 음식인데, 찌개같기도 하고 죽같기도 했습니다. 바로 버섯과 오이를 넣은 찌개입니다. 하지만 그 맛이 얼마나 담백하고 부드러웠는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오이를 넣어서 끓인 찌개라. 신기하기도 한 마음에 보살님께 왜 오이를 넣어 찌개를 만들게 되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보살님은 "시어머니께서 여름에 오이와 버섯을 많이 먹으면 더위를 안 먹는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음식을 공부하며 민간요법과 약선음식에도 관심을 갖게 된 저는 오이에 더위를 막아주고, 거기에 더해 버섯은 몸에 힘을 불어 넣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름엔 고기보다 훨씬 좋은 음식인 셈이지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이렇게 배운 음식들을 다시 사찰음식에 응용해 보곤 합니다. 옛날엔 나물과 죽, 장아찌가 주를 이루는 것이 사찰음식의 특징이었다면 요즘엔 다양한 재료와 요리법으로 사찰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 전통이 변질된다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찰음식 본연의 정신에 충실하다면 그리 걱정할 일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쉽게 만들어 맛있게 먹으면서도 그것이 자연에서 온 우리 먹을거리이고 그 속에 음식의 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사찰음식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드는 법





버섯전골(4인분) 재료: 오이 1/2개, 양파 1/4쪽, 느타리버섯 2줌, 팽이버섯 1봉, 새송이버섯 4개, 양송이버섯 4개, 죽염 약간, 표고버섯가루 1작은술, 국간장 약간, 들깨가루 약간, 찹쌀가루 1작은술, 산초가루 약간

① 표고버섯가루에 물 4컵을 넣고 표고버섯 물을 만들어 먼저 살짝 끓여준다.② 오이는 반을 잘라 어슷하게 썰고, 양파는 채 썰어준다. ③ 느타리버섯은 손으로 찢고 팽이는 밑둥을 잘라 준비한다. ④ 새송이는 반을 잘라 어슷하게 한 입 크기로 잘라주고 양송이는 편으로 썰어준다. ⑤ 만들어진 표고버섯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오이와 새송이·양송이·느타리버섯, 양파, 팽이버섯 순으로 넣어 준다. ⑥ 완전히 끓어오르면 죽염과 국간장으로 간해주고 찹쌀가루를 풀어서 농도를 맞추고 먹기 전에 들깨가루와 산초가루를 넣어 준다.

버섯전(4인분) 재료: 느타리버섯 1줌, 팽이버섯 1봉, 청고추 1개, 통밀가루 2큰술, 밀가루 1큰술, 죽염 약간, 들기름

① 느타리버섯은 한번 데쳐서 아주 가늘게 채 썰어준 후 죽염으로 버무린다. ② 팽이버섯은 송송 썰어준다. ③ 청고추는 가늘게 채 썰어준다. ④ 밀가루에 재료를 넣어 반죽한다. ⑤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른 후 한 입 크기로 부쳐준다.

▶다음 주에는 감자장떡과 감자조림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六壬·命理 專門家課程 募集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학문이 아닙니다.
실전감정을 통한 천고비전을 전수하고자 합니다.
입 학 안 내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4매
◆ 모집인원 : 00명
◆ 수 강 료 : 육임 · 명리과정 총 30만원
◆ 교육기간 : 12주(3개월)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六壬 오전 10시 ~ 12시 命理 오후 2시 ~ 4시
◆ 개 강 일 : 2006년 9월 5일
◆ 접수문의 :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교 학 과 02)766-1321~2
담당교수 011-524-1080 / 011-1763-3567
◆ 특 전
- 전 과정 수료 시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총동문회 회원
- 미국 켈리포니아 유인대학교 교육과정 인증서 발급
- 본 교육 수료 후 관련 자격증 취득 (단, 자격증 취득 시 소정의 비용은 본인 부담)
서울시 종로구 숭인1동 55-6 수석빌딩 3층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www.hsde.ac.kr

62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신규 동참자 특별 선물※
청견스님께서 밝은 기운으로 한 호흡에 握筆로 쓰신 "佛"자 붓글씨,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염송 TAPE
◆날 짜 : 2006년 8월 26일 (토요일) 저녁 9시~ 2006년 8월 27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결레, 면티 2매, 물병, 수련복(하의)2매, 간단한 간식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하얀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 청견스님 011-9088-9449
⊙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1번 출구 군자역방향 100M GS광진주유소 2층 지하철 5호선 군자역 6번 출구 어린이대공원정문방향 200M GS광진주유소 2층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일곱번째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해조음 刊 원통 저
신국판 390쪽
출제의 신기
우리 곁에 오신 미륵 ● 원통
미륵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있는가?
- 내가 깨닫는 공(空)은 대공(大空)이 아님이요, 공(空)이 오셔야 진공(眞空)이 된다.
- 이는 후오백세(말법시대)에 이루어질 불가사의한 대 성취이다 〈금강경〉
※ 진정으로 현생에 대성취를 원하시는 분만 읽어 보십시요!!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불서보급 총판 운주사 02)3672-7181~5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청취자 마음 활짝 열어 드릴께요



불교방송 '뮤직펀치' 진행자 불자 개그맨 문세윤

불교방송 '뮤직펀치'(매일 오후 12:15)를 진행한지 한 달된 불자 개그맨 문세윤. 7월 24일 첫 방송이 나간이래 매일매일이 긴장과 즐거움의 연속이다.

"고정 패널 역할 외에 자신의 이름을 단 프로그램은 처음"이라는 문세윤은 DJ를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으로 꼽는다. "DJ는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매력적인 일인만큼 첫 DJ를 맡은 '뮤직펀치'를 좀더 재미있게 끌어가고 싶다"는 것이 그의 욕심이다. 열심히 배우는 마음으로 방송을 해서 일까. 월요초대석, 수요 라이브 코너 등 모든 코너가 매력적이다. 아직 '초짜'여서 음악을 잘못 소개하거나 생방송의 시간을 잘 못맞추는 실수도 하지만 이것도 생방송의 묘미라 생각한다.

이것이 아니면 못살겠다 할 정도로 너무 사랑하는 개그는 문세윤의 삶의 기둥이다. 문세윤이 개그맨이 된 것은 성대모사에서 비롯됐다.

"고등학교 시절 방송사의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에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려고 장난삼아 참가했는데 상을 받았어요, 성대모사로. 방송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KBS 개그콘서트에서 한번 나오라고 연락왔는데 사실 안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개그맨 권진영씨가 학교 선배라서 나오라고 하는 바람에 개그콘서트에 합류했죠."

"DJ, 해보고 싶었던 직업"
수요 라이브 코너 등 매력
코믹 연기로 영화 데뷔도
"불교 믿으니 마음 편안해져"

개그콘서트에서 단역으로 기본기를 다진 그는 SBS 웃찾사 원년멤버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출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도 웃찾사가 처음이었다.

최근 영화도 찍었다. 8월 말 개봉할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에서 주인공에게 씨름을 가르쳐주는 씨름부 선배 역을 맡아 코믹하면서도 잔잔한 연기를 선보이며 영화에 데뷔한 것.

"'천하장사 마돈나'는 가진 거라고는 힘밖에 없는 소년 장사 동구의 성장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가 되고 싶은 동구가 씨름부에 들어가서 갖가지 에피소드 겪으면서 성장하는 내용이죠. 캐릭터들의 특색이 잘 살아있고 감동과 재미를 잘 섞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연기 호흡이 느린 영화와 호흡이 빠른 개그 사이에서도 문세윤은 자신이 연기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개그맨 문세윤에게 불교는 "사람의 마음을 열도록 기다리는 종교"이다. 항상 힘들 때 가서 쉴 수 있는 그늘을 지닌 큰 소나무처럼 말이다.

식구들도 모두 불자다. 어머니는 그를 위해 항상 절에 가서 기도한다. 그래서일까. "불교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다"는 문세윤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바쁜 스케줄 때문에 절에 직접 가지 못해도 마음 만은 불교와 함께 있다"고 고백했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참선 자주 하니 농구 잘 돼요"

美 대표팀 셰인 배티어 선수 봉은사 방문, 스님과 차담

비타 500 월드바스켓볼챌린지(WBC) 2006 대회에 참가 중인 미국대표팀의 셰인 배티어(28 · 휴스턴) 선수가 바쁜 일정을 쪼개 8월 13일 서울 봉은사를 찾았다.

리투아니아와의 경기가 열리기 직전 봉은사를 찾아 교육국장 선업 스님을 만난 배티어 선수는 경내를 차분히 둘러보고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불교와의 인연을 털어놓았다.

선업 스님에 따르면 절이 너무 좋다는 배티어 선수는 참선은 자신의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좋아서 참선을 많이 하게 된다고 고백했다.

"운동선수에 평정심 절실"



미국 프로농구 NBA 공식 홈페이지(nba.com)에 실린 선업 스님과 배티어의 차담 사진.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봉은사를 찾아 참선을 배우고 싶다는 배티어 선수는 이미 지난 2000년 팬들과의 인터뷰에서 "불교에 상당한 관심이 있고 '선(禪) 사상'은 농구를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며 "농구와 학업 모두 강한 의지와 평정심을 지녀야 한다는 것과 너무 과하거나 모자라서는 안되는 중도를 걸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의 사상"이라고 밝히는 등 불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왔다.

영화를 좋아하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셰인'을 본따 이름이 셰인이 됐다는 배티어 선수는 어머니도 역시 불교에 관심이 많다는 말도 전했다.

배티어 선수가 특별히 봉은사를 찾은 이유는 숙소인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절이 보였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배티어 선수에게 참선은 최고의 마음 평정법이었던 것. 배티어 선수는 경기를 앞두고 무작정 봉은사로 발길을 옮겼다. 봉은사를 방문하고 싶어한 동료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못온 것을 아쉬워 했다는 후문이다.

강지연 기자

'아시아 남아' 유덕화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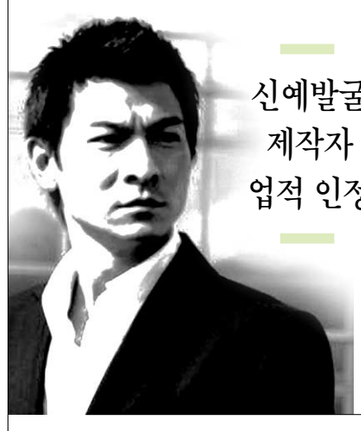
올해로 11회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네 번째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 주인공에 홍콩 배우 겸 제작자 유덕화가 선정됐다.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유덕화는 1980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래, 90년대 홍콩 영화의 황금기에 '지존무상' '열혈남아' 등에 출연하며 여명 장학우 곽부성과 함께 사대천왕으로 불렸다. 배우 뿐 아니라 가수로서도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유덕화는 2000년 '암전'으로 홍콩 금장상 남우주연상 수상 이후, 2004년 '무간도'로 홍콩금상장과 대만금마장 남우주연상을 동시 석권하며 배우로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2006년 홍콩금상장에서는 남우인기상을 받아 20년간 지속돼 온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부산영화제측은 "지난 20여년간 홍콩의 톱스타 자리를 지켜오면서 범 아시아권 스타로 활동해 온 유덕화가 최근 아시아의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고 키우는 제작자로서의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것에 주목했다"며 "범 아시아권 스타에서, 이제는 범 아시아권의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작자로서 새로운 영화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유덕화의 업적을 인정해 그에게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수여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 영화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영화인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은 2003년 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신설됐다. 첫 해 이란의 거장감독 '모흐센 마흐말바프'에 이어 2회 대만의 '허우 샤오시엔' 감독, 지난해에는 일본 'NHK 방송사'가 1995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한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있다.

강지연 기자



신예발굴 제작자 업적 인정

연꽃 화가 김나현 초대展

금분을 사용해 고려불화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연꽃 그림이 8월 26일까지 서울 경운동 장은선갤러리에서 관람객들을 만난다.

연꽃의 화가라 불리우는 김나현씨는 장지에 분채를 곱게 갈아 은은하게 여러겹 겹쳐 채색하는 채색화의 전통기법을 활용해 연꽃의 단아하고도 우아함을 표현해 냈다.

작품 속 연꽃은 모두 백련. 백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김나현씨는 "흰색이 화사하면서도 우아한 자태로 드러나지 않고 모두에게 평안한 감정을 전해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02)730-3533

강지연 기자



큰 연꽃이 작은 연꽃을 감싸는 형태로 표현된 김나현씨의 채색화 '연꽃'.

BBS 불교방송

하루가 열리는 상쾌한 아침!
긴리의 말씀이 있어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경전공부〉

고불총림 백양사 강원 강주 법광스님의
원각경 강의로 함께 합니다.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부산 89.9 Mhz / 광주 89.7 Mhz / 대구 94.5 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97.7 Mhz / 포항 105.5 Mhz


대행스님

다 내던져 버리고 편안하게 사세요!

자식을 올바르게 이끌려면

문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길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청개구리가 따로 없이 그렇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기에 제가 열심히 살아서 부모에게는 효도를 해야 하고 자식들은 남부럽지 않게 길러서 내보내야 하는데 '사는 게 뭔가? 내가 왜 자식에게 내 자신의 삶을 저버리고 이렇듯 희생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살기가 싫어집니다. 스님께서는 원수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으로 만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인연의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이끌어 줘야 하나요?

답 애착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또 부모한테도 그렇게 애착을 두지 말고 효도를 해라이겁니다. 자식이나 부모나 남이나 똑같이, 남한테 이익하게 하고, 겸손할 줄 알고, 고개 숙일 줄 알고, 마음으로써 말입니다. 항상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면 누구한테나 인과응보라는 그 소리조차 없을 것이고 또는 자식과 부모지간에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금끼리 만나고 이렇게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이렇게 받아야 하고, 이렇게 아파야 하나 이러지만 그것이 애당초부터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의 인연에 따라서, 인과응보에 따라서 만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면치 못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 있을 때 이 도리를 알고 배워야, 죽어서도 지금 살아 있는 그 애착과 모든 걸 다 몰락 버리고서 애착을 두지 말고, 욕심도 두지 말고, 내가 한생각 전부 놨을 때 비로소 죽어도 그것은 시공이 없는 그 대공의 한자리를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끄달리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윤회에 말리는 것도 억겁을 거쳐서 말리지만, 우리가 한생각 돌려서 이 도리를 몰락 놔 버리고 안다면 또 말리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산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빨치산으로 붙들렸거든요.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조회를 했던지 인제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산으로. 찾아왔는데 보니깐,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참 그 마음은 어디다가 다 할 수가 없지만, 어머니 한테 이런 말을 한 예가 있어요. 내가 사람 같지도 않으니까 어머니가 그 자리에 펄떡 주저앉으시면서 그때 그만 사람이 못쓰게 돼 버렸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난 또 그렇게 됐는지 어떤지 아랑곳없이 거기에서 그냥 "어머니! 어머니의 진짜 자식이라면 다시 요다음에 내가 사람이 돼서 올 것이고 진짜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면, 사람이 못된다면,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애착을 떼 버리시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고 떠났거든요.

떠날 때 어머니가 좋은 옷을 두 벌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바지가 다 떨어지고 그러긴 했지만 그 몸에다가 그 옷을 걸치면 뭐합니까? 아니, 그 말도 못하게 찢어지고 피가 나고 딱정이가 앉고 사람 같지도 않은데다가 그 옷을 입으면 뭘 합니까. 그래서 가다가 그 좋은 옷은 딴 사람 주고 이러고는 한 산모퉁이로 돌아섰을 때 가랑잎이 자욱자욱 밟히더라고요. 그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서 나를 울렸죠. 그때에 나는 무슨 노래를 혼자 부르고 갔느냐 하면 '어머님의 손을 놓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산모퉁이를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지면서, 이렇게 덧없는 인간의, 이 모습의 그림자를 보시고 저렇게 쓰러지셨으니, 이것마저도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보이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잔인무도하고, 그래서 나는 몸 둘 바를 몰랐었어요. 하지만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런 예가 있듯이, 진짜 자식이라면 금과 금이 마주 있을 때에 금은 둘이 아닌 거예요. 금은 금이기 때문이죠. 근데 뭘 애착을 갖고 그럽니까. 다시 금 이 세상에 나와서 한 번 또 만났으면 헤어지는 일이 틀림없을 텐데, 그 모습을 말입니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내 자식이라 하고 무엇을 내 부모라고 하겠나. 그저 내가 뿌린 거니까 내가 해결해야겠으니 착이 없이 그대로 이익하게 해야죠.

아주 못생긴 소나무를 봐도 '아이, 너도 나와 같이 못생겼구나. 못생긴 너지만 이 위의 순을 자르면 넌 모가지까지 달아나가니 아이, 너하고 나하고 만난 인연도 인연이니 우리 같이 살아 보자.' 하고 맨 끝에 밑바닥에 달린 그것을 소나무 가지로 꺾어서, 그 잎을 씹어 가면서, 또는 그 대를 씹어 가면서 물을 마시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심이 부끄럽진 않아요. 누구를 해치려고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예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건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실과나무는, 오늘 저녁에 간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까지는 심어야 한다, 이런 게 투철합니다. 착이 없으면서 그대로 하는 거죠.

내가 부모고 자식이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막아서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과응보로서 유전성으로서 그건 그대로 과보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아서서 안달복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애를 쓰고 살 필요가 없어요. 괴롭게 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괴로울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뭐 그렇게 괴로울 게 있습니까? 다 우리가 해 놓고서, 자기 자신들이 해 놓고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인제부터라도 알고 착을 탁 끊어서 놔 버려라 이겁니다. 내 마음의 주처가 있듯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주처도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못되게 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놔 버려라 이겁니다. 누구든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불이 나 보세요. 어미 애비 생각하고 자식 생각 할 사이가 없어요. 그냥 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살 구녘은 다 찾습니다. 그런데 왜 앨 써야 합니까. 애쓸 필요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났다가, 짚단을 한데 이렇게 부착을 시켜 놨다가 헤어질 때 되면 홀연히 헤어지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근데 왜 애를 써요? 언제 적엔 부모 자식이고, 언제 적엔 부부였고, 언제 적엔 한식구였어요? 깻벌레가 원수 갚느라고 태어난 것, 그것도 인과응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으면서 홀로 있고 같이 있으면서 홀로 있고. 그것이 스스로 자기가 느끼고 스스로 알아야 하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던지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자식 부모다. 부모가 "넌 요리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랬다 하는데 자식은 "난 이리로 가는 게 좋겠소." 그럴 때에 이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이리로 가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자식은 부득이 이리로 가겠대요. 예를 들어 얘기예요. 그러면 '아! 글로 가는 것이 네가 옳다. 그리로 간다 할지라도 네가 너를 위해서, 항상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니까, 가는 대로 길을 네가 찾아 가면 되니까.' 하면 되지 뭐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도 애쓸 필요가 없어요. 떨어졌다 붙었다 이래도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저를 찾아 저가 가게 돼 있어요. 뒷받침이나 해 주고, 부처님께서도 그 뒷받침을 그렇게 해 주고 원하는 자에게 마다 안 하시고 중생들에게 해 줬죠. 지금까지도 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이상 부처님은 항시 살아 계십니다. 꽉 차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여하게 말입니다. 그러니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거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냥 홀로예요. 항상 홀로 있으면서도 항상 같이 있고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홀로 있고 말입니다.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냥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내던져도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던지면 오히려 살게 돼 있고, 내던지지 않는다면 육(肉)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되죠. 그러니 다 내던져 버리고 편안하게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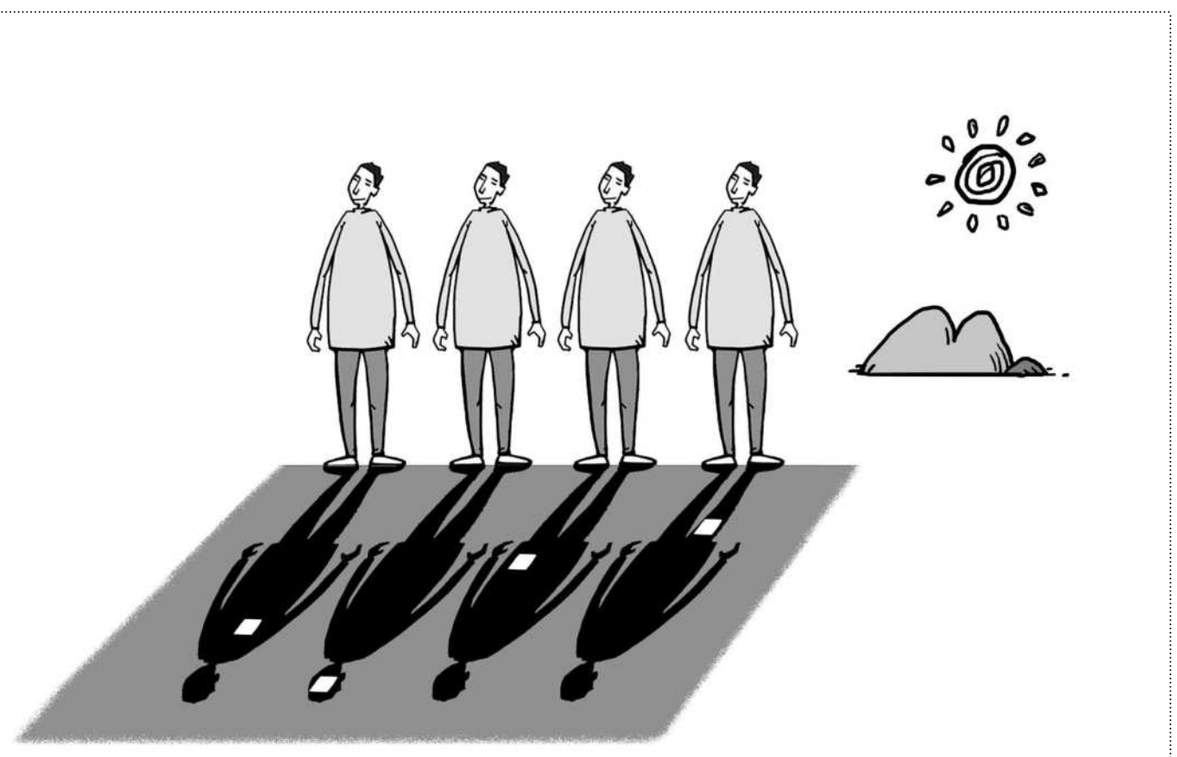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더한다 덜한다 하겠는가!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문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다 다 돌려놓고 생활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거기 해당되는 인간 법이 있을 경우에는 인간 법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 주인공에다 일체 맡겨 놓고서 거기 따라가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법이라고 한다면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서 그걸 주인공에다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주인공을 믿고 모든 거를 다 거기다 맡겨 놓고 여여하게 걸어가야 되는지요.

답 그것은 이런 게 있죠. 모든 게 한계가 있듯이 아마도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접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보약 하나도 안 먹고 자기가 아예 생각에서 그냥 보약을 먹고 있습디다. 자기가 생각해서 '아, 다 그냥 거기서밖에는 할 수 없지. 거기서 기운을 내게 해야지, 응? 기를 넣고 피가 좋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보약도 다 그냥 부처님한테 자기 성의대로 갖다 놓고는 자기들이 해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약을 아주 끊고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깐 그거는 자유예요. 근기에 따라서 그것이 되는 거지, 근기가 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고정됨이 없어요.

그러니깐 여러분의 마음대로, 자유대로 하세요. 편리하게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고,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하는 문제가 있다면 좀 너그럽고 여유 있게 뭐, 이런 것 병으로 인해서 먹는 약이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 이러한 피로회복제도 좀, 간장약이 피로회복제라고 합디다만, 그런 것을 좀 먹으면 좋겠다 할 때는 그냥 잡수셔도 좋고요. 거기에도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또 병원에 갈 일이라면 병원에 가는 것도 참선이고 그것도 법이니까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도 이것이 외려 해가 될 병이라면 차라리 안 가는 것만 못하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글쎄 어떤 사람이 이 넓적다리에 부스럼이 났었답니다. 그런데 병원엘 가서 진찰을 했는데 그것을 악성이라고 하면서 수술을 하고는 이렇게 잘라내고 도려내고는 방사선을 쪼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런 데다가 방사선을 쪼여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답니다.

그런데 방사선을 쪼여 가지고 이게 그냥 이 다리 하나가 이렇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그 남자를 이렇게 들고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선량하고 너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서 퇴원시켜라. 퇴원시켜 가지고 좀 있다가 다시금 한 번 다른 데로 가서 진찰을 해 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사선 쬐는 데서 끌어냈죠, 그러니까. 끌어내 가지고선 얼마를 있다가 인제 그 안에 모든 것이 좀 유해지고 물렁물렁해지고 그럴 쯤에 "야, 병원으로 가라, 인제. 아주 딴 병원에,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해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서 병원에서 진찰을 하니까 이건 방사선 쬐지 않을 것을 쬈다 이겁니다. 쬐어 가지고는 이게 살이 굳어져 가지고 도대체 마비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자꾸 부어오르는 거예요, 살이.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인제 다시 수술을 하고 방사선 기를 없애면서 두 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인제 아물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스님이 그렇게 나오란 말을 안 하셨으면 얘는 죽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일에는 가야 하지만 안 갈 일에는 안 가야 합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벌써 가야 할 건지 안 가야 할 건지 자기가 먼저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기독교다 가톨릭이다 이런 걸 떠나서입니다. 부처님은 당시에 이런 공부를 그냥 실상 속에서 실현을 하게끔 참선을 가르치시고 마음을, 병을 고쳐 주셨지, 무슨 육신을 고쳐 주거나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만 고친다면 육신의 병은 여러분이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불사선이고 불사악이라면?

문 불자로서 보시도 해야 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불사선 불사악' 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선도 생각을 안 하고 악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 바보라는 생각이 나오는 것도 놓으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장님이 말입니다, 장님인데 클럽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돈이 많이 있으면 눈 뜬 사람이 그걸 가져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앉혀 놓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걸 생각 못하고 저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가다가 보니깐 '에이그, 저도 거지가 누구를 돕는다고 그래?' 그럴까 봐, 그것도 좀 난 수줍어요, 그렇게. 그래서 얼른 뒤로 돌아가면서 십만 원짜리 하나하고 만 원짜리 다섯 개하고 똘똘 뭉쳐서 손에다 잔뜩 쥐었습니다. 쥐고선 가다가 얼른 그 사람 손을 딱 쥐고 요걸 쥐여 주고선 "15만 원이야!" 그랬습니다. 귀에다 대고 살짝 말하면서 쥐여 주곤 '뒤야, 날 살려라.' 하고는 부지런히 그냥 길을 걸었습니다.

거기 이유가 뭐가 붙습니까? '이런 걸 보시를 해라 안 해라.' 이런 게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내가 가다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거지, 그것뿐이지 무슨 이유가 거기 붙습니까? 여러분, 변소에 가서 똥 눌 때 이유가 붙습니까? 잘 때도 이유가 붙고 먹을 때도 이유가 붙습니까? 이유 붙지 않습니다. 진짜 배고플 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밥 턱 갖다 놓고는 그냥 퍼먹습니다. 똥 급할 때 변소 문 열자마자, 무슨 이유가 거기 붙어요? 그냥 뭐 그냥 그냥 들어가서 얼른 풀고 누고 나야 그때 쪼끔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할 때 이유 붙지 않듯 참선이라는 것은 그렇다 이 소립니다. 급박할 때 이유 붙지 않듯. 왜 좋은 옷을 입고 가다가요, 요거 흙물 튈까 봐 좀 사리고 그러다가, 요거 앉는 데도 좀 조심해서 앉고 그러다가 나중엔 흙먼지 비가 그냥 막 쏟아져서 만약에 다 맞았다고 할 땐, '에라, 이젠 다 맞았다.' 이럴 땐 조심도 안 되고 물방을 튈까 봐 걱정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공해서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며 무엇을 안 했다고 하며 무엇을 더 한다 덜 한다가 있겠습니까. 내가 불쌍한 것 보면 그대로 하는 거고 또는 내가 할 게 없으면 무주상 보시로 마음을 내서 저 사람도 그렇게 잘 살아라 하고 마음을 내 주면 무주상 보시가 되고, 유주상 보시도 그렇게 하고, 아, 양면으로 다 해도 한 사이가 없어요. 이유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게 참선이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바보인가요?" 그러거든요. 가만히 놓고 가면 뭘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벌이하는 것도 참선이요 못하는 것도 참선이요, 일하는 것도 참선이요 아, 모두 부지런히 뛰는 것도 참선인데, 지금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 이게 참선이에요. 아, 지금 세상에

☞30면으로 계속

진리에 순응하면서 넓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29면에서 계속

가만히 멍멍이처럼, 바보처럼 가만히 뒷산이나 쳐다보고선 가만히 명상이나 하고 이렇게 앉았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조 스님이 말입니다, 글쎄 딱 가부좌를 틀곤 떡 앉아서 좌선을 한다고 앉아 가지고는 옴쭉도 안 하다가 밥 먹을 때 '공양해라' 이러면 일어나거든요. 오줌 마려우면 일어나고 똥마려우면 일어나고, 그 외에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사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이거는 큰일 났거든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이 씨가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기왓장을 가지고 그 턱 밑에다가 놓고는 싹싹 갈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마조가 내려다보니까 우리 스님이 참 이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좌선하다 말고 "스님! 그 뭐 하시려고 기왓장을 그렇게 가십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 하니까 '아이구, 망령이 들으셔도 이건 뭐 보통 망령이 든 게 아니고 어떻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 그게 기왓장을 갈아 가지고 거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너는 그렇게 틀고 앉아서 부처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똥도 누러 일어나지 말고, 선이 끊어질 테니까, 아니 오줌도 누지 말아야 하고 먹지도 말아야 하고 그래야 어떻게 선이 끊어지지 않지, 선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끊어지니 어떻게 부처를 이루느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무릎을 탁 치고는 "아이구,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군요." 하면서 그때서야 자기 은사한테 삼배를 올리고 "스님, 이것도 참선인 걸 몰랐습니다." 하더랍니다. '참선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를, 이걸 몰랐습니다.' 하는 거를 말하고선 그때 껄껄 웃고 내려다보면서 한번 올었답니다.

그런 이치가 있듯이, 여러분은 지금도 참선하는 거고 변소간에 앉았어도 참선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건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아주 요렇게 정해 놓고 사는 것이 그냥 관념이 돼 가지고, 습이 돼 가지곤 그걸 떼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하는 생각에 매여서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의 도리를 알려고 하는 데 항상 뜻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

문 미국에서는 큰 산불이 나서 엄청난 지역을 불태워 버리더니 우리나라에는 태풍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홍수와 물난리로 온 산하가 멍들었습니다. 역대 조사 스님께서나 현존해 계시는 부처님께서는 마음 도리로써 협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천재지변이나 그러한 사태에 무지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될지 스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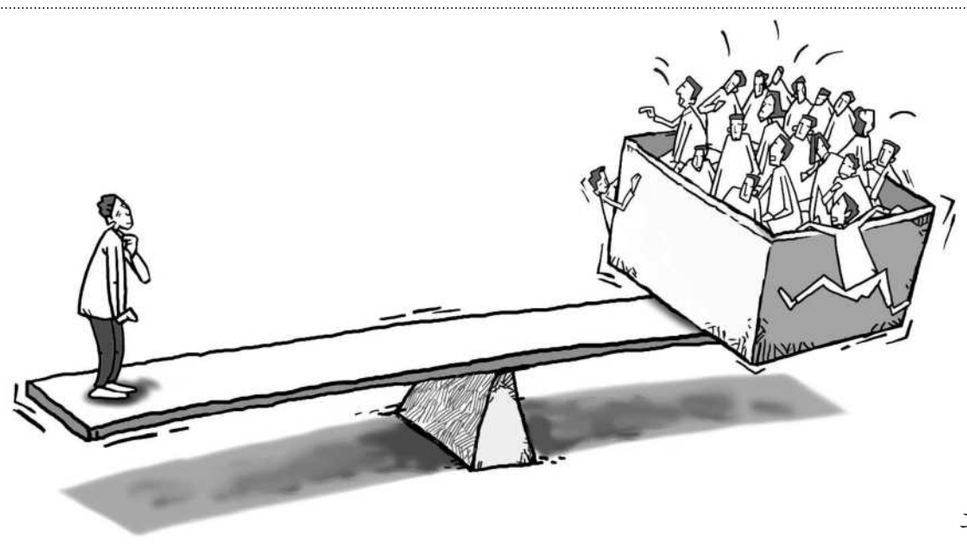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이상 부처님은 항시 살아 계십니다!

답 이것은 그대로 진리에 순응하는 일이죠, 그대로. 사람들이 넓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는 게 없으면 가는 게 없듯이, 우리가 그런 것을 불상사라고 하지만 그게 불상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태양열과 즉, 온기라고 합시다. 그 온기가 밑 물 찬 데까지 서로 대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고 또 그 소용돌이가 치지 않는다면 위의 것이 못 살고 아래 게 못 삽니다. 그래서 밑의 게 위로 올라오고 위의 게 밑으로 내려가야만 같이 먹고 삽니다. 서로 주고 서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 더불어 물도 모든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물도 사는 거지, 생명들이 없으면 물도 죽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데도 역시 그렇습니다. 인간들뿐만 아닙니다. 물에서 사는 거든지 들에서 사는 거든지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산에서 풀을 다 태우는 일들은 그 곤충이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새 뿌리 새 싹이 나와서 다시 먹게 하기 위한 도리도 됩니다. 이 모두가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그게 자연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잘못해서 불이 났다.' 이러기보다는 '다,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태풍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그거는 어쩐 일로 그러냐 이러겠죠. 넓게 본다면 그거 역시 마찬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외아들을 데려갔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외아들이고 아니고 간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다시 대치해서 다시 내보낼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깐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치도 이거는 벗어날 수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자유스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기주머니를 한 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반면에 모든 걸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치는 그런 것을 다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큰 그릇이 되라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대치를 다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실감나는 얘기 한마디 할 테니 들어 보세요. 내가 그전에 산으로 들로 돌아다닐 때 얘깁니다. 장마 질 때가 거의 됐다 해도 어느 순간에 장마가 닥쳐올는지를 인간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논두렁을 지나다 보니까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 물을 떠서 논에도 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날이 궂거나 그렇지도 않았는데 큰 개구리가 뒷다리에다가 뭘 걸고선 질질질질 끌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선 자세히 보니까 알 있지요? 개구리 알! 그걸 떠내려 갈까 봐 풀숲에다 끌어다 놓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물에서부터 질질질질 끌고는 우거진 풀숲에다 갖다가 놓거나, 제 자식을 업어다가 풀잎 위나 나뭇가지 위에 갖다 놓고 그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볼 양으로 거기에 또 가고 또 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더니 그 이튿날이 되니까 그 작업을 다 했어요. 그 기다란 알집을 그냥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웬걸, 날이 궂기 시작하더니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면서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데, 말도 못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알까지 살리기 위해서 태풍 전에 미리 피난시키는 그런 개구리도 있는데, 여러분은 거듭거듭 진화가 돼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재권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 자식을 위해 뿌리에 밑거름을 줄 수 있고 또 그 뿌리의 밑거름이 부모 조상들한테까지 가서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를 못해서 가슴이 아프다든가, 또 늙어 가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부모한테 효도만이 아니라 뭐 하나 한 게 없다면 그것이 바로 묵은 빚입니다. 나도 묵은 빚 때문에 많이 울었죠. 개구리도 다음 날 장마가 올 것을 알고 있는데 인간이 그만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 소립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농사지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옥수수나 수수도 올해는, 즉 몇 개월만 있으면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겠다 할 때는 뿌리를 넓게 잡아요. 그래서 옥수수가 뿌리를 넓게 잡은 걸 보고 올해 태풍이 얼마만큼 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그런 미물들도 미리 대비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지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지견이 풍부한 인간이 어떻게 기복으로만 나가면서 도깨비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살아서 귀신 짓을 하면 죽어서도 귀신밖엔 못 돼요. 그런 습만 남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또 자기만 귀신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식들더러 귀신 노릇 하라고, 귀신 노릇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냥 자꾸 산 자식들을 못 견디게 굴어요. 그러니 그게 부모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서 귀신 짓을 하지 말아야 죽어서도 귀신이 안 되고 선신이 돼서 자식들을 돌볼 수 있고 자기가 낳은 것을 자기가 거둘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뿌린 거 자기가 거둬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뿌리고도 자기가 거두지 못하는 현상들이 모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못 믿고 자기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가 자기를 몰라라 합니까?

그러니 우리 오늘부터라도 서로 사랑하고 아픔도 둘 아니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저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전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일 거예요.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 돈벌이에 치중하고 명예를 구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당신에게 연꽃향기를 전해드립니다

혜정정사의 밀교수행강좌 모음집



불교TV에서 방영됐던 혜정 정사의 밀교수행강좌 26회분 모음집입니다.
컴퓨터로 볼 수 있고 일반 DVD로도 볼 수 있습니다.
DVD로 볼 수 있는 것은 압축한 시디 1장입니다.
모두 10장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100세트 한정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배송료를 포함해서 6만원**입니다.
국민은행(예금주 : 최종웅) 계좌번호 661725-89-144651로
송금하시고는 반드시 전화 **031)254-2585**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송금확인과 주소확인이 되는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닦은 복전 (하)

하용이 (한국은행 홍콩사무소장)



그림 · 문병성

어머니는 아버지 사업이 번창하던 시절, 전국의 명산대찰을 찾아다니시며 불공을 올리셨다. 그때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절에 다니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을 안 것은 몇 십 년이 지난 뒤였다.

가세가 기울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은 모두 깊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별다른 내색 없이 절에 다니시며 불공을 올렸다. 가족들에게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신앙심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았다.

부산 동광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 덕수초등학교로 전학을 왔던 나는 경기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살림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해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북한산 국영사에 금강경 보시를 하시는 등 아들 입시를 위해 정성을 쏟으셨다.

그런 어머니의 정성 때문이었는지, 나는 원하는 중학교에 무난히 입학하게 됐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그 때 그렇게 사찰에 보시를 할 여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은 신앙심으로 부처님 곁에 있었던 것은 '아들'이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자신보다 더 불심깊은 불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먼 훗날까지 내다보며 자식들을 부처님 제자로 만들기 위해 교육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몇 년이 지나면서 집안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외상매출금 담보로 받아두셨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식구들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는 새 각오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셨다.

그 이후 나는 서울대학교 입시를 앞두게 되었고, 어머니는 관악산 연주암을 발이 닳도록 오르내리시며 중학교 입시 때처럼 아들을 위해 정성을 쏟으셨다.

한 번 발원을 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밀고나가는 어머니의 신앙심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소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영사와 연주암에 오르내리셨던 어머니의 신심과 정성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고등학교 이후 지금까지 신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과정에서 본분을 잃지 않으면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불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다 어머니의 지고지순한 신심 덕분이다.

어머니 신앙심은 내 인생의 밑거름 역할

열심히 공부한 덕에 포교사 자격증 취득도

은혜 · 가피 보답하기 위해 봉사활동 열심

내가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경기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룸비니'라는 재가신행단체의 고등학생부에 가입하면서부터다. 고3때에는 대학입시 준비로 정신이 없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아침마다 삼귀의를 꼭 열번씩 외고, 쉴 때나 틈날 때나, 공부로 지칠 때에도 삼귀의를 외며 마음을 다잡았다.

서울대 국문학과를 마치고 경영학과 학사편입시험과 대학원 경영학과 입학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는 1년 동안 꼬박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금강경을 독송했다.

물론 룸비니 대학생부와 법도회 법회(매주 토요일)에도 꼬박꼬박 참석했다. 그런 중간 중간에 나태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공부에 별다른 진척이 느껴지지 않아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준 것은 바로 신심깊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었다.

룸비니와의 인연은 이렇게 해서 벌써 40년이 되어간다. 룸비니 고등부와 대학부 섭외부장, 고등부 향토찬양대회 지도사, 법도회장 등 안 해본 것 없이 모든 자리를 거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신행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보람은 청담 · 성철 · 석주 스님 등 큰스님들과 양주동 · 서돈각 · 이기영 · 박종홍 박사와 서정주 · 고은 시인 등 당시 내로라하는 석학들을 가까이 하면서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1988년 시작된 한국은행불교회와의 인연도 20년이 되었다. 얼떨결에 간사직을 맡게 되면서 매주 열리는 금요법회에 매번 다른 법사스님을 모시는 일로 늘 고민을 했다. 그렇게 17년을 간사직을 맡으며 수많은 스님들을 모셨는데, 모시는 스님들마다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다.

하지만 공부라는 것이 끝이 없는 것처럼, 부처님 법에 대한 갈증도 끝이 없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차근차근 정리해보자는 마음이 생겼고, 봉은사 봉은불교대학 야간반에 다니면서 불교공부에 매달렸다.

여전히 부족하기는 했지만 공부한 덕에 조계종 포교사 자격도 얻게 됐고, 봉은사 청정공덕회 부회장이 되면서 봉은사에서의 신행도 이어졌다.

공부하면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실천행'이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부처님 법을 사회에 회향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러던 차에 2005년 한국은행 연수원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한국은행 자원봉사회 회장까지 맡게 됐다. 은행에서 가까운 회현동 쪽방동네 이웃들을 매달 찾아가 함께 했으며, 무료급식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소년의 집 어린이들과 놀이공원 나들이를 하는 등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활동하면서 비로소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머리로만 부처님 법을 이해해왔던 것이 후회됐다.

작년 1월 여러 도반들의 요청으로 한국은행 불교회 회장을 맡게 되면서도 실천행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겼다. 그래서 12월에 열린 한국은행 불교회 창립 20주년 기념법회에서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올해 건학 10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불교병원에 노스님 치료를 위한 후원기금을 헌정하고, 그동안 한국은행 불교회를 위해 훌륭한 가르침을 내려주신 스님들의 군법당과 대웅전 등의 불사에도 적극 동참했다.

영광스럽고 즐거운 이런 모든 인연들은 모두 다 어머니의 불심과 삼보의 가피로 이루어진 것이다. 홍콩에 와서는 이런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닦아 놓으신 복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처님 법을 따라야겠다고 매일매일 다짐하며, 오늘도 아침 해와 함께 태평산 사자정에 오른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계룡산 대자암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

대승보살계(大承普薩戒)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구계(四十八輕拘戒)는 출가비구와 재가신도를 막론하고 다 같이 수지하여야 할 계법입니다.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계를 지키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갇혔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나간 이가 돌아옴과 같나이다 (범왕경)라고 하셨습니다. 금번 대자암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계사 송광사 총림 방장 보성 대화상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법회안내
▷ 보살계 수계법회 : 윤달 음, 7월 25일 (양 9월 17일)
▷ 접수마감 : 윤달 음, 7월 15일 (양 9월 17일)

계룡산 갑사 대자암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5880 / 팩스 041)857-5215

탈종공고

• 사찰명 : 지장사
• 주 지 : 혜주(오용득)
• 주 소 :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523-1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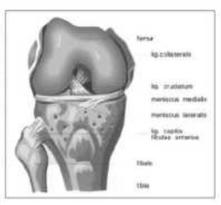
불기 2550년 8월 23일

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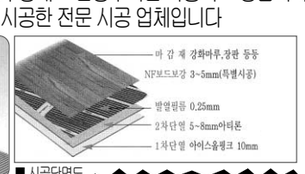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m	1569/kw	124㎥	182 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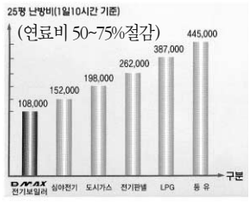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식당, 사무실 등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그림5 : 석가탄생을 축하하는 천룡 팔부

'… 유아독존' 중생 구제 의지 뚜렷


그림4 : 탄생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불화 속의 명장면 (14)

日 후쿠오카 혼카쿠지 소장 '석가탄생도' (하)

사방 칠보 걸음, 정반왕의 친견 등 정교하게 묘사
사성제와 팔정도 통한 대승불교적 보살정신 표현
'석보상절' '월인석보' 등 훈민정음 창제 목적도 반영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천상천하 유아독존 天上天下 唯我獨尊)"

석가모니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아무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사방으로 일곱 걸음씩 걸으시니, 땅에서 연꽃이 저절로 나타나 그의 발걸음을 받들었다. 그리고 오른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 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사자후(獅子吼,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한 사자의 목소리)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그림4).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어찌 들으면 자칫 오만하게도 들립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개인의 주체성만이 진리'라는 실존철학적 냄새도 풍기는 듯합니다. 석가모니의 첫 말씀.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본 후쿠오카 혼카쿠지(本岳寺)에 소장되어 있는 '석가탄생도'에는, 마야부인의 룸비니동산 방문, 무우수(아쇼카 나무) 아래의 출산, 사방 칠보 걸음과 석가 최초의 사자후, 구룡 욕불(浴佛 또는 灌佛, 탄생석가불을 목욕시키는 의례) 장면, 정반왕의 친견 행차, 탄생에의 찬미와 그 상서로운 징조들이 매우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재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본 작품은 조선전기 편찬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 등과 관계있는 조선전기(15세기 후반) 왕실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본 작품은, 석가의 생애 중 가장 기념이 되는 주요 여덟 장면 즉 팔상도(八相圖) 중에 석가모니의 탄생을 그린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석가가 탄생하니) 천지가 진동하고 삼천대천세계가 다 밝아졌다. 그 때 사천왕이 하늘 비단으로 안아서 금궤 위에 얹고(연재13 그림3 참조) 제석은 천개를 떠받치고 범왕은 불자를 잡고 양쪽에 서서 향을 뿌렸고, 아홉 용이 물을 내려 씻기니, 물이 왼편엔 덥고 오른편엔 차가웠더라(연재13 그림1) … 천룡 팔부가 공중에서 풍악을 울리며 부처님의 덕을 노래부르고 향을 피우며 영락과 꽃비가 섞여 떨어지니(그림5) … 채녀가 하늘 비단으로 태자를 싸안아 부인께 모셔오니 스물여덟 대신이 네 모퉁이에서 받들어 모시더라(그림6). 청의(궁녀)가 돌아와 왕께 기별을 아뢰니까 왕이 사병을 데리고 동산에 들어가시는데 한 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려우셨다(그림7)." <석보상절 발췌 인용>


그림6 : 석가탄생을 호위하는 28대신

지금으로부터 2600여년 전 음력 사월 초파일날 바로 이 작품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광경들이 펼쳐지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접하는 역사와는 또 다른, 대외적인 사건들로 엮어진 역사가 아니라 대내적인 자아, '나는 무엇인가'라는 실존적 근본과 씨름하는 역사의 여명이 밝았겠지요.

석가 '탄생게'로서 우리는 보통 앞서 언급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문구에만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뒤의 문구 "모든 세상이 고통 속에 잠겨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三界皆苦 我當安之)", 즉 고해의 바다 속 중생을 구하겠다는 이 커다란 서원에 앞 문구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구원의 방법으로 석가가 제시한 것이 사성제와 팔정도이지요. 자신을 스승삼아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중생 모두 건지겠다는 대승불교적 보살정신, 이는 이 작품의 소의경전이 되는 <석보상절>의 서문 첫 구절에 나타난 그 취지와도 같습니다.

"부처는 삼계의 존귀하신 분이라 중생을 널리 제도 하시니(佛爲三界之尊 弘渡群生) 그 무량공덕을 사람과 하늘 다 기리지 못하는 바 됩니다" 이 석가모니의 이루신 업적을 '그림으로' 또 '정음(한글)'으로 쉽게 풀이하여 백성에게 널리 읽혀 몽매한 이들을 교화 제도하겠다는 <석보상절>의 편찬 취지는, 민중교화 · 민중계몽의 취지로 창제된 훈민정음 창제 의도, 한 개의 달이 수천 개 강에 비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힌다는 월인천강(月印千江)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하는 핵심원리입니다. 민중불교에의 진정한 시작은, 이렇게 한글창제와 불경언해사업을 몸소 시작한 세종과 세조로부터, 불교가 그 어느 시대보다 탄압받았던 숭유억불시대에, 그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구해야겠지요. 그리하여 석가는 29세에 출가하여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의 나이 35세가 되는 해에, 육체적 탄생이 아니라 새로운 '정신적 탄생'을 하게 됩니다. 무명에 가리워졌던 자성(自性)이 그 통로를 찾아 밖으로 표출되게 되면 빛을 발하나 봅니다.


그림7 : 정반왕의 친견 행차

석가 득도 후, 녹야원으로 첫 설법을 가던 도중, 한 사문이 그의 안색에 광명이 넘치므로 예사롭게 여기지 않고 "너의 스승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답니다. 석가 왈, "나는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를 아는 사람/ 무엇에도 더럽혀짐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애욕을 끊고 해탈한 사람/ 스스로 체득했거니 누구를 가리켜 스승이라 하랴/ 나에게는 스승 없고, 같은 자 없으며/ 이 세상에 비길 자 없도다/ 나는 곧 성자요 최고의 스승/ 나 홀로 정각이루어 고요롭도다/ 이제 법을 설하려 가니/ 어둠의 세상에 감로의 북을 울려라"라고 하였답니다. 다름 아닌 바로 '탄생게'의 사자후입니다.

석가는 열반에 들기 전 그의 유명한 마지막 유언에서도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법(진리)을 등불로 삼고,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이 밖에 다른 그 무엇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법(自燈明 法燈明), 이 밖에는 그 어떤 편도도 지름길도 없습니다.

석가는 그의 '탄생 때'와 그가 '깨달은 직후', 그리고 '열반에 들기 전',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모두 일맥상통하는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나를 스스로 등불삼아,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02)2004-8219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원종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